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Your
Salvation is
Eternally
Secure!



김재욱 지음

**구원의 불안
삶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다**



그리스도 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지은이 / 김재욱

Copyright ©

2024년 8월 1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비매품(www.KeepBible.com에서 무료 다운로드)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Your Salvation is Eternally Secure!”

— J. W. Kim —

목차



발간사	6
머리말	8
일러두기/ 저자 소개	10

Part. 1

구원의 불안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12
“매일 회개해도 부족하고, 지옥이 두렵기만 합니다”	20
구원의 영속성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	31
잇을 만하면 찾아오는 구원의 의심… 불안을 극복하는 바른 정답은?	39
행위구원, 변질된 복음의 현주소	48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담긴 뜻	58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던데?	67
옥한흠 목사의 비성경적 예정론	70

Part. 2

삶에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대 정신과 구원의 영속성	82
영화 <쇼생크 탈출>과 <벤허>에 담긴 구속(救贖)의 원리	88
순간접착제의 기억과 소망	94
‘부끄러운 구원’이 무슨 말인가?	103
구원 간증과 신앙 이력의 차이	110
구원은 ‘수동형’이지만 믿음은 ‘능동형’이다!	115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의 차이	125
[크리스천 감별법?]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132

Part. 3

성경에서

구원 교리가 갈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이유	142
구원의 '확신'인가, '담대함'인가?	150
세상 죄를 지고 가나, 제거하나?	159
웃사는 죽어서 지옥에 갔을까?	162
하나님은 왜 '대신 속죄'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170
'구원 취소' 교리에 썩기를 막는 성경 구절은?	178
'행위'와 '행함'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는?	181
킹제임스 흠정역의 완료형 표현이 주는 은혜와 위로	189

Part. 4

답을 찾다

'구원의 영속성'이 안 믿어져요	196
구원의 영속성에 관한 히브리서 3장의 난제	203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구원받는다? (막 8:35)	216
율법이 양심이 된다고 하던데요?	223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인가? (고전 9:27)	226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구원을 잃는다는 것인가? (롬 11:21)	234
포도나무를 떠나면 불에 던져지나? (요 15:1~6)	242
죄, 돌이킴(회개), 구원의 확신 Q & A	247

부록 믿음과 행위의 전쟁...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256

에필로그 282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을 그 어떤 창조물이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이번에 크리스천 작가 김재욱 형제님께서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제목의 좋은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눅 19:10)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구원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히 2:3)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큰 구원(great salvation)’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성화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부추기기 위해 주변의 어떤 분들은 중도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구원의 영속성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면 어떤 분들은 결국 무언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평생 신앙생활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책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을 과연 우주 공간의 어떤 창조물이 빼앗아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이해하면 너무나도 쉽고 명백한 문제를 복잡한 철학으로 바꾸어 버리려는 인간의 시도, 이것을 버리고 단순하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가 주는 확신 속에서 굳건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히 5:9).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perfect peace)으로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사 26:3). 이런 완전한 화평 가운데서 죄와 투쟁하며 전진하는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이 책의 정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샬롬.

- 정동수 목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사랑침례교회 목사



구원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려면 영원한 안전 보장이 필수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입니다.

둘째로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이 공짜라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공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전을 영원토록 보장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세 가지 소식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 소식입니다. 둘째와 셋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무언가 지불할 일이 남아 있거나 삶을 종합해 추후에 결론이 난다면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그런 모순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1장은 구원의 불안과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의 고민에 대하여, 2장은 세상 이치와 삶을 통해 얻은 구원의 원리에 대한 교훈을 다뤘습니다. 3장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영속성을 바르게 번역한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4장은 제 블로그를 통해 질문을 하신 분들의 궁금증에 답한 글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글은 주변의 궁금증을 다룬 것이고, 잘못된 구원관 설교나 떠도는 이야기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모아 놓고 보니 이렇게 양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구원과 복음 변증을 위해 『내가 왜 믿어야 하죠?』라는 책과 구원의 영속성과 안전에 관한 스토리텔링식의 『구원 열차 구원 방주』를 썼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글이 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구원이란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해결 과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썼지만 맞지 않는 내용이나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의 내용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또 과연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 고하며 성경에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성경적이라 생각하시면 널리 전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기뻐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원 교리는 더 흐릿해지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제작하는 PDF 복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동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전하는 대부분의 교리들은 정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풀어 낸 것입니다. 이번 책도 꼼꼼한 교정으로 섬겨 주신 김지훈 형제님과, 전체를 읽고 모니터링과 함께 교정 의견을 주시는 캐나다의 북경아재 최병찬 형제님께도 감사합니다. 이 책이 구원 문제로 고뇌하는 독자님들에게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 2024년 8월 김재욱 드림

일러두기/ 저자 소개

■ 붉은색 고딕체 성경 발췌문은 모두 그리스도예수안애가 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마제스티 에디션)입니다. 파란색 고딕체 성경 발췌문은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 성경과 기타 성경입니다.

김재욱



프리랜스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인 저자는 글쓰기, 그림, 도서 기획 등을 하면서 창조과학과 진화론 반박, 복음 변증, 종말론, 성경 교리, 연애와 결혼, 미디어 분석 등을 주제로 4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저서 중 3종은 기독교출판문화상을 수상, 1종은 문서 선교인이 뽑은 좋은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구원의 원리와 영원한 안전 보장, 행위구원과 구원 취소 교리 등 흐트러진 구원관을 성경을 바탕으로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저서

-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구원열차 구원방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거짓 과학 진화론 다른 복음 유신진화론(이상 그리스도예수안애)
- 내가 왜 믿어야 하죠?/ 1318 창조과학 A to Z/ 1318 신앙질문 A to Z/ 1318 고민상담 A to Z 1318 신앙 멘토 스쿨/ 1318 성품 스쿨/ 1318 매너 스쿨/ 한컷만화 기독교 진리 130(이상 생명의말씀사)
- 연애는 다큐다(국제제자훈련원) • 사랑은 다큐다(헤르몬) • 독자를 설득하는 쉬운 글쓰기(필로)
- 예수님의 천국 초대장/ 교회를 관통한 결정적 장면/ [개정증보판]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이상 하온)

▶ **블로그** www.blog.naver.com/woogy68 ▶ **이메일** woogy68@naver.com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Part

1

구원의 불안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매일 회개해도 부족하고, 지옥이 두렵기만 합니다”

구원의 영속성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

잇을 만하면 찾아오는 구원의 의심... 불안을 극복하는 바른 정답은?

행위구원, 변질된 복음의 현주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담긴 뜻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던데?

옥한흠 목사의 비성경적 예정론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생각과 육신으로 죄도 너무 많이 짓고, 갖가지 복잡한 내면과 부족한 인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유익한 설교나 글을 읽을 때는 잠시 힘이 나지만 그때뿐이고, 또다시 절망과 의심에 빠집니다. 성화의 길은 보이지 않는 나, 정말 구원받은 게 맞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의 고백이다. 아마 성도들 모두가 느끼는 고민일 것 같았다. 일상의 죄와 신앙적 슬럼프로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괴로운 마음을 하소연한 것이다. 분명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데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힘을 내라는 취지에서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싶다는 청년에게 무기력의 이유와 함께 몇 가지 해결책을 적어 보았다.

1. 마귀의 고소

일단 남의 탓(?)부터 해 본다. 마귀는 먹고 하는 일이 이거다. 틈만 나면 휘방하고, 고소하고, 이간질한다. 이는 고소가 그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모함하고 일러바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패배의

식과 자괴감과 죄의식을 심고, 의심과 불신과 유혹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넌 자격이 안 돼. 알잖아. 오늘도 네가 한 짓을 보라고.”

“헐… 네까짓 게 무슨 구원?”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내 눈을 바라봐(??).”

“넌 어느 모로 보나 내 과지, 구원과 성화에는 안 어울린다니까.”

“설마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약속이라고 믿는 거야? 순진하긴…”

이런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들리는가?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평가절하하면서 ‘그럴 리 없다’고 외친다. 고소하는 자는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심고, 그것이 무력 무력 자라기를 바라면서 부채질을 하고 물을 준다. 그러나 이 지긋지긋한 고소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다. (계 12:10)

2. 죄의 경향

그러나 마귀의 고소만이 모든 원인은 아닐 것이다. 마귀의 소리가 차단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성령 충만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견고한 방음벽이 죄로 인해 구멍이 송송 뚫려 버리니 그 사이로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과 육 사이에 있는 ‘혼’은 사람 자체이며 우리의 자아이고 마음이며 목숨이다. 죄는 물론 육적인 것이다. 우리

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데 자꾸만 육적인 것에 기울다 보니 우리의 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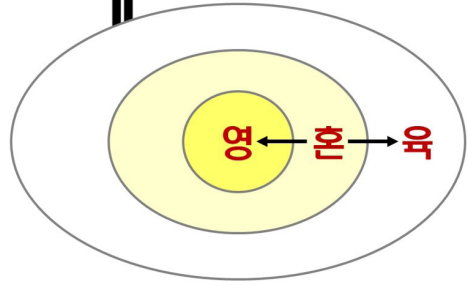
죄는 마귀와 통하는 끈이며 실이다. 죄와 연결된 실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고소하는

소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만성 귀울림증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기쁨이 넘쳐흘러 유혹을 거뜰히 이기며, 자잘한 일들에 절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만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너무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죄의 유혹도 많으며, 주변에 참된 신앙인도 많지 않다. 또한 지식과 정보는 많아졌지만 오염된 교리가 많아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보, 마귀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정보와 미디어의 ‘미니멀리즘’ 실천이 영혼의 살길이다.

성도의 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의 구조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롬 8:8~10)

물론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죄를 등지려는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하며, 죄를 지었을 때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야 한다. 죄와의 거리가 평안과의 거리를 결정할 테니까 말이다.

3. 자녀라는 증거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존재라 해도 부처나 알라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양심의 소리와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이다.

마귀도 자기 자식은 느긋하게 관리한다. 가만 놔둬도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뭐 하러 공을 들일까? 내 개인 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내 몫이니까, 중간에 있는 탕수육부터 먹어 두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자기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흔들어 댈다. 빼앗아 올 수는 없어도 괴롭힐 수 있고, 좌절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조금은 뻔뻔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이것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고 친근한 자리로 내려와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말로만 아버지가 아닌 그냥 '아빠'가 되신다.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가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기대할까? 아직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자녀라면 넘어져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를 비관해 자학하거나 마음이 다치지 않기만을 바랄 것이다. 그리고 힘들 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든든한 아빠가 뒤에 있으니 마음껏 뜻을 펼치면서 기쁘게 살기를 바랄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일 3:1~2)

우리에게는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서류상으로 확신한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

- 아버지가 진짜 맞는지 의심하는 것.
- 어마어마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 그 선물을 줬다 뺏을 수도 있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4. 느낌에 의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죄로 인해 마음이 냉랭하고 절망이 되면 감동과 감흥을 잃기 쉽다. 한마디로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느낌에 따라 요동하게 두면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은행에 전 재산을 넣어 두고도 발을 뺄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은행에 대한 공신력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전쟁이 날 것 같
다든지, 그 은행의 부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의심이
생기고 내 돈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느
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다. 그렇지만 느낌만으로는 조그마한
세상일 하나도 뒤집을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은행은 건재한데 나의 느낌만 문제라면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도 어떤 시험에 통과하려면 점수가 되고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응시생들의 합격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나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은
채점자들이 알 필요도 없으므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느낌이 아닌 믿음을 보신다. 모세와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양의 피가 칠해진 집이면 그 안에 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는지 아
무 상관없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그 피가 나를 살려 줄지 몰
라 불안한 느낌으로 긴긴밤을 보냈더라도 어쨌든 피를 바른 집에 있던 사람
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느낌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일을 그
르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느낌으로
선 사람은 느낌으로 망한다. 자기 자신을 믿은 결과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
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며 멸망으로 걸어 들어간다. 크리스천
중에도 느낌이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들은 성경의 중요성과 준엄함을 간과하여 큰 절망에 빠지기 쉽다. 말씀이 없
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데도 말씀의 완전함에 대해 소홀히
여기곤 한다.

사실 말씀의 확실성, 그리고 불변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베드

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기록된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자신을 믿기보다는 말씀의 확실성을 믿은 것이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빈후 1:18~19)

5.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야 할 것은, ‘정말 구원받았는가’이다. 하나님은 절단코 어떤 사람에게도 증서를 따로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우쭐해져 다시 방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말의 의심’은 우리와 평생 같이 가면서 끝없이 우리를 괴롭힐 테지만, 그것이 나태하고 가라앉은 마음을 휘저어 우리를 또한 건강하게 할 것이다. 마치 태풍이 바다를 때릴 때 물이 요동하지만 그래야만 바다의 플랑크톤이 올라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게 멎쳐 다니다가 질식하는 양들 사이를 악동 같은 양치기 개가 흠어 놓는 것처럼 말이다.

구원을 한순간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이상한 집단임이 틀림없다. 사람의 근심은 두 종류다. 물론 의심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자기 생명에 대한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후 7:10). 또한 성도의 좋은 근심은 구원을 점검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이다.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나면 의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자괴감이나 의심도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근심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근심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근심이 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위로와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다. 오래 그것에 빠지지 말고 힘을 내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벧전 1:6~9)

어떤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토록 멋지고 든든한 안전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은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의 고민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망을 갖고, 힘을 내자.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결말’, 즉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은 초라하고 근심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자. 📖

"매일 회개해도 부족하고, 지옥이 두렵기만 합니다"

어떤 분이 SOS를 요청했다. 회개를 강하게 촉구하는 책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이었다.

“조셉 얼라인의 책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를 읽고 상심했습니다. 폴 워셔의 책과 강연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저는 천국에 영영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다. 리처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라는 책을 보면 몇 페이지를 읽기도 버거울 정도로 두렵고 짹 짹하며,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처음엔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지나면 자포자기가 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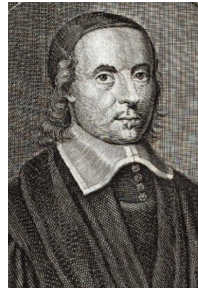
그 책의 내용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야 할 죄악의 허들이 천국 문앞에 오백만 개쯤 놓여 있는 것 같아 숨통이 조여들고, 구제불능인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탄식만 나온다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 내게 호소한 분에게 무슨 말

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정답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몰라서 하는 고민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그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 글을 써 보았다.

1. 두려움

조셉 얼라인(J. Alleine, 1634-1668)은 청교도였다. 34세로 요절한 그는 이 책 외에도 회심과 회개에 관한 책을 많이 썼다.



조셉 얼라인

백스터도 동시대의 청교도다. 이들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반대해 네덜란드로 갔던 사람들로 일부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고(1620),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서는 후대에 기독교를 더욱 꽃피운 걸출한 신앙인과 작가, 목회자가 나왔다. 존 밀턴, 존 번연, 찰스 스피전, 조너선 에드워즈 등이 그들이다.

16세기 메리 여왕 때 교회의 순수함을 주장하다 화형당한 존 후퍼로부터 시작된 그들은 말 그대로 청교도(淸教徒, puritans)이다. 순결하고 점 없는 신앙을 추구한 이들은 사치와 향락을 죄악시하고, 마술을 금지했고, 금주는 물론 연극 관람도 금할 정도로 삶 속의 모든 정욕을 삼가며 검소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쓴 사람들로서 이름난 금욕주의자들이다.

자신을 억제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자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죄를 규정하는 경계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 만일 죄를 아예 짓지 않으려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쾌락)의 창시자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만든 자가 마귀다.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움인데, 어디부터 정욕일까? 배가 고프거나 무언가

먹고 싶은 것이 ‘식욕’이면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일까, 아니면 생존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배가 부르면 정욕이고 죄악일까? 굶주린 자들이 지구촌에 넘쳐 나니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일도 죄가 아닐까?

이처럼 죄는 경계도 모호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기 나름인 것도 많으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복잡한 문제도 오늘날 도처에 널려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천국 문에서 한 발짝 멀어질까 노심초사해야 할까?

2. 자격

구원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운전대를 잡아서 안 되는 사람이 차를 몰고 길에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것을 공부하고 숙달한 뒤에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는 것이 운전면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뺐다고 해서 모든 교통 법규를 다 지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규칙을 다 알 수도 없다.

천국 가는 자격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안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다 알 수도 없다. 법을 다 외우는 법관도 없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야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율법의 속성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이다. 모두 다 지킬 수 없음을,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 조항의) 율법을 다 안 지켜도 죽이지 않으셨다.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옛사람을 입고 있는 동안은 끝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매번 자격이 박탈됐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대형 사고를 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다.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무른 것이므로 그것을 어떤 존재가 다시 없던 일로 무를 수 있다는 것인가.

구원을 얻는 회개는 repentance(리펜턴스)이다.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

하는 것이라기보다 ‘돌아서는(repent)’ 것이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유턴해서 죄를 등지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회개와 일상의 회개는 다르다. 죄도 지옥 가는 죄와 뉘우치고 자백하면 되는 죄는 다르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요일 5:16)

사망에 이르는 죄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 그것만 아니면 회개하면 된다. 지옥 가는 죄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베푼 놀라운 선물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거부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시겠는가. 그 크신 호의를 거절하는 불신앙 외에는 말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 16:8~9)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매번 돌이켜 신앙을 갖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죄를 고백하고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 13:10)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라.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하시지 않는가. 이젠 매일 다니다 보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발만 씻으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을 세 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도 구원을 잃지 않았다.

3. 노력

청교도들도 그토록 노력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을 찾아 나서기까지 경건한 삶을 추구했지만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처럼 자녀들은 금방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기성세대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그들은 마술하는 어린아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인들이 연루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마녀사냥을 시작해 억울한 부녀자들을 재판에 세워 죽이기까지 했다. 그것이 유명한 세일럼 지역의 '마녀재판 사건'이다(1692).

사람은 너무나 부족해서 잘해 보려는 노력조차 죄악으로 이어지고, 애쓰고 노력하면 완벽에 가까울 수 있다는 교만이 폭력과 살인을 부를 정도로 자기 힘으로는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글로 권면할 수 있고, 설교로 강력하게 삶의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향점과 이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어떤 작가도 자기가 쓴 좋은 내용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어떤 목회자도 강단에서 한 주옥같은 말들의 완전한 실천자가 아니다. 오죽하면 목회자의 아내

들이 남편에게,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살라고 한다지 않나. 그렇다고 강단에서, 또는 펜을 들고서 ‘나처럼 부족하게 살라’고 권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조셉 얼라인이나 리처드 백스터나 폴 워셔도 마찬가지다. 일주일만 그들과 지내보면 엄청난 결점이 보일 수 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오죽 할까? 심지어 폴 워셔는 일정 기간을 함께 지낸 사람들로 부터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폴 워셔

그러면 세상에 누가 천국에 가겠는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을 그토록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계 21:2) 아름답게 예비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운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했다.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네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 4:3)

그들도 생활 속에서 완벽하지 않은 자들이었을 테고, 미래에 무슨 삶을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저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바울조차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롬 7:22~24)

그런데 그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무슨때 보이는 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25)

그런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이 갑자기 감사를 고백한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면서 왜 감사하는가? 그 답은 이 말들에 앞서 한 말에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롬 7:20)

자, 이 말씀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는 책임 없다고 이해할 성도는 없으리라 믿는다. 사도 바울의 말인즉, 육신이 그렇게 생겨 먹었지만 이미 영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래서 감사한다는 뜻이다. 몸이 그런 거니까 나는 책임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절제하고 그 주인으로서 육신을 억제해 주님께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전 9:27).

4. 평안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거나, 자기 편의 위주로 성경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인간의 처지에서, 창조물로서, 또 자녀로서 전능자의 너그러움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니까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평안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발만 씻는 것으로는 안 되고, 매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청결해야 하고, 작은 먼지라도 나올 때마다 천국 입장 자격이 번복된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낫지 않을까?

그런 식이라면 일찍 믿은 사람일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셈인데, 차라리 실컷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의 원리를 오해하면 이런 난센스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한 번 회개하고 이미 얻은 구원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안타까워하시며 바르게 살 것을 양심에 외치지만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다시 고소한다. 저런 자가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구원받고도 또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자입니다... 등등. 다 맞는 말 같아도 엄청난 속임수다. 사사건건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구원이 아직 멀었다고 겁주는 자들도 어찌면 이와 비슷하다(조셉 얼라인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담하게 죄를 지어라. 너의 죄는 물방울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

이것이 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님을 정상적인 성도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숨을 거두기 전까지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옛사람과 씨름하는 자들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 매일 별별 떨며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선교나 목회나 봉사 등등 좋은 일에도 임해선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놀이의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그 대신 한 방울의 물도 묻혀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한 달란트를 묻어 두고 숨만 쉬고 살았다 하면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할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엄한(hard)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말한다(마 25:24). 자신은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괜히 주인을 오해하고 마음대로 규정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탕자는 자신의 타락과 방탕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했다. 나를 받아 주실 리 없다, 종으로라도 받아 주시면 다행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살진 송아지를 잡기까지 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잔치 후에 아들에게 그간의 행동을 나무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쫓지 않았다. 한 번 아들은 계속 아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야 한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롬 8:15)

5. 덮어쓰기

청교도들의 신앙도 본받아야 한다. 하지만 구원은 싸워서 맨 마지막에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청교도인 존 번연의 『천로역정』도 좋은 책이지만, 구원

이 마치 모든 것을 이겨야 마지막에 얻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만신창이가 돼도 실패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주님을 위해, 또 장차 받을 상을 위해 기꺼이 치르는 사람들이다.

평안 속에서 그 전쟁을 치르려면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원리를 다시 확인하고 새겨야 한다.

- ① 우리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다(사 1:18). 그런 죄들이 흰 도화지 위에 어지럽고 보기 흉하게 찍혀 있다. 붉은 죄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며, 진한 것도 있고 좀 흐린 것도 있다.
- ② 그 위를 예수님의 피가 덮었다. 그러면 우리 죄의 크기와 농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만 보인다.
- ③ 하나님은 마지막 상태를 보신다. 어지러운 자국이 없다고 치면 흰색만 남고, 마치 양털처럼 흰 상태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다.
- ④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를 믿는 자는 무죄이므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안 보기로 하신 것, 그것이 '칭의'의 원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운을 내자. 당신 주변에서 아무리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설교나 책이 있어도 천국과 구원을 의심해선 안 된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삶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서 내가 어떻게 해 볼지 골몰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히 7:25)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도 끝까지(uttermost)… 이 단어는 최대한도, 가장 먼 극한의 마지막 지점까지를 뜻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감추시고(골 3:3) 지키신다.

그러므로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는 내 것이 아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입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 불신자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두렵고 떨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심판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는 공포다. 그것이 ‘믿음’이며, 바로 그것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미 얻은 천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

구원의 영속성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

요즘 믿음으로 거저 받는 구원의 교리가 위태롭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구원관을 제대로 가르치는 소수의 교회 일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구원의 교리들이 개신교 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런 물결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양으로 독을 넘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출석 신자들을 덮치고 있다고 본다. 마치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신앙인 유신진화론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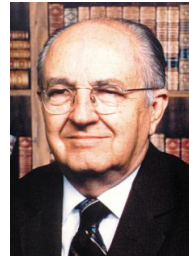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커지면서 구원의 영원성에 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 그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과 확신에 대한 두 신앙인의 말을 소개하고 싶다.

1. 영원한 약속의 영원성

먼저 현대적 창조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헨리 모리스(H. Morris)는 성경에 세상 모든 궁금증의 해답이 있음을 일깨워 준 사람인데, 그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 질문한 독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영원한 선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다.”

영원히 주어지는 선물에 영원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중간에 끊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말이다. 그와 같이 영존하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단절(취소)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다음 중 언제, 어느 시점에 주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 뒤로는 영원히 이어질 테니까.



헨리 모리스 박사

- ① 일생을 다 살고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 ② 구원 후 어느 정도 성화를 이룬 어느 시점부터.
- ③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답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뿐이다. 그 답 이후부터 영원한 생명은 작동되며 육신의 장막이 다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혼은 다시 구원을 잃지 않는다. 최소한 헨리 모리스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고 인정한다면 말이다.

우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 6:23)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롬 5:15~16)

이런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며 ‘칭의’라고 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은 물론 구원이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엡 2:8)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언제 받는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전 15:2)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벧전 1:8~9)

‘믿음의 결말’이 구원이다. ‘인생의 결말’이 구원이 아니다. 물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적당한 믿음이나 교회 출석이나 아닌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는 믿음이며, 순수한 믿음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에 의한 구원, 헛되이 믿지 않는 진지한 믿음을 말한다. 그렇게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며, 다시 평가되지 않는다.

죄인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면 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그가 다시

죄를 짓기까지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의 법과는 달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려진 죄는 단번 속죄의 법칙에 따르며, 옛사람이 짓는 죄는 영원한 생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 계시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 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롬 6:10~11)

정리하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모순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선물은 구원의 시점에 이루어지며, 그 시점은 ①, ②번의 시점이 아닌 ③번, 즉 믿고 칭의를 얻음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 죄인의 회개와 천사들의 기쁨

둘째로는 찰스 스펀전(C. Spurgeon)의 이야기이다. 침례교 목사 스펀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명설교가였으며, 수천 편의 설교를 한 번도 재탕하지 않고 해냈다고 전해진다. 그는 성경의 무오성을 목숨처럼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눅 15:10)

스펀전은 이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쁨

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믿는 즉시 이루어지고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이 왜 있겠는가? 구원이 죽는 순간 결정된다면 그때 가서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역시 구원받는 시점만 알면 해결되는 일이다. 스펀전의 논리가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후 7:10)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구원의 속성이 한 번의 판단이며, 토너먼트 오디션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엡 1:13)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노략당하지도 않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죄인의 회개는 즉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믿을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언제든지 기뻐하실 수 있지만, 천사는 시공을 뛰어넘거나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미래에, 즉 각 사람의 죽음 후를 미리 알고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은 구원이 그 즉시 이루어



봉인(seal). 봉인한 자의 허락 없이 아무도 뜯을 수 없는 원리를 보여 주는 비유의 도구다.

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끝났음을 안 바로 그 순간에 기뻐하는 것이다.

이래도 구원의 영속성을 의심한다면, 그는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방법이 없으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다.

3. 죽음의 법칙과 삶의 법칙은 동일하다

아담의 범죄로 죽음은 인간에게 임했다. 이것은 혼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팔려 간 것을 의미한다. 이 죽음, 즉 둘째 사망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뀔 수가 없다. 그 혼은 죽음을 나중에 결정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혼의 생명에 대해 책임질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마귀의 형벌 장소인 지옥에서의 영원이 예약된다.

죽음이 이렇게 아무 조치 없이는 반복되지 않고 영속성을 지니듯이 삶도 그 물줄기가 바뀌면 똑같이 영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개의 관문을 두고 그것을 통과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더구나 우리가 끝내 통과할 수 없는 관문을 두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의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두 가지 조건으로 이루는 단 하나의 관문이 구원에 필요한 문이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행 20:21)

그 외의 것들은 아무리 중요한 덕목이라 할지라도 모두 구원을 논할 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요소들을 가져와 기초를 흔들려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배교로 가는 넓은 길이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히 6:1~2)

우리의 의로 행하는 죽은 행위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을 보면서도 거의 불가능하거나 먼 길을 돌아서 와야 하는 일이므로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단언컨대, 이런 거짓 교리들은 점점 더 많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며, 많은 구도자들을 거짓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국내 시행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표현은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음은 점점 세탁되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도 희미해져서, 생명의 신앙과 무생명의 종교는 그 격차가 좁혀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봉사과 헌신과 구제와 행위를 각 종교의 더 나은 열매로 계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구원이 그런 행위를 통해 얻는 ‘성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선물’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행위와 조건을 이루어 하나님께 청구해 받아 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조건을 제시하고 받아 내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다. 그 구원에 이른다는 행위의 조건조차 경계가 불투명하며, 성경에 적정한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혼을 구원

의 언저리에만 머물게 하고 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평안히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 혼란스러운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영속성과 안전성을 믿기 바란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라면 불과 20년, 30년 전을 떠올려 보라. 그때 우리가 들은 복음은 최소한 요즘처럼 영망은 아니었다. 구원은 바로 받는 것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았으며, 나름 올바른 목회자들도 지금보다 많았다. 신학교와 성경이 무너지면서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목적이며, 그것은 천국에서의 보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님을 깨달아, 다른 복음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선교보다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빛을 만하면 찾아오는 구원의 의심... 불안을 극복하는 바른 정답은?

그동안 구원 교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책도 썼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것 같다. 또한 크리스천의 가장 큰 관심과 두려움이 역시 구원 문제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고 또 설명하게 된다.

“확신으로 평안하다가도 또 두렵고 의심이 됩니다.”

“평소에는 믿어지는데 구원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확신이 희미해집니다.”

두려운 이유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보고 오해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크리스천도 부족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하나님은 무섭고 공의로운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분의 진노는 그 어떤 것보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이걸 누가 알려 주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서 아무리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

감, 변화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때론 구원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사람인 것만 같다.

이 글이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길 바라지만 불안한 분들이 잠시 위안을 얻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헛된 평안과 구원에 대한 착각을 주는 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글들을 보고 구원을 점점했거나 안심했다는 분들에게도 꼭 이야기한다. 우리가 편하자고 성경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아무리 곱씹고 살펴보아도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신다.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천국 앞에서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재수 좋으면 천국, 재수 없으면 지옥에 가는 수준의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끝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 행위에 의해 그것이 결정된다면 말이다.

구원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엄격하고 공정하며, 하나님을 좀 더 존중하는 사람들로 여긴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좋은 태도이며 죄를 좀 더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면이 있다. 하지만 어떤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

구원은 일종의 불공정 조약 인간에게 말도 안 되게 유리한 약속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좁은 생각에 머물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실수를 많이 한다. 이 세계의 절반은 ‘나’라고, 내가 인지할 때 어떤 문제든 엄청나게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갑자기 어떤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질서가 바뀌는 느낌이고, 기준도 바뀌면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기도 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귀한 창조물이면서도 작고 천

한 존재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주가 뒤흔 바뀌지 않는다.

구원 문제는 어떨까? 내 생각은 이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내 판단, 내 불안, 내 결정이 이 거대한 인류의 구원 사역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 들어올지 말지를 모든 인간에게 물으실 뿐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락가락하지 않는 법칙이 있으며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 약속이 있다. 그 법칙과 약속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래야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대 유대인들은 서로 어떤 약조를 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 놓고 서로 그위를 지나갔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것처럼 쪼개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는 3년 된 짐승들을 둘로 나누어 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신다(창 15:17). 아브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창 15:6)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근거로 축복하신 것이며, 행위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다. 아브람이 믿었지만 믿음 또한 때때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받아 내지 않으셨다. 심지어 아브람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불리기도 전인 때였고, 알다시피 그는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했다.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맹세하신다(창 22:16~18). 하나님의 언약은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가 될 아이 침례자 요한의 탄생 때 그 원리가 다시 소개된다.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행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눅 1:71~73)

하나님은 맹세를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한다(약 5:12).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간에 맺은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 약속이며, 사람은 그 조건을 수용할지 말지만 결정한다.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히 7:21)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맹세받은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이다.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실로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분의 공의는 인류가 죽게 되었어도 함부로 바뀌지 않았다. 그 상황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피가 필요했을 만큼 불변이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다시 죽음으로, 말 그대로 매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만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가벼운 경륜이 아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네가 믿기로 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시점은 지금 당장이다. 죽어서가 아니다.

이에 인간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고백을 한다. 물론 믿음의 서약을 하지만 안 지켜진다고 약조가 파기되거나 쪼개지거나 형벌이 주어지

는 약속이 아니다.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고 하나님도 받지 않으셨다. 물론 계속 멋대로 살면 혼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이며 형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징계가 사생아가 아닌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히 12:8).

예수님은 구속자(redeemer) 그분의 핏값이 그리 가벼운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 예화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가게에서 과자를 훔친 아이가 주인에게 들켰다. 주인은 화가 나서 아이 아빠를 찾아가 따졌다. 아이는 경찰서와 감방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빠한테 야단맞을 생각에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 아이 아빠는 과자값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돈을 가게 주인에게 물어 주었다. 게다가 아이가 혹시 또 그런 실수를 해도 자기가 다 처리해 줄 테니 경찰에게 보내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런데 아이는 이후에도 그 가게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주인 아버지만 보면 슬금슬금 피해 다니면서 무서워하고, 아빠 눈치도 보면서 야단맞을까 전전긍긍한다.

아이는 두려워했지만 아빠는 도리어 안아 주었다. 아이는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 아빠는 돈을 다 물어 주었으니 당당하게 다니되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큰돈을 내준 것이나 앞으로의 일에 대해 가게 주인과 합의한 것을 의심했다. 그럴 리가 없어. 말이 안 돼. 내가 또 그러면 분명히 경찰에게 잡혀가고 감방에 갈 거야.

하지만 이제 아이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가게의 모든 물건을 다시 훔쳐가도 주인은 할 말이 없다. 이미 그보다 큰 보상을 받았고, 아이 아빠가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말이다.

물어 준다는 것은 구속(救贖, redemption)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속자(redeemer)이시다. 핏값으로 우리를 되사온, 물려 주신 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핏값이 얼마나 가볍기에 또 두려워하면서, 내 죄는 너무 커서 예수님의 피 정도로는 다 갚지 못할 것이고, 결국 나는 내 허물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아이의 어리석은 눈이 아닌 아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생각하듯이 인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잘못 할 때마다 호적을 찢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렇다고 천륜이 끊어지는가? 하늘 아버지가 맹세한 약속이 호적이나 천륜만도 못한 것인가?

자기 자식의 죄가 아무리 큰들 누가 감방에 보내고 싶을까. 용서받지 못할 흉악범이라면 징역형이나 사형에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식이 뜨거운 지옥 불에서 영원무궁토록 고통받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아이가 또 실수할 수 있지만 자신이 다 해결할 테니 경찰에게 신고는 하지 말라고 한 아빠의 마음이 바로 이런 원리다. 아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도 아빠는 아이가 또 실수할 수 있음도 알고 있었다.

마귀는 고소자(accuser)

그리스도는 중보자(intercessor)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성도를 고소하는 일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계 12:10)

사탄은 믿음의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까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어떤 일로도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롬 8:32~34)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없이 고소하는 마귀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 죄를 지은 성도의 불안은 피고인이 검사의 추궁에 벌벌 떨며 얼어 버린 그 상태라 할 수 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반박 불가의 명변호인이 계신다.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그토록 큰 범법을 저지르고도 대형 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믿고 얼마나 당당한가. 그들처럼 뻔뻔해선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겐 더 크고 놀라운 변호자가 계심을 알아야 한다. 성도는 주님의 중보가 헛되지 않도록, 자유를 얻되 겸허하고 낮은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공로로 얻은 구원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

두려움은 잘못이 아니다. 죄를 지은 아이가 불안하듯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무자격자라고 공격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 단계에서부터 아무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간혹 구원의 확신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이단에서나 가르칠 수 있는 세뇌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내 죄로 인한 불안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의심은 다른 것이다.

불안이 찾아오지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다. 고난당한 욥은 낙심과 예배의 회복을 번갈아 경험했다. 늘 기죽어 사는 사람이나 늘 뻔뻔한(?) 사람 모두 비정상이다.

성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크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빌 2:12)

삶에서도 그런 엄중함을 지녀야 한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벧전 3:2)

하지만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없다. 그것은 속박의 영이지, 구원의 영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롬 8:15)


의심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때로 우리는 엄격하신 아버지 앞에서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면 마음이 뿌듯하다. 그런데 그런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아버지가 주신 넉넉한 구원을 믿고 신뢰하며 안심하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교회’는 성도이며 주님의 지체로서 왕의 가족이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royal priesthood)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9)

이조차 개역성경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하는 피해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이며, 마귀의 모함에 팔랑거리는 얇은 귀에 불과하다.

잇을 만하면 찾아오는 구원의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는 바른 정답은 내 심리 상태가 아닌,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행함은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자발적인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심은 설령 바른 행실에 도움이 된다 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아닌 것이다. 공포를 주는 가르침은 마귀의 고소이며 아무리 옳은 행실을 외쳐도 결국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불안과 공포는 중보자 예수님이 늘 우리 편임을 기억할 때 힘없이 물러갈 것이다. 

행위구원, 변질된 복음의 현주소

예전에 거래처에서 의뢰받은 책의 집필을 위해 강원도에서 정보 수집 목적의 취재를 하다가 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날 만난 목사님 때문이었다. 그분은 자기 분야에서 특유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만남의 목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은 내가 인사차 『구원열차 구원방주』 책을 건넸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교회는 큰 교단 소속이라 일반적으로 의심을 받을 곳은 전혀 아니었는데, 내가 놀란 이유는 성경과 전혀 다른 구원관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글은 그분이 보아도 상관없다. 이미 그 자리에서 대강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말이다. 일단 그 목사님은 성경이나 신학 서적 등은 거의 안 읽는 것 같았다. 본인도 자신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서나 공부는 하지도 않고,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분은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간증을 하기도 했던 분이라 신앙관에 대해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 책을 휘리릭 넘겨 보더니 (저자의 면전에서) 대놓고 답답해했다.

“이러니 안 되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죽어라 고생하면 뭐해. 난 그

래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보면 다 집에 보내. 우린 성가대도 없어요. 얼른 가서 쉬라고.”

그때 취재 중 동네 친구분이 와 있었는데, 인터뷰가 끝나면 낚시를 간다고 했던가, 몇 친구와 모여서 밥이나 먹자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신앙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아무튼 내게는 문화 충격이었다.

전혀 다른 것을 서로 말하고 끝난 그날 인터뷰 뒤의 여담을 통해 변질된 복음과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그분의 구원 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주장 1. 구원은 내세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 이 땅이 지상 낙원처럼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뜻이다.

주장 2.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구원이다.

예수님도 너희가 남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한다고 했듯이,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면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용서의 개념이 나온다고 한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주장 3.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구원이란 비논리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것이냐? 죄와 희생물, 속죄양, 죄 사함 등의 개념은 편협한 것이므로 이런 것은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

대략 이런 것인데, 종교 다원주의 색채에 진보 신학적 요소가 느껴진다. 어떻게 국내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단의 교회를 이 정도의 자유분방한 목회자가 맡고, 교단 요직까지 차지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놓고 말하는 목회자를 직접 만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솔직함이 고맙기까지 했다. 겉으로는 전통적 교리를 말하면서 자유분방함을 뒤로 감추면 오히려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분이 방송에서 간증할 때, 진행자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냥 얼떨결에 목사가 된 계기만 이야기하고 넘어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마 속으로는 한심한 질문이라고 여겼겠지.

그런 자유분방함 속에서 기존 구원 교리도 워낙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니 이런 유의 공방을 오죽 많이 벌였을까 싶었다. 그래도 무척 많은 연세에도 권위로 상대를 누르려는 모습은 없어서 간단하게나마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핵심은 “그런 구원은 최소한 성경에는 없는 생각입니다.”라는 것이었다. 위의 주장은 왜 잘못되었는가?

주장 1에 대한 반론. 구원은 현세에 국한된 것인가?

그분도 내세가 없다고 꼭 주장하기보다는, 그 이후는 알 수 없으니 다음 세상에 소망을 두기 전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행복의 길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내세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명백한 장소**이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분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

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히 11:16)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계 21:2)

이처럼 하나의 ‘도시’가 있다고 했다. ‘도시’를 ‘성’으로 번역하면 왕이나 공주가 사는 성(castle)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구약에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예전에는 돌담으로 성벽이 지어진 일종의 성인 줄 알았다. 이것도 ‘도피 도시’이다. 한 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너희는 여섯 도시를 도피처로 삼되 (민 35:13)

천국도 지옥도 상징이 아닌 실제이며 특정한 ‘장소’이다. 좋거나 나쁜 ‘상태’가 아니다.

한편 내세의 소망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일생 동안 무언가 이룩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허무한 노력이다.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의 지상 낙원은 이루어진 적도 없고 오히려 세상은 더 나빠졌다. 점점 쇠퇴해 결국 썩어갈 육신을 지닌 자들의 노력은 굽어 부스럼만 일으키지 않았던가. 세상 만물이 신음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이 세상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뿐 아니라 자연법칙에도 위배된다. 모든 자연은 그 기능과 형태가 파괴되고 쇠퇴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등에서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이 되어야 하지만 그 왕국조차 이 세상에 단순히 평화가 찾아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천년 왕국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전혀 다른 환경과 개념의 나라이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 해도 이 땅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상향이 건설된다는 것은 속임수다. 인류가 헛꿈을 꾸며 이대로 살다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들

의 말이 기독교로 침투된 것이다. 성경을 모호하게 풀어 천년 왕국이나 종말은 없으며, 온 인류가 복음화되는 때를 막연한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는 신학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 한국 교인들이 잘 아는 노래의 가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가 실현되는 곳은 천년 왕국이지, 열심히 전도해서 만드는 현 세상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물론 이 땅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애쓰고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이 땅에 최종 목표를 둔 그런 종류가 아니다.

주장 2에 대한 반론. 용서와 사랑이 구원이다?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의 실천이라고 한다. 특히 남을 용서하면 우리도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개념이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 개역)

그런데 이 부분의 ‘용서’는 무엇에 대한 용서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시며 (마 6:12, 흠정역)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죄(sin)가 아니라 debt, 즉 빚이나 채무 같은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의 ‘죄’를 용서해 없애 줄 수 없으니 이 개역성경 번역은 아주 잘못되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마 6:14)

For if ye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여기도 trespasses, 즉 범법이나 잘못을 뜻하는 것이다. 재미있게 개역성경도 여기서는 제대로 ‘잘못’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4, 개역)

그런데 왜 12절의 주기도문 부분은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후로도 안 고쳐진다. 너무 유명한 구절은 죽어도 안 고친다. 그간 틀린 번역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배짱이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말씀은 오역하고도 두렵지 않은가? 안하무인(眼下無人)이란 내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오만한 자세를 말하는데, 개역성경 번역자들의 태도는 안하무신(眼下無神?)이라고 할까...,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자세다.

용서든 사랑이든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에는 우리 모두가 주눅이 든다.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행위도 단 한 번의 믿음만 못하다. 조건을 충족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은 사랑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크리스천에게 가르치는 강조점은 무척 다양하다. 이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교리로 삼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랑은 ‘조건’이나 ‘방편’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덕목’이며 아름다운 ‘행위’이다. 사랑이 아무리 커도 다른 이의 목

숨이나 자기 목숨을 살릴 수가 없다.

천국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심장이 멎어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인공 호흡을 하든지 병원에 데려가야지, 큰 사랑으로 바라만 보면 그는 죽게 된다. 또한 죽어 가는 자를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 데려가 정성껏 먹이고 사랑으로 돌봐도 살릴 수가 없다. 그를 살리는 조건을 충족시킬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조건은 ‘믿음’이지 사랑이 아니다.

주장 3에 대한 반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구원이 비논리인가?

성경은 죄를 용서받고 혼이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예수님의 흠 없는 ‘피’를 제시한다. 다른 방법도 다 될 것 같았으면 뭇 하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생을 하셨으며, 온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21)

살려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알아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왜 기독교와 교회에 머무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 사람들을 말할 때는 또 현세가 아닌 내세를 이야기한다. 그들이 어디로 갔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교리를 정하면 그들이 다 구원받고 운명이 바뀌는가? 그냥 우리 속 편하자는 것 아닌가? 그들이 다 지옥 갔을 리 없다는 이야기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피 없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까?

믿음은 내 희망 사항이 아니다. 내가 싫어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법칙

을 제시한 쪽의 요구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하는데, 칼자루를 쥐 창조주 하나님의 조건 따위는 관심 없고 듣기 좋은 철학을 더 선호한다. 그렇게 하면 개독 소리도 안 듣고, 깨어 있고 말이 통하는 지적인 크리스천이 되어, 근본주의 그리스도인 무리를 제외한 모두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들의 기본값도 우리와 다름없이 죄인이며,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천국(낙원)에 갈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롬 5:12)

사망이 아담 이후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그 모든 사람에는 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등등이 다 포함된다.

그런데 만일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구원해 주거나 양심에 따라 적당히 천국행이라면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받은 것 아닌가?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저주의 시대다.

과거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지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죄악에 빠져 노아의 홍수 때 죽었으며,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져 온 세상으로 나가 살았다. 이후 태어난 억울한 자손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만물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 1:20)

다만 지옥 형벌의 크기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주께서 위로부터 네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네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 19:11)

떠밀려 예수님을 죽이는 빌라도와 계획적으로 판 가룟 유다는 죄의 정도가 다르고 형벌도 다르다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한 신실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역시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뿔뿔이 흩어진 이방 민족들의 구원은 계획에 없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나 완악한 유대인들의 거부로 복음이 예수님 승천 이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 시대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계획도 다 무시하고 사랑과 용서와 양심으로 불신자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추리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 역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거기서 말씀하는 구원의 요건을 행한 사람들과,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구원관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후자에 속한 사람들의 교리는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고, 좀 착하고 나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빨리 나와야 한다.

성경과 교리를 뒤섞으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마귀가 바빌론 혼합주의를 퍼뜨리고 성경도 말씀도 계시도 모두 퓨전이나 믹스, 크로스오버해야 제맛인 것처럼 뒤섞어 버리지만 섞을 걸 섞어야지, 아무거나 섞으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 번 도정한 쌀을 찾는다. 참 영양소는 쌀눈에 있는데 다 깎아 버린 달달한 쌀밥을 맛있다고 먹는다. 쓴 약을 당의정으로 쉽게 먹듯이, 듣기 좋게 포장한 악한 개념을 교리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외치는 것도 외롭고, 점점 바보가 되는 기분이다. 나중에는 얼마나 되는 무리가 이런 참 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처럼 바보가 되는 느낌이 정당임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들 모두가 듣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우리의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확증해 주고 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고전 1:18~21)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들은 변질된 구원 교리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복음은 이 땅에서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담긴 뜻

장로도 못 가는 천국?

가끔 다른 교회들의 설교 영상을 볼 때가 있다. 좋은 내용도 있지만 엉뚱한 이야기도 참 많은데, 가장 속이 터질 때는 구원의 교리를 왜곡할 때다. 한 교회는 방송에도 나갈 정도로 큰 곳인데, 삶의 실천과 영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반성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직분이 천국에 보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 됐다고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장로님들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가만있어 봐… 그럼 장로님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긴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장로 직분을 주나? 아니, 침례(세례)를 받은 사람이 집사도 장로도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을 안 받고 어떻게 침례를 받았을까? 그것도 아니면, 침례받고 직분받을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천국에 못 간다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직분자들 모두가 부족함이 있다면서 왜 장로들 중에는 천국 못 갈 사람도 있다는 걸까?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나 전도사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신앙이 어려도 천국에 갈 정도는 된다는 건가?

오늘날보다 순수한 영성의 시절을 살았던 리처드 백스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기 전에 목회자가 된다고 한탄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 혼돈의 시대에 장로 이하만 거론하는 것일까. 요즘은 신학교에서 더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말이다.

하긴 구원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믿는다 하면 침례든 세례든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직분이나 어떤 의례가 곧 구원이라 할 수 없는 것도 맞는다. 그러니 차라리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해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질책하면 모르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특별 창조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말하며, 구원의 영속성도 믿지 않으면서 천국을 말하니까 말이다.

내가 의아한 것은, 분명히 그 목사는 평소에 때때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믿는 즉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도 했고, 구원은 일회적이라면서 자신의 구원 간증도 매우 자주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되니 정신 차리라는 것일까?

물론 설교자가 그때그때 문제를 느끼면 무언가 강조할 수 있지만, 삶의 태

도를 말한다 해도 성도의 구원 여부까지 단정하며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아마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심대한 경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야 두려움 속에서 각성하고 삶을 고치리라고 여기는 것이리라.

하지만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복음은 진리이며, 진리는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 자유는 세상과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다고 노래하면서도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반복’이라는 올무로 성도들을 묶어 놓는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할까….

자유를 얻은 자가 그 소중한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경고하고 고치도록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유는 불완전한 자유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성도가 고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자기가 감당하고 징계 받으며, 주님 앞에 회개 보고할 일이다. 제대로 처방했으면 오용과 남용으로 부작용이 생겨도 처방자의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이다. 구원 자체를 반복하면 처방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된다.

이따금씩 어떤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구원 교리가 애매해질 때가 있을 수 있다. 교리 안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현상이다. 그런 때 설교자는 반드시 이 개념이 구원에 소용되는 것인지 성도의 삶의 지침에 해당되는 것인지 짚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 예를 들어 구원 교리를 전하는 시간에 야고보서를 활용하면 점점 꼬일 수밖에 없다. 구원 문제의 복잡한 교리 논쟁과 차이점을 잘 아는 회중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위험하다.

아니나 다를까, 장로들에게 엄포를 놓은 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하니 장내가 고요하다. 이어지는 말씀에 ‘아멘’ 소리가 크다.

그 소리에 설교자는 고무될 것이다. 오늘 설교, 반응이 좋네….

하기야 장로들을 들었다 났으니 그 밑으로는 볼 것도 없다는 뜻 아닌가? 기죽을 만하다. 권사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새 가족이나 보통 교인들은 한참 더 도를 닦아야(?) 한다는 건가?? 안타깝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장면이다.

안전장치 없는 복음은 재앙

복음은 가장 값진 지식이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장치가 없으면 가장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도 약속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보석금을 내주었기 때문에 판사가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하고, 결과를 피고인에게 통보하라고 했다. 그런데 통보의 의무가 있는 구치소 직원이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았다. 궁금한 피고인이 주변에 묻자 어떤 사람은 무죄가 나왔으니 곧 석방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 봐야 안다고 한다.

석방 결정이 난 피고인의 상태가 바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이다. 몸은 아직 구치소에 있지만 그깟 며칠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실형을 받았다면 가족들도 못 보고 감방에 수감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나중에 죽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지, 그때 결정 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죽음이 임했을 때와 똑같은 원리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지, “그 즉시 죽으리라” 하신 게 아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되고 즉시 영적 죽음이 임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수명이 다한 뒤였다.

이와 비슷하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영은 즉시 살아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 생명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

셨다(골 3:3). 그러나 역시 그것을 확인하는 날은 수명이 다한 뒤일 것이다.

피고인을 석방하게 됐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잘못 번역된 성경이 한 일과도 같다. 피고인이 물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준 사람들은 목사나 교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

아담과 이브는 죽음이 임했음을 알고 절망했다. 당장 목숨이 붙어 있지만 언제 죽어서 마귀의 처소로 끌려갈지 몰라 두려웠을 거다. 그러다가 메시아를 보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한 것이다. 당장은 동산 밖에서의 삶을 이어가야 하지만 언제 죽든지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기뻐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을 테니까. 이브가 가인을 낳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한 것은 메시아 약속의 실현인 여자의 씨를 그때 주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창 4:1; 3:15).

그들에게 영적 죽음이 즉시 임했지만 몸이 살아 있다고 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즉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영적 생명도 **즉시 임하는 것이고**, 몸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도 이미 끝난 일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고전 15:45)

살려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사람을 살려 주시는가?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믿기로 할 때인가, 아니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해도 지켜만 보다가 몸이 죽어 삶을 점수 매긴 다음인가? 그 점수는 도대체 커트라인이 몇 점인가? 단 한 명이라도 삶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있거나 할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요 5:24)

이 말씀을 가장 짧게 줄이면, “믿는 자는 옮겨졌느니라.”이다(과거형). “믿
고 죽는 자는 옮겨질 것이니라.”가 아니다.

아담과 이브가 두려워서 즉시 숨었듯이 생명을 얻은 우리도 피부에 느껴지
지 않아도 무엇이 진실인지 안다면 크게 기뻐할 일이다. 언제 이루어지든 그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
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요
6:51)

예수님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셨다. 만일 구원 취소론에 따
라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 빵을 먹으면 수명이 다한 때로부터 영원히 살리라.
하지만 이 빵을 먹었는데도 잘못 살면 영원히 살 수 없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다시 이 빵을 먹어야 하며,
그러면 수명이 다한 때로부터 영원히 살리라.
하지만 이 빵을 다시 먹었는데도 또 잘못 살면…….

이게 뭣 하는 건가. 그냥 영원한 삶은 수명이 다해 죽을 때 받는 것이라고
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이 진짜 뜻을 감추고 말장난이라도 하셨다는 것인가?
부디 영원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지 말라.

믿는데도 지옥 가는 성도는 없다

구원을 미리 알면 방종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등이 구원에 대해 철저히 가르쳐 놓고도 실수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성도가 주의할 일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방종할 수 없다. 자기가 믿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구원받은 것으로 오인한 것이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과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은 다르다. 확신한 사람도 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구원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천주교식 각종 성례다. 학습에 의해 답변을 가르쳐서 받는 세례나,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기억도 나지 않는 시기에 받는 유아 세례 등이다.

아직 구원을 안 받은 목사나 장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믿고 있는데 천국 못 갈 ‘성도’는 없다.

그 설교자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으니 제대로 살자고 했다면 또 모르겠다. 그의 말에는 “나는 가는데 여러분이 걱정이다.”라는 숨은 뜻이 있었다. 그런 논리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닌가….

구원 교리의 희미함도 문제지만 이런 일관성 없는 논리도 큰 문제다. 늘 한 가지 논리만 말하면 그 사람의 신학을 알고 가까이하든 멀리하든 할 텐데 대체 뭐란 말인가? 종교 다원주의도 유신진화론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은 이 말, 다른 날은 저 말을 하니 신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각자 듣고 싶은 말을 듣고는 “분명히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다” 하면서, 왜 멀쩡한 우리 목사님을 종교 다원주의자, 유신진화론자로 취급하느냐 하고 따진다.

목사의 기분에 따라 구원의 시기가 바뀌고, 교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 교회는 교인만 늘고 성도는 줄어드는 ‘오며가며 교회’가 되고 만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관이 흐트러지기 전에는 이 말을 오해하는 성도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까?”라고 듣는다. 이런 사람들은 내일 물으면 답이 또 달라질 거다. 그럴 바에는 확신이 있는 날 죽는 게 복이 아닐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라는 말의 뜻은 그게 아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현재 확신하고 있느냐는 뜻이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굳게 의지하면서 붙드느냐는 뜻이다.

이것을 교회만 다니면 다 끝인 ‘쉬운 구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구원이 무언가 엄청난 행위가 아닌 바르게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뜻은 아니다.

구원받을 자는 적다. 다만 그 길이 좁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렵게 종교 행위와 업적과 자기 의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이 적으므로, 결과적으로 좁은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쉽다. 전신 마비가 된 사람도 믿어 구원받고,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더 어려워야 되겠는가? 사형을 당할 정도로 중죄인인 십자가 위의 강도는 세상 죄값도 다 치르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달린 채로 즉시 구원받았는데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3)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답을 할 때 나를 살리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다면 감히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 1:13~14)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무엇이 겸손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잘못이고, 교만이겠는가?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던데?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골머리를 앓았다는 야고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일명 ‘지푸라기 서신’으로 불리는 야고보서를 보면 마치 구원이 행위로 되는 듯한 착각이 생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어떻게 저저 천국에 가겠는가?

하지만 야고보서는 구원 교리가 아니라 삶의 지침이다. 믿음이 있으면 작더라도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이치, 믿음의 속성을 알려 주는 것이다. 늘 그런 행함이 있지 않으면 낙오한다는 뜻이 아니다. 한두 구절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큰 줄기를 바꾸면 안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부동의 진리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한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 하나를 가지고 구원 교리 전체를 뒤흔들려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도 은근히 두려움을 느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것은 ‘수분이 없는 물’처럼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믿음이 없이 행위를 보일 수 없고, 행함 없이 믿음을 내보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행위를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계속 보여야 할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실제로 순종하는 행동, 행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그가 그 뒤로 죄를 안 지었을까? 많이 지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본받자는 게 아니다. 믿음을 행위로 드러냈는데, 부족함을 보이고 죄를 지었다고 이전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


러므로 최소 한 번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단 한 번만 일 수는 없겠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말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후로 또 죄를 지을지언정 행위를 한 번 이상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행위를 한 번 이상 보여야만 구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다.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임종 직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옆의 강도도 선행을 할 기회가 없었지만 함께 달린 자를 꾸짖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신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이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어찌나” 하는 걱정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만 생각하면 된다. 그와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그런 해석 때문에 구원의 취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여러 특징을 다룰 때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핵심 교리 등을 다 뒤바꾸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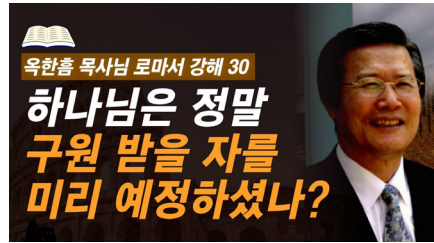
이미 확신한 명백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타 교리나 특별한 구절들을 해석하는 습관을 들일 때 바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평안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옥한흠 목사의 비성경적 예정론

어떤 분이 고 옥한흠 목사의 예정론 설교가 이상한데 한번 보라면서 링크를 보내와서 들어 보게 되었다. 들어 보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비이성적 논리로 구원 예정론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예정된 사람은 예정됐고,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선택을 못 받은 거다,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이니 토를 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었다.

많은 이들의 댓글도 황당했다. 나는 예정돼서 감사하다, 아멘이다, 역시 옥한흠 목사님이다, 이런 식의 글들이었다. 이따금씩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옥 목사의 팬들이었다.

물론 옥한흠 목사가 비교적 훌륭한 분인 것은 맞는다. 현대의 한국 교회 역사를 말할 때 그래도 인품으로나 신학으로나 손꼽히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 옥한흠 목사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이다. 사랑의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은 물론 진정성 있고 바른 설교로도 평가받는 분이다. 또한 제자훈련 프



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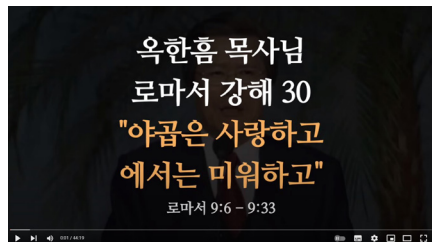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그에게 진정한 통찰력과 안목이 있었다면 본인도 후회할 정도의 후임을 임명했겠는가. 또한 그가 정말 성경을 잘 알았다면, 바른 양심이 있었다면 개역한글성경의 슬한 오역에 대해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삶의 마지막에 새로 나오는 개역개정판의 광고까지 했다. 성경의 번역과 교정이 잘됐는지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은 사용해 봐야 아는 것인데 말이다. 옥한흠 목사는 저작권이 만료되는 개역한글 이후에도 개역개정을 온 교회가 계속 사용하도록 광고를 했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여담이지만 사실 개역성경을 대치할 킹제임스 성경 번역 이슈는 유명 목사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각종 기득권과 알력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의 유명 목회자도 살아생전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 이슈에 가담하려고 했었지만 자기 교회 당회와 주변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포기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1. 하나님의 전권과 사람에 대한 예정하심

문제의 로마서 강해 30강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라는 제목이다. 이 동영상의 썸네일은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나?”라고 되어 있고, 안내 글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예정 선택 교리, 로마서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9:6-9:33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님 명설교>라고 되어 있다(모두가 보는 동영상에 까지 굳이 매번 ‘님’ 자 붙이는 것도 비정상임).



이 동영상의 도입부 한 대목을 옮겨 본다.

(로마서) 9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물으면 아무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서 그랬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의 요지입니다.

옥한흠 목사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기분이 좋지 않으며,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갈라놓기 좋은 말씀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까를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야곱은 택하고(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는(미워했다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곱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에서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한 일부만 구원받았다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특정인만 사랑한 근거는 11절에서 보듯이 택하심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유다. 쉽게 말해서 아무 이유 없고 하나님이 좋아서, 에서와 야곱이 태증에서 무슨 선과 악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선택의 이유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었다.

그 자식들[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1, 개역)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4절에서처럼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므로 불평할 수 없다. 무슨 잔소리가 많냐,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그랬다,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데 누가 이유를 다느냐, 인격이 있지만 돌멩이와 똑같은 피조물이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한다. 또한 17절에서 바로(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아무런 항변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롬 9:18~21, 개역)

이 18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불만이 있어도 입조심해라. 너는 네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진흙을 빚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생각해 봐. 토기장이가 왕의 밥그릇을 만들든지 요강단지를 만들든지 그의 마음인데 요강단지가 대들 수 있느냐? 대들지 못한다.

창조자에게는 자유와 주권이 있다. 네가 건방지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입 다물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략 이런 내용이 강해의 핵심이다. 그런데 옥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 따지고 드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식의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란 행위나 어떤 것의 산물이 아니며, 에서와 야곱처럼 아무 은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은혜를 알고 배은망덕하지 않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2.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착시 현상

일단 이 강해의 총체적인 문제는 ‘논리의 모순’에 있다. 서로 안 맞는 말을 하려니 말이 안 돼서 그냥 닥치고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 뜻대로 하실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누구든지 믿으라고 여러 번 요청하신 것일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을 왜 이토록 복잡하게 하셨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그 깊이가 다르며 차원이 다르다. 그중 한 부분이 하나님의 전권인데, 하나님은 권리가 있다고 무작정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면서도 의로운 자의 수를 계속 낮추는 아브라함에게 맞춰 열 명까지 양보하시기도 했다(창 18:32). 아브라함과 롯을 살리신 이유도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이지, 아무 이유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 의인으로 판정받은 이유는 예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창 15:6). 노아와 가족들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며(창 6:9) 그토록 적은 수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이 죽을 때,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바른 자들만 살았다(출 12:23).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 결정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알려 주신 것이지 그들이 살기로 예정되었거나 미리 택함을 받아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의지적 믿음을 보신 것이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는데도 성경에 아주 희박하게 나오는 예를 가지고 인류 전체의 목숨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 전혀 비성경적인데 유명한 종교 개혁자의 주장이고 유명한 목사의 말이니까 우리도 무비판적으로 들어야 하나?

‘오직 믿음’의 교리는 어떤 논리나 어떤 해석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진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무런 보완 장치 없는 예정론이다.

하나님의 전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어찌면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예정된 것도 맞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끝까지를 성경에 기록하셨지만 그 각각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는 기록하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온 30개로 팔릴 것을 기록했지만 그가 누구라고는 안 했다.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다.

인간 입장에서는 자유 의지로 만들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실 뿐이다.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은 즐기치게 믿으라고 권하실 필요가 없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실 필요도 없으며, 성경을 주실 필요도 없다. 우리는 성도 각자가 왕가의 제사장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리를 결정해 줄 존재는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불의한 일을 하시지 않으며 사랑이 많으므로 이유 없이 미워하시지 않는다. 마음대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다는 이야기는 옥 목사가 부연한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

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겔 18:23; 33:11).

토기장이는 질서와 법칙 안에서 목적이 있는 그릇들을 만들지 쓰레기나 마약이나 독극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자연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베풀시고(사 45:18)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망하셨을 때는 물론 심판도 하셨지만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내 마음이니까 따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온 세상을 유독 가스로 채우고 곡식과 과일을 독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실 때도, 태중에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무작위로 골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리 아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벧전 1:2)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의 권한을 말씀하는 것이지 인격을 지닌 사람을 멋대로 하시는 무질서의 권능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각기 다른 그릇이란 각 사람에게 머무는 경륜과 뜻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권이며 인간 스스로 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라고 한 것이다.

창조물이니 마음대로 한다지만 인간도 자녀들을 멋대로 차별하지 않으며, 까닭 없이 선택한 자식만 사랑하거나 어떤 자식은 버려두거나 하지 않는다. 사람이든 신이든 인격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무언가 선택하는 것은 불법을 포함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며 **타당한 법칙과 당위성 안에서의 자유**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과 정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메시아를 통해 세상 모두에게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

해 놓아서 누구는 믿으려 해도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의 자유는 기만이며 권한 남용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8)

앞에서 옥 목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다 예정해 놨는데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한가? 모순에 모순을 부르는 무리한 해석이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이 로마서 9장 하나만 남겼다면 모를까 성경 전체에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부분만을 가지고 그 큰 논리를 단정 짓는가? 이런 일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정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예정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게 뭐가.

3. 칼빈주의 vs. 알미니안주의

이 동영상은 마치 사람을, 칼빈이든 옥한흠이든 떠받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로도 보인다. 이 칼빈주의(칼뱅주의)의 반쪽짜리 진리는 완전하지 않다 못해 위험한 논리다.

이슬람은 6신 5행으로 불리는 중대한 신앙과 기본 강령들이 있는데 6신 중에 ‘운명(숙명론)’이 있다. 사람은 운명대로 살기 때문에 이슬람교인으로 태어난 자는 절대 개종할 수 없으며, 배신하면 지옥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친다. 이것이 우상 종교에서 사람을 억압하는 방식이다. 이슬람력 8번째 달의 15일은 알라에 의해 그 해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인살라’, 즉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불합리함을

덮는 종교가 이용하는 비논리가 속명론이다.

안 그래도 옥한흠 목사는 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개념이 이해하기 까다로운 논리임을 인정하면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선택 교리는 성경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유식한 무식’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아예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꾸 호기심을 갖고 덤비는 사람은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아주 작은 근거로 이 교리를 만들었음을 시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니... 우리가 거룩하신 주권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속명대로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까지 들었고(창 32:28), 하나님은 사람에게 변론하자며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며 반론도 받아 주시는 분이다(사 1:1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자들이다(갈 4:6).

존 칼빈(장 칼뱅)은 ‘구원 예정설’이라고도 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주장했다. ① (무능력한 인간의) 전적 타락, ② (창세 전에 인간의 구원 여부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 ③ (선택받은 자들만) 제한적 속죄, ④ (택함받은 자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⑤ (타락해도 돌아오는) 성도의 견인(堅忍)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는 결국 구원받는다는 논리다. 이 견해는, 예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씀 등을 근거로 삼지만, 운명론적 요소가 있어서 한때 선교를 위축시키기

도 했다.

이에 반대해 나온 것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자인 야코뷔스 아르미니우스(1560~1609)와 그 제자들인 저항파의 알미니안주의로 ‘만인구원설’이라고도 한다. ① (미리 아심에 의한) 조건적 선택, ②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루신) 보편적 대속, ③ (믿음과 선행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 ④ (구원도 거부할 수 있는) 항력적 은혜, ⑤ (믿는 사람도) 은총으로부터 타락할 가능성, 이 5대 강령이 칼빈주의에 맞서는 알미니안주의다. 믿으면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받는다든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점에서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이 두 교리는 서로 반대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유와 거부할 자유가 모두 가능해야 자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격체이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미리 아실 수밖에 없으므로 선택과 믿음에 의한 구원의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두 논리 모두 필요하면서도 각기 일부의 모순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칼빈주의의 모순에 대립한 알미니안주의 역시 반쪽의 진리다. 상호 대립이면서도 상호 보완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편을 갈라 하는 셈이다.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를 진리라고 가르치고, 감리교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진리라고 가르치는데,



칼빈(1509-1564, 왼쪽)과 아르미니우스(1560-1609)

상반된 논리가 둘 다 진리일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는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교리가 나온다. 하나님은 행위로 사람을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자유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요 1:9).

사실 로마서 9장은 33절까지 잘 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9:33)

왜 나는 예정을 안 하시고 지옥에 빠지게 만들었느냐며 따지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일이고, 믿음을 가지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야곱과 에서 중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가 행위의 문제나 무조건적 예정이 아니라 야곱은 믿었고 에서는 안 믿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바로 이런 행위구원론적 잘못된 판단이고, ‘예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이다.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하는 구절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퍼즐처럼 입체적으로 볼 때 진리가 합리적으로 완성된다. 어떤 장을 강해할 때도 성경 전체를 통해 그 장을 변증하고 귀납적으로 설명해야지, 한 부분만 집중해 보면 풀리지 않는 때가 많다. 강해는 계속 성경을 해당 부분만 훑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공부해도 성경 전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법이다.

옥한흠 목사의 인품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좋은 메시지를 많이 남긴 목회자로도 알려져 있지만 내가 들어 본 것들은 솔직히 편협한 논리들이 많았다. 설령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이라도 성도라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사람을 추앙하면 사람을 통해 걸려 넘어지는 법이다. 성경의 복음을 굿 뉴스가 아니라 공포의 소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할 때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을 것이다. 📖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Part

2

삶에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대 정신과 구원의 영속성

영화 <쇼생크 탈출>과 <벤티>에 담긴 구속(救贖)의 원리

순간접착제의 기억과 소망

‘부끄러운 구원’이 무슨 말인가?

구원 간증과 신앙 이력의 차이

구원은 ‘수동형’이지만 믿음은 ‘능동형’이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의 차이

[크리스천 감별법?]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대 정신과 구원의 영속성

해병대는 가장 유명한 군대다. 이 부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인한 군인들로 보통 육해공군보다 훨씬 힘들고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특수한 전시 상황을 대비해 극한의 훈련을 받기도 하는 그들은 자부심도 대단해서 기수별 위계도 철저하게 지킨다.



예전에 친한 친구가 세 번 떨어지고도 끝까지 매달려 해병이 된 적 있는데, 그 친구의 해부심(?)은 대단했다. 해병 전우를 만나면 큰 소리로 ‘필승’을 외치고, 조폭처럼 깡뚫이 대한다. 우연히 간 식당에 해병대 관련 물건이나 기념패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사장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사장님 해병이십니까?”

“예...”

“필!!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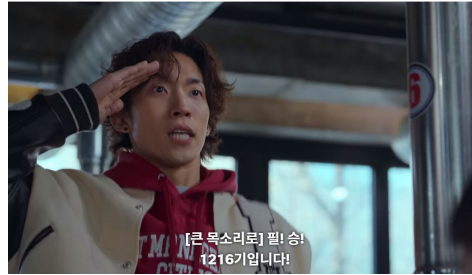
일단 별떡 일어나 경례한 뒤에 기수를 묻고, 연거푸 구십도 인사를 하곤 했다. 이런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한다.

해병대는 제대 후에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협심이 넘쳐서 스스로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 자율 방범대를 조직하는 등 좋은 일도 많이 한다. 그래서 해병대가 만든 초소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친목도 다지만 공익적인 일도 한다고 들었다.

빨간색이 상징인 해병대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구호가 있다. 보통 군부대의 모토는 강력한 느낌의 문구가 주로 쓰이지만 해병은 특이하게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젠 모두가 다 아는 슬로건이 됐다. 이 말은 미군 해병대의 ‘Once a Marine, Always a Marine’이라는 문구를 번역한 것인데, 제대했다고 해서 해병이 아닌 것은 아니니 해병대의 자존심을 지키며 명예롭게 살라는 뜻을 담은 말이다. 이들의 자부심은 또한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구로도 대변되고 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에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약속이 있다. 전역 후 사회로 나간 장병들 입장에서는 해병의 프라이드를 의미할 수 있지만 그를 배출한 부대와 한번 해병이었던 모두의 자세와 약속은 의리를 지키겠다는 뜻이 된다.

해병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바르게 사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약속은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겠다는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의 한 장면. 나이가 형이어도 기수가 낮으면 경례를 붙일 만큼 해병의 유대감과 자부심은 강력하다.

무언의 보장이다.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해병 공동체가 모르겠는가. 다 알지만 여전히 그를 해병의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누우치고 다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으며, 해병으로서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설령 영영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계속 기다리고, 그 사람을 제명시키지 않는다. 혹 서류에서는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해병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구원의 법칙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구원의 영속성과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를 믿는 흠정역 진영에서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교리를 반박할 때, 해병대만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농담 반으로 묻기도 한다. 실제로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어떤 일이든 작동 원리는 대개 그 구조가 같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마 8:9)

백부장이 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셨다. 그는 자기가 부하들이 복종하는 상관이듯이,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심을 알았던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원칙은 해병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확고하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기만 했다면 우리의 신분은 그분의 자녀다. 그 사실을 번복하고 돌이킬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라고 표현한다.^A 그것은 딱 한 번뿐이다.

A. 개역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뜻의 '중생(重生)'이라는 한자어가 있지만 거듭남은 여러 번을 의미하고 중생도 마찬가지로 뜻이므로 '다시 태어남'이 바른 표현이다.

한번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지옥 백성이 됐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지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조금 바르게 살면 다시 천국에 등록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왜 이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고 크리스천이면서도 벌벌 떨며 사는가.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씀도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지, 그때그때 명단을 재작성하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천국은 믿는 순간 확정된다

천국은 즉시 주어지지만 지옥은 평생 동안 주어진 기회를 거부하며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때 확정되는데, 이것을 두고 구원도 죽어 봐야 안다고 혼동해선 안 된다.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은 삶의 성화를 촉구하는 애매한 성경 구절들에 대한 확대이며, 큰 원칙을 외면한 주객전도식의 해석이다.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지, 영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삶과 죽음도 각각 한 번뿐이듯이 영적 사망과 다시 태어남도 다 한 번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무리에 포함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또는 양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신분이 바뀌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실이다. 아버지는 생명의 씨를 준 사람이듯이 하나님은 만물과 생명을 만드시고 베푸신 분이기 때문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미국 해병대의 슬로건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 분명하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가 신분을 바꿀 수 없다. 해병대 출신이 자긍심을 잊고 해병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아도 그는 신분상 해병이다. 물론 이 원리가 구원에도 적용되려면 확실한 구원의 과거가 있어

야만 한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 원리 또한 확실하다. 그러므로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것인가, 아닌가의 논란은 가능하지만, 구원이 취소되는가, 아닌가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논리에 대해 구원 취소론이나 엄중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 가볍게 받고 끝낼 수 있는 것이냐고 도전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원이 엄중하고, 어떤 간단한 요식 행위를 거쳐 받을 수 없는 것은 인정한다.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면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높으신 분을 우리가 아빠(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지녔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Abba), 아버지(Father),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갈 4:6~7)

이렇게 호적에 등록된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며 행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든 친근하게 여기든 그 느낌은 구원 여부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한다면 몰라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부족함은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결국 믿지 않은 것이고, 끝내 믿음을 떠날 것이 확실하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말이다. 그러니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따질 일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육신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다. 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자격시험 같은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방적인 선물로 주시는 커다란 은혜다.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행위로 얻는’ 구원을 말한다면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 

영화 <쇼생크 탈출>과 <벤허>에 담긴 구속의 원리

<쇼생크 탈출>의 '탈출'은 '리DEM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롬 3:23~24)

구출한다, 속량한다, 물러 준다는 의미의 '구속(救贖)'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DEM션(redemption)이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마귀로부터 되사주신, 물러 주신 우리 예수님은 구속자, 즉 리디머(redeemer)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1994)은 아주 완성도 높은 좋은 영화다. 이 영화는 우리가 죽음에서 구출되어 새사람이 되는 구속의 원리를 잘 보여 준다.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 1940년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옥살이 중인 은행가 앤디 듀프레인은 감옥에서 외부 물건 불법 반입을 돕는 동료 장기 복역수 레드에게 부탁해 여배우 포스터와 작은 돌조각 용 망치를 구하는데, 그 망치는 나중에 성경책 안쪽을 파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작았기에 아무도 탈옥을 의심하지 않았다.

앤디는 교도소의 독방에 여배우 리타 헤이워드의 커다란 포스터를 붙여 놓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사치는 묵인해 주는 분위기였다. 그 포스터가 붙은 벽의 안쪽을 망치로 파서 하수관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라서 스티븐 킹의 소설 원작은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Rita Hayworth and Shawshank Redemption)』이다.

탈출하기 전에 그는 먼저 희망을 품었고 자유를 갈구했다. 구원은 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이 반드시 자유 의지를 지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 내미시는 손을 잡아야 한다.

번역한 제목의 ‘탈출’이라는 말은 원래 ‘리dem션’이다. 쇼생크의 구속, 구출이라는 뜻이다. 단순한 탈출은 이스케이프(escape)를 쓰기 때문에,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 섬의 감옥을 탈출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영화 <알카트라즈 탈출>은 Escape from Alcatraz이다.

앤디는 쇼생크 감옥을 탈출하면서 완전한 신분 세탁을 했다. 단순 탈옥과



스티븐 킹의 소설 『리타 헤이워드 앤 쇼생크 리dem션』 초판과 번역본, 그리고 영화 <알카트라즈 탈출>의 포스터

다른 점이 이 부분이다. 그는 처음에 노역을 나갔다가 교도관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끼어들어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모든 교도관들의 세법 관련 멘토가 되면서 교도소 생활이 편해진다. 앤디를 괴롭히는 죄수는 교도관들이 반 죽여놓을 정도로 앤디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쇼생크 교도소에 새로 부임한 노튼 소장까지 앤디를 비서로 두고 본격적으로 탈세를 저지르게 되었다. 교도소장은 뇌물과 불의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던 탐관오리였다. 노튼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 모든 것은 ‘규율과 성경’에 의해 집행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보다 악하고 불법적인 자였다. 그의 성경은 장식품에 불과했기 때문에 앤디는 성경에 망치를 숨긴다. 읽지 않는 성경이 되느니 자유의 길을 열어 주는 도구의 보관함이 되는 편이 낫다.

앤디의 새로운 신분은 법적으로 완벽했다. 앤디는 교도소장이 명령한 불법적 탈세와 횡령을 맡아 회계 관리를 해주면서 철저히 그의 모든 재산을 피터 스티븐스

라는 새로운 신분을 창조해 옮겨 놓았고, 탈출하는 마지막 날, 모든 자료를 비닐 백에 담아 폭우 속에서 하수구를 통해 탈출한다. 그 모든 불법이 드러



나게 된 교도소장은 경찰이 체포하러 왔을 때 권총으로 자살한다.

그리고 탈세와 신분 세탁의 모든 과정을 진행한 앤디는 탈출 후 자신이 그 주인이 된다. 그는 은행에 가서 새로운 신분으로 자신의 모든 예금을 찾아 섬으로 떠난다. 이제 앤디는 스티븐스로 새로 태어난 셈이다. 그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합법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쇼생크 리템션은 완벽하게 성공한다. 옛사람 앤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 스티븐스로 모든 지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수감 생활을 마치지 못한 앤디가 존재하듯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위치상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나 신분상 의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새로운 신분으로 레드와 다시 만나는 엔딩 장면

마귀는 죄인들의 이름에서 우리를 찾아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겠지만 그의 명단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다. 우리의 법적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제로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주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과정이다.

<벤허>의 에피소드와 양자 삼는 원리

영화 <벤허>(Ben Hur, 1959).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를 살던 유대 벤허의 이야기다.

벤허는 유대 땅의 대부호였지만 14살까지 절친이었던 총독의 아들 멧살라

와 독립 투쟁 문제로 부딪히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벤허는 총독이 행진할 때 높은 건물의 기와를 무너뜨린 여동생 때문에 반역죄로 체포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동굴에 갇혀 나병 환자가 되기까지 한다.

벤허는 해군 제독 아리우스의 노예가 되어 배의 노를 젓는 일을 하지만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제독은 자신의 검투사가 될 것을 제안한다. 벤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며 제안을 거부하는데, 아리우스는 부하에게 벤허의 발목 쇠사슬을 풀어놓도록 명령한다.



그 뒤 해적의 습격을 받아 배가 파선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노예들 중 유일하게 발이 자유로웠던 벤허는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바다에 빠진 아리우스 제독을 구하면서 작전에 실패한 그의 자결까지 막게 된다. 그 일을 계기로 아리우스는 벤허를 정식 양자로 삼는다.



사슬을 푸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의해 사람을 선택하고 이끄시는 것과 같다. 그리고 검투사보다 영예로운 아들로 삼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과 원리가 비슷하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신분이 바뀌면서 자격과 상속분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벤허가 여전히 배를 타고 쇠사슬에 묶인 채 노를 젓겠다고 하면 어떨겠는가. 내 권리를 누리는 것은 주재님의 일이 아니라 내게 그 큰 선물을 주신 분이 바라는 일인데 말이다. 염치를 모르고 방종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



당한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당당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신분이 바뀌는 원리와 양자 삼는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추상적이고 두루뭇술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공의 안에서 구체적이고 합법적이며, 완전한 과정을 통해 건져내셨음을 알게 한다.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무엇을 두려워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내 생각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며 그것을 믿을 때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성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자녀의 신분이며, 하나님의 양자로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약 2:5)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골 1:12)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갈 4:7) 📖

순간접착제의 기억과 소망

1

어릴 때는 물건들이 참 귀했다. 가전제품도 큰맘 먹고 한 번씩 살 정도로 일종의 재산이었다.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기는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전화만 파는 가게가 있을 정도였다.

우리 아버지는 요즘 말로 얼리 어답터였다. 형편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집안에 가전제품이 많았다. 서너 살 때쯤엔 마루에 TV를 바깥쪽으로 놓고 온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서 함께 본 기억도 어렴풋이 난다.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많지 않을 때였다. 조금 더 지나자 꽤 큰 전축도 있었다. 가끔 트위스트 팝송 같은 걸 틀어 놓고 형이랑 신나게 춤추게 하고는 좋아하셨다. 누나에게는 고전 무용 같은 걸 추게 했다.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흔히 녹음기라고 불리던 것도 귀한 때였는데, 한번 고장이 나면 낭패였다. 내가 초등 고학년 때 아버지는 중동에 근로자로 가서 세 번을 오가며 총 4년을 일하시게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물건을 사 오거나 또 보내 주셨다. 그중에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쓴 것이 은빛 메탈 외관의 산요 녹음기였는데, 당시로서는 꽤 신문물이었다. 청소년기

대부분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보낸 물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그 녹음기의 테이프 넣는 부분을 워낙 자주 여닫으니 문짝 안쪽에 돌출된 갈고리같이 생긴 부분 중 하나가 부러져 버렸다. 다른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서 고민이었다.

한동안 방치했는데 어느 날 귀국해 있던 아버지가 신기한 접착제를 사왔다. 이름도 이상한 ‘순간접착제’라고 하는데, 본드는 알아도 이런 접착제는 처음이었다. 아마 그때 처음 들어 본 것을 보니 당시에 수입됐거나 처음 쓰기 시작한 것 같다.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붙는다는 뜻이었는데, 아버지의 설명이 신기했다.

“이건 한번 붙으면 영구적으로 안 떨어져. 다시 부러질 일이 있으면 그 옆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걸로 붙인 부분은 안 떨어진다니까.”

어디서 과장 광고를 듣고 속아서 사 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 그런 묘약이 존재할 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와 열심히 붙여 보았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주의 사항이 있었다. 그야말로 ‘순간’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붙이는 타이밍이 적당해야 잘 붙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는 모 아니면 도의 사용법이 포인트였다. 그때 녹음기는 고쳐서 한동안 쓰다가 또 다른 신문물인 더블 테크, 테이프 2개를 넣고 서로 복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꿨던 것 같다.



자료 사진. 이런 모델과 흡사한 모양이었다.

요즘은 공산품이 워낙 싸고 많아져서 웬만하면 버리니까 많이 쓸 일은 없지만, 지금도 순간접착제는 생활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발라 놓고 얼마를 기다리다 붙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 잘못하면 손가락이 붙어서 떼느라 고생도 한다. 그래서 전시에 군인들은 이것을 지혈제로 급히 사용하기도 한단다.

순간접착제(instant adhesive)는 영어로 ‘즉석 접착제’로 부를 수 있는데, 무려 제2차 세계 대전 때 발명된 것이라 한다. 주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화학 물질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데, 공기 중의 수분과 접촉하면 중합 반응이 일어나 고체 상태의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시아노아크릴레이트가 된다.

모든 물체는 분자 단위로 보면 매끈하지 않은데, 그 틈새로 이 물질이 들어가 굳으면서 두 물체를 갈고리처럼 단단히 연결시키는 것이란다. 공기가 닿지 않는 부분은 접착 효과가 덜한데, 그래서 너무 흥건하게 바르면 굳는 속도가 느려서 순간 접착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접착제가 공기와 만나 굳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붙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순간 접착’이라는 말이 새롭게 와닿을 때가 있다. 이는 기독교 구원의 원리와 매우 밀접하다. 세상 이치란 그 설계자가 같아서 서로 다 통하기 때문에 누구나 은혜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구원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거부하

고 버티면 고통이 따르지만 순응하면 쉽게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구스) 내시처럼 깨닫고 바로 믿으면 된다. 십자가 위의 강도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죽기 직전에 깨닫고 고백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은 다시 태어남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끝이듯이 일회적 사건이다. 아기는 태어날 때 힘이 든다. 새로운 환경을 겁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힘든 건 엄마다. 사람도 자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남과 아직 태어나지 못함의 경계는 어디일까? 아기가 잉태되었을 시점이라 할 수도 있고, 세상 밖으로 나온 시점이라 할 수도 있다. 아무튼 열 달이라는 긴 경계를 시점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예컨대 어떤 전도 집회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5박 6일 등의 기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즉 어떤 시점에, 즉석에서,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다. 한순간에 구원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순간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안다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특정하기 어렵다. 어쨌든 한순간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이후로는 다시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마치 타이밍을 잘 잡은 순간접착제처럼 다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붙은 부분만은 멀쩡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구원이 돌이켜질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만물의 원리에 눈 감고, 성경에도 눈을 감는 것이다. 성경은 이미 이것이 돌이킬 수 없음을 거듭 말씀하고 있다.

구원은 안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다. 여기 접(接)이라는 한자는 ‘이을 접’이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graff, engraft로 나오는 말

인데, 합치다, 접목하다, 뿌리박다, 이식하다 등의 뜻을 가진 말이다. 접목(接木)은 나무를 합치는 것이면서 어떤 개념이나 지식, 현상 등 무언가 서로 연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접붙이는 원리, 즉 접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접목(接木)’이란 두 가지 식물의 영양체를 형성층이 서로 밀착하도록 접합으로써 상호 유착하여 생리 작용이 원활하게 교류되어 독립 개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농사로 사이트

서로 붙는 것을 넘어 독립 개체가 되는 것, 즉 붙어 있는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가 되는 것이다.

생명을 혼합하고 유전자를 뒤섞는 등의 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듯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식물은 피가 없으므로 엄밀하게는 생명이 아닌 유전자를 지닌 유기적 성장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 종자를 합성하는 것과는 윤리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런데 두 나무가 접붙여지면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원래의 나무로 돌아갈 수 없다.** 물을 합치면 예전처럼 분리할 수 없다.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라는 곳은 두 물길이 만나 합쳐지는 곳이다. 하류에서 만난 두 물은 다시 분리할 수가 없다.

자두와 복숭아 품종을 접붙인 것이 천도복숭아인데, 그 열매에서 자두의 성분과 복숭아의 성분을 나눌 수가 있다. 그냥 하나의 과일이다. 골과 오렌지 등을 합쳐 한라봉, 천혜향 같은 과일을 만드는 등 요즘은 온갖 과일을 접붙여 신품종을 만들어 낸다. 그 모두가 하나의 새로운 존재들이며 예전 상태로 나눌 수 없다.

장기나 피부를 이식하면 원래대로 환원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몸이 된다. 이

미 태어난 아이가 다시 엄마 배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끝난 게임이다. 이것은 설계의 원리이기도 하다. 어떤 생명체도 서서히 진화할 수 없다. 어떤 것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태계 자체가 먹이 사슬과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구원의 취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레고 블록처럼 합쳐졌지만 떼어 내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잘하면 유지되고, 내가 잘못하면 떼어 내신다는 것이다. 혹은 인생을 종합해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또는 서류를 써서 계약을 했지만 사람인 을이 계약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귀책사유로 갑이신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쯤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보다 더 확고한 것은 그분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접붙이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뜻하신 것으로 믿는다.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돌이키지 않으신다.

3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각자 지내자고, 그냥 각각 세 분이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로 바꿀 수 있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것이다. 자기 아들과 호적 정리를 해도 남남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했다. 같은 존재라고 이해한 것

이다. 그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것이었고, 신성모독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 5:18)

이처럼 동등하고 동일한 관계는 아무도 나눌 수 없다. 이는 순간접착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확고한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적당히 결합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 옛사람과는 다른 새 존재가 되는 개념이다. 그런 존재가 되려면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신분과 속성이 되어야 하므로 죄가 제거되었다는 뜻이다.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 1:21)

우리에게 접붙여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앙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접붙여질 수 있다.

접붙인다는 말씀은 로마서 11장에 몇 번 더 등장한다. 믿음에 동참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들이다. 이는 구원과 함께 혈통에 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내용들이다.

또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이방인]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유대인]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거든 (롬 11:17)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롬 11:23)

네가 본성에 따라 야생인 올리브나무에서 잘린 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거든... (롬 11:24)

이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가려면 말씀을 통해 접붙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이 일종의 접착제 같다고 할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다시 접붙여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계속 머무르지 않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능히 자녀로 삼으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원래 사람은 하나님 종류로 그분의 성품대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접붙여진 올리브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있다(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의 오역임).

순간접착제가 필요해서 공구함을 열었다가 생각이 여기까지 왔다. 제대로 붙으면 그 옆이 부러질망정 붙인 부분은 안 부러지는 접착제처럼, 아니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하다.

지금은 휴대폰만 열면 수백만 개의 동영상상이 쏟아지고,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몇 안 되는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고 또

들으며 행복해 했던 아날로그의 시대, 고장 나면 붙여서라도 쓰던 결핍의 시절이 그림기도 하다.

한번쯤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을 만큼 멀리 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다는 뜻이기도 하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든 죽어서 만나든 우리도 예수님께 접촉제처럼 착 붙어서 영영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때도 눈 깜짝할 ‘순간’에 채여 올라갈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고전 15:51)

그날에는 그간 옛사람의 육신 때문에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워하고, 문득문득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두려워했던 모든 일을 뒤로하고 나를 양자 삼으신 하늘 아버지께로 순식간에 다다를 것이다.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은 돌아가신 아버지와도 성도와 성도로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을 믿고, 또 고대한다. 📖

'부끄러운 구원'이 무슨 말인가?

성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종교에 대해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내세관에 있어서는 더욱 두려움을 갖는다. 살아서 지은 죄와 잘못들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강박도 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등의 개념에 따라 잘못하면 지옥 가고, 구원받아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는 식의 생각들을 한다. 그러다 보니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착하게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교가 생겨났을 뿐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부흥회나 유명인 간증 집회 같은 곳에 가보면 부흥 강사들이 똑바로 살라고 권면하면서, 특히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라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었다. 그렇게 게으르고, 불평만 많고, 뺨질거리면서 해 놓은 것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남들이 면류관(왕관, crown)을 쓸 때 본인은 개털 모자를 쓸 것이며, 남들이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 때 움막집에서 살게 된다고 겁을 줬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들어 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다.

나도 이 말을 쓴 적이 있고, 교인들은 뉘앙스를 잘 아는 말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아마도 이 표현의 근거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일을 묘사한 대목에서 왔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고전 3:12, 개역)

자, 이 상황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개역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바꿔 놓기도 한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터(기초) 위에 무언가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난다고 했다.

여기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공적은 일(work, 행위)이다. 불에 의해 시험을 하면 그것이 어떤 물질인지 드러나듯이 성도의 삶에서 행한 것들이 쓸데없는 일이었는지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난다.

거기 남아 있는 것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고 했다. 흠정역(마제스티판)을 비교해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

을 것ियो,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 (고전 3:12~15)

먼저 구원은 값없이 모든 이에게 주시는 똑같은 선물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다르다. 각자에게 잘 행하고 땀 흘려 주의 일을 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평한 원리다. 보상에 이르는 행위는 ‘일’이며, 이는 구별된 태도의 문제와 거룩한 봉사의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똑같이 받는 구원인데, 누구는 보상이 없어서 부끄럽다는 것인가? 불 가운데서 받는다,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는 게 이른바 부끄러운 구원의 근거가 된 구절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살아서 잘한 일이 없으면 마치 옷이 다 타서 발가벗겨지는 그런 느낌이나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상황을 떠올린 것인지, 아무튼 남들은 다 머리에 쓸 왕관을 받고 상도 받는데 자기만 무일푼에 빈손이면 부끄러운 상태가 된다는 뜻인 것 같다.

정말 그럴까...? 구원이 무슨 로또가 맞거나 아파트에 당첨되는 그런 것인가? 당첨은 됐는데 등수에서 밀리거나 남보다 평수가 좁아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일까?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수 없다. 그저 성경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만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본모습에서 어긋난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하다.

우리 상상이 오히려 본래 모습을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차원에서 몇 차원 높은 세상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개미가 천국을 상상한다면 베짚이처럼 일 안 하고 놀아도 겨울에 먹이가 가득한 놀라운 세상을 떠올릴 것이다. 생각의 수준이란 그런 것이다.

구원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

다른 세계를 인간의 낮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괴상한 논리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만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개털 모자를 쓰고 움막집에 산다면 매번 으리으리한 성을 보며 게을렀던 인생을 후회하고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르는 괴로운 삶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했는데(계 21:4) 거기 가서도 늘 비교당하며 울어야 하는 것인가?

지난 일에 후회하는 고통은 지옥의 몫이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땅에서의 삶도 기억하고 형제들도 염려할 정도로 여전히 그 상태로 고통당한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후회나 자신을 위한 간청은 아예 없고, 남은 형제들만 걱정한다. 반면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다. 과거 이야기나 땅의 이야기는 그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매일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며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면 그곳이 천국일까? 사춘이 잘될 때 배가 아픈 것은 사람의 죄성 때문인데, 천국에 가서도 그런 시기 질투가 존재한다는 것인가? 누가 손가락질할 정도의 비웃음이라도 산다는 것인가? 부끄러운 구원이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악인들과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것이었다. 시편 기록자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렸다.

참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범법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시 25:3)

부끄러움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장차 당할 일이다.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우리의 신들

이니다, 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사 42:17)

영존하는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끝이 없을 세상에서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수치를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사 45:17)

부끄러움은 주를 버리는 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고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렘 17:13)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9:33)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8)

이처럼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존재이며 왕가의 제사장이자(벧전 2:9)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들이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뜻은 그분이 우리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제거하셨다는 뜻이다(요 1:29).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셨으며(갈 3:13),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오롯이 쏟아져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으셨다. 마귀에게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다(롬 8:1).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가 왜,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인가? 게다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신분이 된다. 누구도 움막집에 살거나 개털 모자를 쓸 일이 없다(계 22:5).

당당해도 되는 이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열심을 내서 이왕 가는 천국인데 상을 받도록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주의 비유(고전 9:24)를 했듯이 그저 거기까지만 말해야지, 사람들에게 업포를 놓는 것은 옳지 않다. 성도의 헌신이 감사로 인한 것이 아닌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동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이방 종교의 고행적 신앙, 스스로를 다 태워서 바쳐야 비로소 돌아봐 주는 공홀 없는 조건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인의 신앙심에 깊게 박힌 불교에는 윤회론이 있고, 그들의 교리에는 극락과 지옥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가는지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착하게 살고 성불하면 되는데, 이게 무척 애매해서, 잘못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 생을 되풀이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으로 안다.


아무튼 그들은 권선징악 개념 안에서 선행으로 판단받으며, 믿음만으로 베풀어지는 공짜 극락 같은 개념은 없다. 이는 모든 행위 종교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개념이 기독교에 믹스된 느낌인데, 그런 것은 퓨전이지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자기 모습에 송구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괴감으로 마음의 빛을 지닌 채 일생을 살았다 해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뿐이다. 초라한 구원을 말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탕자의 마음이 바로 한없이 초라하고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아버지가 종으로라도 받아 주기를 바랐던 탕자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말하듯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동냥을 얻듯이 받는 구원을 말씀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그런 장면이나 암시가 없다. 우리가 지은 죄는 살아서 보응을 받는 것이며, 그 죄가 너무 지나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면 죽음으로써 처리하실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그곳에서는 비교나 시기 질투가 없어서 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선불리 상상하지 말고, 아무리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만 이해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안전한 구원에 안주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말한 분들이 강조한 열심과 헌신을 어떤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업을 쌓는 개념이 아니라 감사로 인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 해도 기독교의 원리를 왜곡하거나 이 값지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보상을 땅의 낮은 원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란 크게 어폐가 있는 표현이다. 조금은 당당해져도 된다. 성도의 자책과 비굴함은 고소하는 자 마귀가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구원 간증과 신앙 이력의 차이

모태 신앙인데도... 끝?

보통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구원 간증’을 부탁하면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려도 그게 끝이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요. 그 이후로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다닌 경력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나 역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도 초등학교 때 처음 전도를 받아...” 하는 식으로 깊은 대화는 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기독교인인 소위 모태 신앙이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시기와 다닌 기간 등은 구원 간증이 아니라 신앙 이력, 신앙생활의 경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각자 구원을 받고 회심을 했으니 긴 이야기는 생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처럼 분위기 때문에 넘어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보아도 열 명 중 두어 사람을 빼고는 자기 구원을 설명하거나 어떤 계기

로 믿었고,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라는 질문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언제 구원받았느냐 묻는 자체를 무례하거나 교만한 질문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목회자들도 교회에 다니는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치고 설교하기도 한다.

그러면 '구원 간증'이란 무엇인가?

구원 간증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계기를 말하는 것이고, 회개와 믿음의 시점 또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존 웨슬리처럼 몇 월 며칠 몇 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작은 경험들과 깨달음이 믿음이 되어, 죄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이키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게 되어 다시 태어났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원 간증은 반드시 과거 이력을 뜻하지 않으며, 현재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

이것은 복음과 믿음의 교리를 줄줄 외워야 한다는 뜻이 아닐 것이다. 그 명확한 표현을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주문 외우듯 자기 신앙을 정리해 두었다가 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침례를 받을 때 함께 받던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자녀인 청소년쯤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학습 문답 등을 통해 외운 답을 듣고 단체로 주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러 나왔을 정도면 믿음은 분명한 분들이었지만, 막상 증인이 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니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 고백의 말을 대신 이어서 해 주고, ‘그거 맞느냐?’, ‘내 말에 동의하느냐?’ 하면서 대답을 얻어 내 침례를 베풀기도 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조목조목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삼을 이유

는 없다. 구원 간증이 언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 다만 신앙 이력과 구원 간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진지하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라는 표현도 있다. 물론 이것도 제대로 믿은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자의적인 느낌의 표현일 수도 있고, 진지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어서 명확한 구원 간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원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 성경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피, 오직 십자가 은혜로 받은 구속 등의 표현이 있으니 굳이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 구원 간증이 있어야 할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행 8:37~38)

빌립이 에티오피아(구스)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다. 아무나 침례를 받을 수 없듯이 신앙의 고백은 필수다.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10)

이는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시인하는 자를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시고 시인해 주시는 것이다.

이기는 자, 바로 그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5)

우리가 구원의 간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이웃과 불신자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벧전 3:15)

자기 간증이 있어야 타인을 설득하고 은혜를 끼치며,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혹은 “장로였던 삼촌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구원 간증, 아니 신앙 이력 소개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식시킬 뿐, 본질에 다가가는 선한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대답’은 변증이기도 하다. 이는 세상 이치나 과학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간접 증명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 자기가 변화되고 체험한 것이야말로 가장 생생한 변증이 될 수 있으므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은 자의 중요한 의무임이 분명하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구원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화려한 말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는 일도 없진 않겠지만, 믿음이란 반드시 말로 표현되고 증언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울이 바울이 될 때 그가 받은 말씀이다.

이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 22:15)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 그 자신의 체험이 간증이자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행 13:30~31)

부활한 주님을 본 자들이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그분의 부활은 물론 약속과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승천까지 모두 확인한 자들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변화산에서 직접 본 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라고 했다(벧후 1:16~19). 우리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말씀을 통해 본 자로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 이후에 일어난 일과 세상 끝의 기록까지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증인이 되어야 한다.

“구원 간증을 들려주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제일 처음 다닌 교회가 떠오른다면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언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에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지 말이다.

성도의 삶은 신앙의 이력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지에 관한, 부끄러움 없는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구원은 '수동형'이지만 믿음은 '능동형'이다!

구원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달렸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많은 성도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특히 처음 믿는 이들의 우려일 수도 있겠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엡 2:8)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 6:23)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파고들어 교리를 복잡하게 이해하기 쉽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구원 문제를 통과하려면 내가 잘 믿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

기 시작하면 아무리 믿고자 해도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교리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이 수동형이므로 믿음도 수동형으로 해석해 “믿음이 주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믿기만 하면’ 받는 구원은 복음에 대한 일차적이고 단순한 동의, 즉 머리로만 믿는 지적인 단계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저 입문했을 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믿어져야 하는 믿음’은 일단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수동적 믿음에 의한 조건부 구원은 성경에 없고, 그런 것을 암시하는 단어도 없다. 믿어져야만 한다면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믿으면’이라는 말에는 능동적 요소가 충분하고, 어떤 난이도도 포함되지 않았다.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믿으라, 오라, 생수를 마시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단순하게 말씀한다.

구원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절반의 논리다. 자유 의지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것이 구원이며, 그것은 믿는 즉시 이루어진다.

믿음과 구원은 동시적 사건이다

믿음과 구원, 능동형과 수동형은 구분하기가 아주 모호한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믿음이라는 행동이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영향을 미치며, 구원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벧전 1:9).

믿음이라는 행동과 구원이라는 결말 사이에는 긴 시간차가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믿긴 믿는데 구원을 받았나 싶고, 좀 지나니 이제 좀 그리스도인 같다 싶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 중심을 아시는 분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불신앙과 믿음의 시간적 경계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수동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cometh = come)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롬 10:17)

개역성경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번역해 믿음이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밖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이 구절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맥이다. “...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롬 10:14) 이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믿음의 수동적 발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믿음과 구원은 ‘인과 관계’이므로 떼려야 뗄 수 없고, 구분의 의미가 없다.

또한 사실상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는다. 믿게 되는 과정, 동기, 기회조차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요 6:44)

그러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도하시는 은혜와 육신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지 숙명론이나 예정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능동적인 개개인의 수용 의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반드시 한 인격체로서 자유 의지를 사용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인간은 프로그래밍한 로봇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행 28:24)

이처럼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스스로 믿고자 한 자와 믿지 않기로 한 자를 구분한다. 이런 말씀은 믿었으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아서 안 믿어졌다 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각자 능동적으로 행한 일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수동적 결과를 불러왔을 뿐이다. 불신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다(살후 2:10).

구원이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말한다면, 믿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지옥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왜 나는 믿어지도록 하지 않고 천국에 간 자들은 믿어지게 했느냐고 말이다. 성경에는 그런 모순이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의 죄는 스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것이다(요 16:9).

단순한 지적 동의로는 구원이 안 되지만 아는 것이 영생이며 구원의 시작이다(요 17:3). 물론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 실체를 바르게 알면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끝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시작’ 안에 ‘끝’까지가 담겨 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 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빌 1:6)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개인은 인간이라 아는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경험과 성경을 혼동하면 곤란하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기는 태어나도 자신과 부모를 인지하지 못한다. 다시 태어난 성도도 처음엔 자기가 진짜 믿는지도 모를 수 있고, 내가 진짜 믿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 깨닫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말씀이 제공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

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젖은 이미 태어난 아기가 먹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죽는다고 자녀가 아닌 건 아니다. 이미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난 사실을 알고, ‘믿어질’ 정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그렇게 치면 총기가 떨어진 뒤의 노인이나 아직 어려서 이해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될 수도 있다. 믿음과 구원의 단계를 만들고 나누는 자체가 오류의 출발이다.

결국은 구원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

이런 논리에 혹하는 사람들은, 나는 믿었다 하지만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 마음 아니냐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그저 전능자의 권한으로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훨씬 엄격하신 분이며, 당신이 세우신 법칙은 절대로 깨지 않으신다. 믿으면 구원을 주시기로 한 이상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이 도의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분이 다. 천지가 다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법칙’이다. 하나님은 불법이 없으신 분이데, 스스로 하신 언약을 깨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 약속,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믿는 자를 사랑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불변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차적인 개념보다는 전체를 이해하시고 미리 아시는 통찰력이 존재하는데, 시간에 얽매인 인간은 순서가 있어야 이해를 한다. 그래서 자꾸만 단계를 나누는 것이다.

‘구원 얻는 믿음’의 경계가 어디일까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판단해 줄 수 있을까.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이다. 지금 아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고, 그때는 나를 진지했지만 더 성장한 지금 바라보는 과거의 내 믿음은 초라했다. 그렇다고 그때는 단순한 지적 동의에 불과하고, 지금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일까? 좀 더 지나면 지금의 모습도 부족할 텐데 말이다.

수동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논리는 결국 예정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행위구원’이나 ‘어려운 구원’과도 맞닿아 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는 말을 했다. 표현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으나 이 개념을 믿음에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남긴 김 추기경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죽어 봐야 알죠.”라고 했다. 아무리 깊은 믿음을 추구해도 결국은 자기 삶을 통한 행위로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믿고자 했으나 그 단계를 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이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



김수환 추기경

죽어 봐야 안다..., 하나님이 쥐야 받는 거다..., 이처럼 구원이 내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겸손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수동적 구원’이 나의 ‘능동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자기가 믿음의 동의뿐 아니라 간절한 추구와 기도로 결국 믿어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큰 감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제대로 못 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참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니 내 맘대로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해 왔지만 결국은 자기 간절함으로 구원을 (능동적으로) 쟁취한 사람이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미리 아심에 의한 예정은 최종 구원까지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5:24)

여기서도 믿는 것은 능동, 구원은 수동으로 표현된다. 믿으면(능동) 생명으로 옮겨진다(수동). 그런데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고 하셨다. 순차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십자가 위의 강도 역시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나아가 성화되고 믿어져서 즉시 낙원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다. 믿고 자 하는 의지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입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그의 영원이 결정된 것이다.

사람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 결정돼 있다. 칼빈주의적 예정론이나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벧전 1:2).

자, 다음 해에 A 대학에 갈 아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게 된다면 말이다. 옳은 답을 쓰는 순간 그들의 입학은 입학식 전에 결정된다. 답이 써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쓰는 거다. 알아야 쓸 수 있다. 쓰는 것과 동시에 합격은 결정되는 셈이다. (물론 구원은 대학 입학과 달리 정원이 무한대라 일정한 답을 쓰면 전원을 다 받아 준다.)

믿음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순간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원이 수동형이지만 개인의 능동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굳이 나누기도 애

때하고, 어느 것이 먼저랄 수도 없는 문제다. 믿은 뒤에 다시 믿어지게 만들거나 믿어지는 경험이 올 때까지 자기 구원 여부를 유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예정하실 때 이미 구원 시점, 즉 믿는 시점이 결정되는데, 믿어지게 만드는 과정이 왜 필요한가. 다음 말씀을 보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행 16:30~31)

- 믿으면(능동형)
- 받으리라(수동형)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에 이미 이 진리가 담겨 있다. 하지만 둘 다 수동형이라면?

- 믿어지면(수동형)
- 받으리라(수동형)

예수님이 믿어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은 없는 셈이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창 15:6)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요 10:42)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요 11:27)

아브람이 믿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모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일이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믿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 그런 의지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결론 내서 풀고, 해결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을 지나다 보면 오히려 교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 구원이란 ‘믿음’이라는,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일이다.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위험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 같지만 자기 몸에 맨 줄을 ‘믿고’ 몸을 내맡기는 것처럼 구원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므로 그분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5~36)

건져 내는 힘은 분명히 위에서 나오지만 팔을 뻗은 자도 함께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조차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다. 우리도 그분의 손에 넉넉히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다. 능동적인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구원을 얻게 한다. 감나무 밑에 누워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뻗어 취하고 맛보는 것이 구원이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구하면(능동) 주시고(수동), 찾으면(능동) 찾게 되고(수동), 두드리면(능동) 열리는(수동) 원리가 구원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로봇이나 운명론의 노예가 아닌 당당한 자녀가 되고, 주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

또한 믿음이 능동형이라는 말에는 설령 전능자가 억지로 믿어지게 하더라도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의지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개념이 수동형이 되면 인간은 엄밀히 인격적 존재가 아닌 것이 되므로 교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더 잘 믿고, 제대로 믿어 똑바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높이 살 만하고 본받아야겠지만, 구원이 수



동형이라고 말하고픈 사람의 마음에는 오히려 '믿어지는' 체험이라는 성경에 없는 특별한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기 의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 3:9)

지식이 더할수록 진리의 단순성이 주는 구원의 보편성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복잡다단하게 뒤틀어 자유를 억압하는 논리는 결코 진리일 수 없다. 구원은 '수동형'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믿음은 '능동형'이다! 📖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의 차이

앞의 글을 쓸 때는 조심스러워서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가수 박진영 씨의 구원론 논쟁에 관해 묻는 분들이 많아서 쓴 것이다. 그가 저서에서 언급한 소위 '믿음1, 믿음2'론은 믿는 단계와 믿어지는 단계에 관한 것인데, 내가 믿고자 한다고 그저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믿어지는 둘째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구원이라는 이야기의 반박이었다.

그때 일 이후로 박 씨는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본인의 믿음론에 대한 주장과 표현을 완화했다고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롬 3:22 등)'으로 구원받는 개념을 알기 전이라 자기 믿음,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나온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나는 꽤 오래전 그가 자발적 탐구를 통해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그의 구원관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탐구하는 과정을 높이 산 것이었다. 그의 구원론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사람부터 옹호하는 사람까지 의견은 다양한데, 그는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은 단체로 모이고 있으므로 개인 주장에 대해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기도 하다.

이번 글은 그런 논란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능동적 믿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해 쓴 것이다. 앞 글의 ‘능동형 구원’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데, 댓글 중 이런 표현이 있었다.

“인간이 신을 믿어 주는 능동형 구원(이라니!)”

십중팔구 이런 분들은 본문을 읽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 같다. 글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설명 없이 단편적인 자기 생각만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변을 하다가 길어져서 별도로 이 글을 쓴다.

아무튼 이런 분들은 ‘감히 하나님을 믿어 주다니, 인간이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그러는지, 어떤 부분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알아봐야 한다.

인간을 수동적인 창조물로 이해하기 때문

내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일종의 자기 비하인데, 미안하지만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넘어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미약하고,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창조물에 불과한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자격 면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변론하며(사 1:18) 씨름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창 32:28)

야곱과의 씨름에서 진 주의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이다. 설마 천사가 힘이 없어서 졌겠는가?

하룻밤에 아시리아 사람들 18만 5천 명을 치는 힘이 천사에게 있었다(사 37:36).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과 대등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분과 겨룰 능력이 된다는 것인가? 그만큼 **야곱의 독심을 높이 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자격을 주신 것뿐**이다. 우리가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하는데 아이가 이기겠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힘을 다하면 못 당하는 법이다. 그런 녀석을 끝까지 이겨 먹고 아들의 눈물을 빼면서 좋아하는 아버지는 없다. ‘못 이기는 체’라는 표현도 그래서 있는 거다.

능동형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적 동등함이나 물리적 대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방법이다. 사람도 자신이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반려견이나 심지어 햄스터에게도 제발 말 좀 들으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애원할 때가 있다. 녀석이 끝내 고집을 부려도 억지로 먹이거나 죽일 수는 없다. 그것은 주인의 뜻도 아니고, 미물에게도 그만큼의 존엄과 자유는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는가.

인간의 구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애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소유가 아닌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소유를 바꿀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한 료이 그렇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공명정대하게 그 료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사악한 자조차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겔 33:11).

감히 인간이 신을 믿어 주다니, 이런 말은 참 답답한 이야기다. 차마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드림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를 할 거라

고 오해하는 자체가 황당한 생각이다. 단지 직접 능동적으로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이 불공평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왜 아들을 죽음에 내주시면서까지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을까? 그럼에도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가 제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저 길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것뿐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8)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구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수동적인 일이며 능동형 구원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길을 여신 것은 ‘제발 너희 스스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내가 너를 단번에 살릴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세운 법을 어기는 일이라서 안 돼. 능동적으로, 네 자유 의지로 믿어야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마귀에게 팔려 간 자를 도로 사 오려 해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능동적으로 마귀의 편에 남는 길을 택한 것이다.

수동적인 구원을 검소으로 오해하기 때문

능동형 구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구원을 신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불경한 표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인간은 로봇 같은 수동적 존재가 된다. 숙명적 예정론이 바로 이런 모순을 포함한다.

집 나간 탕자를 받아 준 아버지는 저자세를 취한 게 아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내치지 않을 것을 믿어 주고 돌아와 준 아들이 고마울 뿐이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저자세(?)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듣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이를 닦으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듣다가 그냥 잠 들면 속이 상한다.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의 말을 한번 들어주기로 하고 이를 열심히 닦는다. 그러면 부모는 기쁘고 고맙다. 단지 치아 건강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인정하고 순종해 주었기 때문이다. 억지로 묶어 놓고 닦아 줄 힘이 있지만 인격적인 아이에게 그런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안 하면 제 손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구원도 원리는 이와 비슷하다.

자녀가 거역하면 부모는 권위를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난다. 그래서 부모는 억지스러운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식이 들을 만한 것을 말해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강제적인 요구와 불순종이 거듭돼 깨지는 부모 자식 관계가 많다. 하지만 보통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제안을 하시고 가능하면 실행하기 쉽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 11:28~30).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당신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가 나는 제안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믿어 달라는 표현이다. 주님이 문에 서서 기다리시는 이유

도 문을 인간이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계 3:20). 문을 여는 것은 주님께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인간이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을 ‘옳소’ 하며 믿어 주는 것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다.

아무 때나 수동적인 것은 순종이나 겸손이 아니다. 한편 모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면 수동적 구원론에 집착하는 이들은 구원이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믿는 구원 취소론과 연결될 위험까지 존재한다.

사실 믿는 것인지 믿어지는 것인지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믿어졌다가도 의심이 갈 수 있고, 믿는다 하다가도 진짜 믿는 것인지 혼동이 될 수 있으며, 무작정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은 그 믿음이 내 생각인지 모태 신앙으로 낳아 준 부모님 생각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믿어져야 한다’는 표현은 괜한 염려에서 기인한 불필요한 과정이다. 자기 의지로 믿고 진실하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능동형 구원은 내가 믿으면 그걸로 끝이므로 구원 여부가 내게 달렸다는 논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내가 응답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의미일 뿐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행 16:31)

“믿으라”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믿으라는 뜻이다. 믿음과 구원 사이에 ‘믿어지게’ 하시는 수동적 추가 과정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 모든 과정이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작은 능동적 판

단이 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만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돌이킴(회개)의 결단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수동적인 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차원을 낮잡아 보는 종교적 시선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복음은 단순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고후 11:2~3). 

[크리스천 감별법?]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크리스천이라도 가끔은 자신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는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존재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된다.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적 의심이랄까... 자신의 부족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바라볼 때, 내가 신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공짜로 살려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구원했다가도 포기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그런 생각이 스칠 것이다.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의구심은 마귀의 고소 때문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밖에 없다. 약속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통해 이미 확정된 일에 의심을 품을 수는 없으며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금도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의심들은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신앙이 나를 건강하다는 반증이 되는, 일면 유익한 의심이다. 이단들은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기네 정체의 탄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가끔씩 자기 구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는 무엇일까. 구원 받은 사람을 감별하는(?) 대략적 목록을 체크해 보았다.

1. 진리를 탐구하고 사모한다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궁금하여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싶어진다. 신앙의 슬럼프로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금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없다. 또한 성경책만 보아도 마음이 기쁘고 성경과 관련한 도구들을 아끼게 된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103)

2. 전도를 하고 싶어진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가족부터 이웃까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선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싶다.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용기가 없다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그 일을 게을리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도대! (고전 9:16)

사도 바울은 지옥을 향하는 자기 친족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을 정도라고 자기 슬픔을 강조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바랄 정도로 주님을 향해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한 것이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롬 9:2~3)

3. 기독교의 유일성을 변호한다

누가 부모님을 욕하거나 가족을 들먹이면 발끈하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의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무엇으로든 설명해서 만회하고 되돌려놓고 싶어진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갔을 때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격분했으며 그곳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므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행 17:16~17)

진짜 그리스도인은 타 종교를 인정하는 사랑(?)이나 아량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음란과 멸망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지니게 된다.

4. 많고 적게 행위로 드러난다

이것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에 변화가 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긴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에 민감해진다. 때론 유혹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부담과 질림을 느껴 괴롭고, 끊어 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미워하던 사람들을 용납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악한 행동 뒤에 있는 마귀를 보는 눈이 생겨 성숙하게 대처한다.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구원에는 행위가 뒤따른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약 2:24)

5. 예배한다

이른바 가나안 교인^A들의 문제는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해하고 공감할 부분도 많지만,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크리스천이면 예배를 거르고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므로 질적인 수준이 떨어진다 해서 내가 갈 필요 없고, 가 봐야 다 아는 얘기이며, 오히려 속 터진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예배도 가면 얻고 깨닫는 것이 있다. 최소한 망가진 예배에 대한 의분이라도 갖게 된다. 더욱이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부족하나마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다.

교회와 예배를 변질시킨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있는 것이고,

A.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이유로 교회 출석은 안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잘 알려진 유행어다.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핑계나 사유가 될 수 없다. 예배하지 않은 죄는 각자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주일성수나 안식일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박적 100% 개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빌 3:3)

6. 항상 심판과 끝을 생각한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과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염두에 둔다. 죄에 취약한 크리스천도 이것을 두려워하며 각오하게 된다. 크리스천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없지만 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3:12~15).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히 10:35)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 11:6)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고후 5:10)

7.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지낸다

그리스도인의 앞에 행복한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으며 갖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결국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롬 5:1~4)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약 4:9)

8. 더 높은 가치와 본질을 추구한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역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되 외적 현상보다 본질에 집중하면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이다. 크리스천은 본질적 문제와 최종 목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9. 성도의 교제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한 몸이다. 이 지체들은 서로 모이고 싶어 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전도하며 교제하고 싶어 한다. 종교 일치를 위해 인위적으로 억지로 모이기를 제안하는 자들은 오히려 한 몸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가치관으로는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과 섞일 수 없다. 출발선이 다르고 종착역이 다르다. 어떤 대화를 해도 결국엔 가치관과 세계관이 부딪혀서 즐겁지 않고 마음에 갈등만 생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편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요일 1:3)

성도의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언제까지나 혼자만 편하다면 성도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10.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크리스천은 매 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일에 닥칠 때뿐 아니라 감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기도원에 가거나 교회를 가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오히려 조용히 드리는 것이 기도다. 크리스천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전지전능한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크나큰 위안이다. 자주 자기 힘으로 처리해 보려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 앞에서는 찾을 곳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성도이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골 4:2)

또한 기도는 자기 소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구원을 위한 회개(돌아섬)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이후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아뢰며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11. 크고 작은 체험과 간증이 있다

엄청난 기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으로 자기 믿음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인 것이다. 기도 응답, 때에 맞는 말씀 주심, 병을 고침받음, 복잡한 문제의 해결, 삶의 해답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이런 일은 대개 처음 믿는 이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고집이 너무 세거나 할 때는 그냥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울(바울)이 눈이 멀었다 다시 돌아올 정도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일반적으로도 믿음이 연약할 때, 눈으로 보고 직접 느껴야 믿을 때 자주 일어난다. 신앙이 성장하면 마음도 냉랭해지고 웬만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지 않을 때도 많아진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해졌다기보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체험에 의지하기보다는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 20:29)

12.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전으로 삼고 내주하여 사신다(롬 8:9).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는 성령님이 근심하시지만 떠나시지는 않으므로 결국은 크

고 작은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그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모두 '성품'의 열매다. 남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열매를 전혀 무시하거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므로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겠다.

구원받은 사람은 대단히 점잖거나 인간적으로 고결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늘 영적 상태가 오르내리고, 때론 간사한 꾀가 있으며, 자주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 간에도 진짜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완벽하고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좋은 친구나 진실한 관계는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잘못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법이다.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속이지 않으면서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수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증거라 할 것이다.

늘 넘어지고 징계를 받아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자녀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죽음과 마귀에게 승리했음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위의 사항들과 무관한 부분이 많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바른 말씀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회개'와 '믿음'을 이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속히 영접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Part

3

성경에서

구원 교리가 갈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이유
구원의 '확신'인가, '담대함'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나, 제거하나?
웃사는 죽어서 지옥에 갔을까?
하나님은 왜 '대신 속죄'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구원 취소' 교리에 뼈기를 박는 성경 구절은?
'행위'와 '행함'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는?
킹제임스 흠정역의 완료형 표현이 주는 은혜와 위로

구원 교리가 갈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이유

지옥에 갈 것 같다는 지인

15년 정도 친분을 유지하며 사역을 함께하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은 열정 넘치는 크리스천이며 기독교 사역에 거액의 사재를 털어 정진할 만큼 진심과 능력도 확인된 사람이다. 또한 이공계 석사 출신으로 명민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도 지녔으며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합리적이다. 누구나 지닌 개인적 단점이야 있겠지만 가족도 단란하고 아내의 인정도 받고 있는 그는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분이 성도가 아니라고 의심할 사람은 주변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공식 석상에서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지나는 말로 한 이야기였다. 요약하면 이렇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사역에 더 힘을 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 내 안의 세속적인 면이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워서 결국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도 좀 더 열심을 내서 정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천국으로 인도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중대한 사역은 꼭 이루고 싶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구원에 대해 심사숙고해 얻은 결론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교리를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모든 주장과 교리를 다 섭렵해 보니 과거에는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중년에 다다른 결론은 ‘부족한 자신의 지옥행’이었다.

물론 그도 ‘행위구원’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긴 하지만, 본인이 믿긴 믿었는데 결국은 안 믿은 것이면 어찌냐는 얘기였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안 믿은 것으로 판명날 것 같다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인해 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믿는다는 것인데, 그걸 누가 확인해 줄 것이냐...,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마다 착각에 빠져 있을지 누가 아느냐는 말이었다. 아무튼 자신이 잠정적으로 도달한 결론이 그렇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한국 성도들 사이에서 구원 교리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지식층이나 무언가를 깊이 연구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믿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주장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진짜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 같은 것에 솔깃한 이유도 그렇다.

일단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부족함은 지옥에 적합한데,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없으니 두렵고 답답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다.

신앙은 그냥 믿는 것이지, 확인하고 들여다봐야 아는 것이 아닌데, 질문서를 떼서 철통같은 금고에 숨겨 두고 싶은 마음에 너무 파고들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그런 확인증이나 금고는 없다. 그런 철저함을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말하니 조금 위로가 된다고 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며, 영원한 선물은 켜다 뺏는 게 아니다, 자녀는 부모를 확인하지 않고 순순히 믿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행실로 자녀를 판단하지 않고, 부족해도 받아들이며 기뻐하듯이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이다, 등등...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으면 어찌냐는 반문으로 되돌아갔고,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는 못했다.

그간 구원 교리에 대해 많은 글을 썼지만 혹시 내가 쓴 글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착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잘못된 위로를 주지 않았는지, 혹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구원'에 다가가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은 어디에도 없다. 다른 답이 없으면 믿는 것뿐이다.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행위나 자격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으면 천국행이라고 하셨다. 지엄한 왕이 많은 이들 앞에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겼는데 믿지 못한다면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백성의 자격이 없다.

갈수록 모호해지는 구원 교리

이처럼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심오한 신학을 한다는 이들에게서 최근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몇 가지 짚어 보았다.

1. 단순함을 잃음

믿음과 신앙은 심플한 것이다. 하지만 지식 정보 사회인 요즘은 구원 교리나 성경 지식이 너무 간단하면 오히려 혼동을 느끼는 것 같다. 엄청난 특혜인

천국이 그리 간단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을 주는 쪽에서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면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받는 쪽에서 대가로 치를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저 믿음과 신뢰, 그리고 감사면 충분하다.

단순함을 잃는 것은 $1 + 1 = 2$ 인 산수를 함수와 방정식과 미분 적분으로 풀려고 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한번 생각하면 되는 문제를 꼬아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고후 11:3)

2. 성경의 문제

성경 번역이 심각하다. 한국어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거나 이루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되도록 번역되었다. 바르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개역)

‘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나 ‘지어져 가느니라’는 명백히 미래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러나 어떤 원어나 영어성경도 이렇게 진행형을 쓰지 않고 과거로 표현한다. 물론 개역성경이 제대로 번역한 부분도 많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이라) (엡 2:5, 개역)

그러나 잘못된 한두 구절만으로도 설교 여러 편이 나올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일생 동안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3. 한계 극복의 실낱같은 희망

열심히 믿다 보면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바탕에는 전설 속 성자 정도는 돼야 참된 성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미화되고 전설이 됐을 뿐 사람은 다 똑같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듯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오르고 또 오르면 언젠가 죄를 떠나 사는 사람이 되리라는 희망은 버려야 한다. 다른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행과 선행을 통한 자기 구원인데, 기독교가 다른 점은 그 모든 헛된 희망을 버리고 전적인 믿음을 통해 은혜로 먼저 받는 원리다. 기독교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전설과 신화에만 존재하는 성자의 삶을 기대하느니 숨을 안 쉬고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게 빠를 것이다.

인간의 활동이 탄소 발자국을 남겨 환경이 오염된다면 자연에 죄를 짓는 것이니 환경 운동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아무리 거룩한 사역이라도 죄의 발자국이 남는다.** 그런데도 ‘괜찮은’ 인간이 되어 지옥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죄를 짓는다. 죄를 덜 짓기 위해 애쓰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지만 일상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생각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합리적이다.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질하는 사람은 물에서 건질 수가 없다. 다 포기하고 축 늘어져야 건져 낼 수 있다. 이처럼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면 오히려 구원에 다가가기 어렵다. 바른 행실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 종교에 우리보다 훨씬 반듯한 이들도 많듯이,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4. 구원을 거래로 생각함

구원이 마치 무언가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구조 요청이며 그에 대한 공짜 응답이다. 아무도 119에 전화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와서 응급 처치를 해 주시오.”라고 하지 않는다. 구급대원도 하는 거 봐서 구해 주지 않고, 구조 대상이 살인자인지 파렴치한인지 고려하지 않는다. 요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많은데, 소방관은 내게 폭행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살피지 않고 일단 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미리 다 아시면서도 조건 없이 구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타락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스스로를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119 구급대원은 국가에서 대가를 받을 뿐 환자는 공짜다. 그게 생명에 대한 인간 세상의 태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대가를 먼저 받고 구해 주실까?

5. 믿음과 행위의 순서 혼동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 무언가 행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순서는 그 반대다. 믿으면 행위가 (매번은 아니어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자주 안 나오면 죽은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죽은 불신앙’이라고 해야 한다. 믿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믿음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야

고보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죽은 믿음을 되살려 바른 행실을 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 말한 것이다.

신용이란 신뢰 수준을 말한다. 돈이 있으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돈이 필요할 때 신용 점수가 높으면 팔 물건이나 담보 잡힐 부동산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다. 신용 대출은 믿고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액만큼 담보를 제공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용 대출이 아니다. 그것은 고마운 혜택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어떤 것을 먼저 제시해서 충족되면 구원을 주신다는 개념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며 은혜도 아니다. 믿음은 먼저 빌려줘서 일단 쓰게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신용 대출과 비슷하다. 물론 구원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쥐 버리는 것이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의 행위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단 한 번도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대출금을 안 갚으면 신용 대출이라도 나중에 변제를 해야 하는데, 구원은 추후에 변제, 즉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받지 않았던 것이 된다. 구원이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착각이었다는 얘기다. 한번 준 것은 도로 빼앗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돌이킴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후 7:10)

그 지인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하면서 마음을 졸일 것 같다고 말이다. 그건 동의한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감히 누가 크신 구원을 소홀히 여길 것인가?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만 한다. 그래서 참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도 죽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


도한 것이 아닌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 아무리 애써 봐야 어차피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돌고 돌아 그냥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믿음은 결국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와 실상이 되는 것이니(히 11:1) 사람이란 일생에 삶의 어떤 답도 얻을 수 없고, 믿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건은 엉뚱한 신을 선택해서 믿지 않고, **대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진리로 발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해답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행실의 커트라인을 높여서 아무도 못 들어갈 수준을 제시하실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원이 믿으려는 자들에게까지도 바늘구멍밖에는 허용되지 않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평생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겠지만, 그것은 자아와 양심이 부족한 육신과 다투는 것이지,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과 진리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평생 흔들릴 바에는 이미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니라. (히 3:6)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앞에 소개한 지인처럼 평생 믿으면서도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구원의 '확신'인가, '담대함'인가?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일까? 요즘 이 말을 듣는 일은 흔치 않은 것 같다. 대개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간주하기도 하고, 구원은 새 가족 양육이 아니면 성도들 개개인이 알아서 챙길 기본적 요건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처음 다니기 시작한 곳에서 구원에 대해 해결받았다는 의미이며,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더더욱 확실한 점검을 했다는 뜻이니 따로 구원을 받았는지 물을 필요는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게다가 일정 기간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구원 여부를 묻는 것은 실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구원 여부가 아닌 ‘구원의 확신’은 종종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구원 교리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회원이 되고 세례와 침례까지 받은 뒤에도 자기 삶과 행위가 부족해서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안전 보장과 영속성에 관한 진리를 계속 상기시키고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자기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반드시 불신앙은 아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성경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으며, 그곳을 만드시고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와 권능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슬람의 지옥^A에 대해 들으면 실소가 나오듯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닌가.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 10:28)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 구원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를 세뇌하듯이 다른 스위치는 다 끄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믿음은 약할 수 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구원을 지키신다는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하고 굳건한 것이다. 약한 것은 내 컨디션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굳은 믿음이다. 그 확인과 안전에 대한 안도감은 물론 성경으로부터 온다.

성경이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면 읽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성경인 개역성경은 거의 모든 교회가 사용하므로 쓰지 않을 수 없게 돼 버렸는데,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의 확신도 조금 희미해질 수 있다. ‘확신’으로 번역할 말이 ‘담대함’이나 다른 개념으로 번역된 곳이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뜻은 전달되지만 뉘앙스는 많이 다르다. ‘담대함’이란 말 그대로 담력과 용기를 지니는 것, 힘을 내서 당당하게 행한다는 뜻이다. ‘확신’은 담력이나 용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것들에 대한 확인에 가깝다.

A. 이슬람교 교리에서 지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1층은 이슬람 신자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 2층은 유대교인들이 가는 곳, 3층은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 4층은 고대 아랍족인 사비안족이 가는 곳, 5층은 고대 페르시아의 마지족이 가는 곳, 6층은 위선자들이 가는 곳, 7층은 이슬람교에서 떠나 타락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어떤 사람이 서커스의 외줄타기를 하는데, 아래 그물이 쳐져 있다고 들었지만 눈에는 안 보인다. 이 사람이 외줄을 탈 때 필요한 것은 담대함보다 확신이 필요하다. 어차피 그물이 쳐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말이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경의 번역이 중요한데, 개역성경은 확신을 다른 말로 번역한 곳이 많다.

확신 vs. 믿음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대목에서부터 개역성경은 아쉬운 번역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 이다(sure), 하매 (요 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know) (요 6:69, 개역)

일단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living) 말이 빠졌고, 예수님을 단순히 거룩한 자라고 했다. 또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알았다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인 것을 꼭 말해야 아느냐는 방어는 제발 하지 말기 바란다. 이 한 구절을 제시하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명백한 구절이 손상된 것은 sure를 know로 바꾼 영어 현대 역본을 따랐기 때문이다.

확신 vs. 인정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행 16: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행 16:10, 개역)

구원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구절의 확신하다(assuredly)도 개역성경은 현대 역본을 따라 인정하다, 즉 결론 내다(concluding)로 번역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다.

확신 vs. 환영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persuaded)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히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welcomed)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 11:13, 개역)

개역성경과 현대 역본은 이 부분을 ‘확신’이 아닌 ‘환영’으로 번역했다. 아직 받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생각한 모양이다.

‘확신’은 받은 것을 믿을 때 하는 것인데 ‘환영’은 직접 받을 때나 할 수 있는 표현이다.

확신 vs. 담대함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고후 5:6~7)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
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후
5:6~7, 개역)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은 주님과 물리적으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중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후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살전 4:17)
말씀과 대칭을 이루며 짝이 된다. 그러므로 담대한 용기가 아니라, 그날이 오
기 전까지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의 영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confident) 믿는다는 것이다.

NIV(신국제역)는 confident로, NASB(신미국표준역)는 good courage로
번역했는데, 개역성경의 ‘담대함’은 NASB를 따른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
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에서
는 개역성경도 ‘확신하노라’로 번역했다. 현대 역본도 confident를 썼다. 히
브리서 3장 6절도 같은 사례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5절의 경우, 현대 역
본들이 confidence를 썼지만 개역성경은 ‘확신’이 아닌 ‘담대함’을 썼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히
10: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 10:35, 개역)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영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믿음과 확신을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full assurance of faith)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22, 개역)

이곳 역시 현대 역본들도 같은 영어 표현을 썼다. 꼭 찬 확언, 확약, 일종의 보증을 들었다는 것이니 ‘온전한 믿음’은 아쉽고도 모호한 표현이다. 가끔 개역성경이 믿는 순간 완성되는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듯 무속과 불교 등이 섞인 특유의 내세관으로 번역을 했다는 인상을 줄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다. 아직 오지 않은 사후의 일들을 단정 짓고 확신하는 것을 종종 주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 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엡 2:19~22)

여기 ‘자라 가고’라는 표현이 있지만 성도의 구원이 미완이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중인데, 너희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벌써 ‘세워져 있다’라는 의미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모든 이들과 에베소 교인들도 다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번역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개역)

이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더해 아직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지 않은 것처럼 번역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도 확신을 담대함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다. 현대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도 같은 confidence를 썼는데 개역성경만 담대함으로 번역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confidence)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8, 개역)

요한일서 5장 14절은 복음성가 가사로도 익숙한 구절이다. 하지만 확신은 담력이 아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confidence)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요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4, 개역)

확신은 훨씬 안정적이고 강력한 개념이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cometh)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by) 오느니라.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개역)

담대함의 적절한 용례

끝으로 ‘담대함’의 진짜 의미는 ‘기운을 내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be of good cheer).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개역)

개역은 현대 역본이 take heart!(*NIV*), take courage(*NASB*) 등으로 번역한 것을 따른 것이다. 그러면 개역성경은 도대체 몇 가지 단어와 표현을 ‘담대함’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boldness)을 얻었는데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confidence)을 얻었나니 (히 10:19, 개역)


여기서는 또 현대 역본은 confidence를 썼는데도 개역성경이 청개구리처럼 ‘확신’이 아닌 ‘담력’을 사용했다. 같은 단어를 한 책 안에서 통일시키는 노력조차 너무 부족하다.

서로 다르게 번역한 성경의 단어들을 두고 사소한 차이라고 해선 안 된다. 성도라면 누구나 한두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자기 양심을 두드리고 깨우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구절들의 의미가 왜곡됐거나 부실하거나 다른 개념과 혼동돼 있다면, 믿음의 방향과 교리에 대한 이해도 함께 왜곡되고 부실해지며 오해가 오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원의 확신을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으로, 더 잘 믿자고 굳게 다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확신은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에서 온다.

구원 문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법 조항과 다름없다. 하나님조차 이랬다저랬다 하실 수 없도록 공의 안에서 단번에 주시고 번복하지 않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종종 잊고 의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보고 확인하는 과정의 ‘확신’이 필요할 뿐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기록들의 흐트러짐과 함께 성도의 믿음과 교리도 함께 흐트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이 모호해진 뒤로 구원 교리가 모호해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흐름이다. 오늘은 내일을 낳고, 우리가 읽고 본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법이다. 성경 문제를 직시하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질수록 구원 문제도 점점 더 불안과 모호 속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담대하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에 느낌표를 여러 개 더하는 과정이 아님을 잊지 말자. 

세상 죄를 지고 가나, 제거하나?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은 무속 신앙이나 불교의 영향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구원은 죽어 봐야 비로소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내가 고행과 금욕 같은 것이나 삶의 행위를 통해 이를 부분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욕이나 절제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구원에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과 용서가 감사해서 행하는, 열매로서의 일들이라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큰 빛을 아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행위로 보여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위의 참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수가 있고, 결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지나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무리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결과를 미리 아심으로 알고 계실 뿐이다. 아무튼 내가 무언가 보태려는 ‘자기 의’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말씀의 왜곡이다. 다음은 유명한 요한복음 1장 29절이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개역)

이 한국적 정서로 번역된 한마디 글귀와 영상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다. 세상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 죄 하나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코끼리도 아닌) 어린양이라니... 얼마나 버겁고 고생스러울지 상상이 된다. 그래서 나도 삶의 짐을 계속 지고 감당하면서 가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헛갈려 한다.

이런 찬송가도 그 혼동에 한몫을 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짐이라면 ‘죄의 짐’이다. 그러나 이 찬송의 가사는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과 근심과 환난, 죄 등을 섞어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짐은 벗어 버리는 것이고, 삶의 짐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대로 번역한 것이다.

...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흥정역)**

‘제거하시는(taketh away = takes away)’, 즉 치워 버리는 것이 왜 ‘지고 가는’으로 번역되었을까. 그토록 왜곡이 많은 현대 역본들도 takes away로 제대로 번역하고 있으니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이는 한글로 번역하는 이들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탓인 것 같다.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하다 보니 죄의 짐이란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그 짐들을 다 지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예수님의 상처받은 모습들이 그런 오해를 더했을 수도 있다.

죄의 짐은 예수님이 맡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 짐은 모두 주님께 맡겨 없어지므로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며 주님도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의 성화에 필요한 짐들, 즉 나를 부인하는 것이나 남을 사랑하는 것 등 마음의 짐을 감당해야 하고, 몸의 질병이나 물질의 궁핍 같은 육신의 짐도 져야 한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의 땅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전쟁과 노동의 짐을 져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 16:24)

찬송가 '죄 짐 맡은 우리 구주'의 구주도 죄의 짐을 맡아 끌어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이 이상 숭배의 종교나 한국인의 토속적 신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마치 업보를 감당하며 고행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줌으로써 개념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죄의 짐을 맡아 없애신 분, 세상 죄를 제거하신 분이려야 우리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원리를 다른 것도 아닌 성경이 왜곡하고 혼란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바른 성경이 바른 개념을 만들고, 바른 가치관을 만들며, 바른 구원관을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

웃사는 죽어서 지옥에 갔을까?

하나님의 궤와 베레스웃사의 교훈

예전에는 성경을 판에 박힌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분법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외우듯이 구분하곤 했다. 물론 상대주의적 모호한 가치관을 도입해 선악의 경계를 허무는 일은 조심해야겠지만, 직접 깊이 사고해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고나 할까….

성경에서 큰 잘못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성경 인물들 중 하나가 웃사(Uzzah)이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댄 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대개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교훈을 새길 때 등장하는 인물이다.

웃사, 그러면 그는 지옥에 간 걸까…? 당연히 하나님의 엄벌을 받았으니 지옥에 갔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옥행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 같다.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문맥을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한 사건이 나 한두 구절보다는 하나님의 방식과 대전제, 다른 사건들의 처리 방식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달리 보이는 사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웃사의 문제다.

(사무엘하 6장)

- 1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사람 삼만 명을 함께 모은 뒤
- 2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자기와 함께하는 온 백성과 함께 거기를 떠나서 갔는데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느니라.
-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웃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더라.
- 4 그들이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할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갔고
-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북과 코넷과 심벌즈에 맞추어 **주** 앞에서 놀았더라.
- 6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다다랐을 때에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웃사가 자기 손을 그 궤로 내밀어 그것을 붙들었더니
- 7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시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 8 **주**께서 웃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웃사라 하니 이날까지 그 이름이 내려오고 있느니라.
- 9 그 날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는
- 10 이에 다윗이 **주의** 궤를 다윗의 도시 안으로 자기에게 옮기려 하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가져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들여놓았으므로
- 11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주**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안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웃사 사건의 전말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궤가 자기네 신 다곤의 얼굴과 손과 발을 잘려 나가게 하자 수레에 실어 돌려보내는 데, 벳세메스를 거쳐 기랏여아림의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머물렀던 것이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이다.

그런데 원래 궤는 어깨에 메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어쩐지 수레로 끌고 간다. 블레셋에서 반환되었던 방식 그대로 운반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아히오와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수레를 몰았을 뿐, 3절에서 말씀하듯이 다윗과 온 백성이 수레에 궤를 실어 가져오려고 했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때의 잘못은 다윗도 인정했고 반성했으며, 다시는 수레에 실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가 궤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대상 15:12~13)

혹자는 웃사와 아히오가 궤를 메지 않았던 점을 **징벌의 이유**로 꼽기도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었고, 이 일 자체를 명령하고 주관한 것이 다윗이므로 웃사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다윗도 위 구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했다. 웃사는 어떤 면에서 전체의 잘못을 대표로 심판받은 것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웃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타작이란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장소이며,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듯이 웃사라는 가라지를 거기서 심판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식의 영해를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성

경의 기록에서 사람의 이름과 지명과 그 일이 벌어진 위치가 주는 의미를 살펴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꿈보다 해몽식의 풀이가 아닐까 싶다.

우리가 그였다면 어땠을까?

개역성경에는 소들이 ‘뒤프로’라고 번역했지만, 소들은 하나님의 궤를 흔들(shake) 것이다. 얼마나 어떻게 흔들린 것인지는 몰라도 옷사가 궤를 나르는 일의 엄중함을 몰라서 자기 멋대로 옳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을까? 그런 계산을 할 겨를이나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의 궤에 흠집을 내거나 땅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어야 잘하는 일일까? 만일 우리가 옷사라면 단지 나 살자고 하나님의 궤가 훼손되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가?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그것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담은 상자가 있다 해도 비교조차 송구한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물건이다. 그게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부상을 당하실 일은 없지만, 아마 그것이 흔들려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우리도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지 않을까?**

옷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지옥 갈 악인이라 치자. 그런데 궤를 나르는 일을 맡을 정도면 그것에 손을 댄 자가 죽는다는 사실을, 레위 자손으로서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궤는 종교적 물건에 불과한데, 그것이 떨어지든 말든 왜 손을 뻗어 죽음을 자초하겠는가? 만일 옷사가 죽을 줄 알고도 궤에 손을 댔다면 그는 어찌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인디애나 존스(레이더스: 잃어버린 법궤) 같은 영화에도 등장한 하나님의 법궤(ark of the covenant).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고, 법은 법이다. 궤에 손을 댄 자는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선다. 그래서 그는 모두의 잘못을 안고 죽었다.

물론 하나님의 분노가 옷사를 향해 타올랐고, 그가 '잘못'했다고 명백히 나오며, 그를 치시고 찢으셨다고 말씀한다. 다만 인간의 입장에서의 이치는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8절에서 이 일을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와 옷사를 잃은 것, 그리고 자신이 지휘한 일에 대한 실망인 것 같다. 9절에서 그가 주를 두려워하며 한탄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의 법칙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지옥 갈 자들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어떤 일을 일단락 짓기 위해서 의인들에게도 징계를 주시는데, 때로 그 징계는 죽음에까지 미치지만 그의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큰 잘못을 하면, 피해자 선생님이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학칙에 따라 퇴학 등의 조치와 징계가 따른다. 해당 학교에서는 행정적인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의가 불가능한 모든 범죄와 처분이 이와 같은 원리를 따른다.

다윗도 옷사나 하나님께가 아닌, 전체 진행을 잘못된 자신에게 화가 났을 수 있고, 사건 자체가 전혀 이견을 제시할 수도 수습해 볼 수도 없는 즉결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 더욱 속상했을 것이다.

사무엘하 6장 8절의 '베레스옷사'란 옷사를 찢다, 옷사를 찢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옷사에게 큰 진노를 발하셨다. 부모도 사고를 일으킨 자식을 호되게 체벌할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자체에

화가 날 수 있다.

자식이라면 아무리 처벌을 했어도 호적을 파지 않고, 혹 서류를 바꾼다 해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웃사가 의인이었다면 육신의 생명을 빼앗길 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웃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아비나답의 아들로 하나님의 궤를 나를 정도였으면 믿음을 지닌 의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최소한 그가 지옥에 갔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설교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들 부부는 신약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잠시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 이들은 육체의 생명을 빼앗긴 것이며, 최소한 지옥에 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고린도교회의 음행자도 너무 악한 죄를 지으니 바울이 보다 못해 기도를 통해 사탄에게 그를 내어주어 목숨을 빼앗도록 한다. 그러나 그렇게 조치한 이유는 그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에 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전 5:5)

육체를 멸한다는 것, 더 이상 세상에 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조치하지만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말이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신성모독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딤후 1:19~20)

심지어 믿음에서 파선한 후메내오와 알렉산더조차도 사탄에게 넘겼는데, 이들을 죽인 것인지 징계한 것인지는 몰라도 가르침을 받아 신성모독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옥은 영원히 신성모독 할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곳에는 배움도 없고 회개의 기회도 없으며 돌이킴도 없다. 거기서 무슨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닫겠는가.

성경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까지 심판하려 한다면 너무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경우들은 모두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지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중죄를 지었지만 주의 자녀에 대한 징벌이며, 구원에 관한 원초적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요일 5:16~17)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즉 지옥에 가는 사망이다. 이런 자들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징계를 받은 성도나 의인들, 최소한 지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사례들을 구원 반복이나 취소의 거짓 교리를 정당화하는 데 쓰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 16:8~9)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죄,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사랑을 거부하며 비웃는 자만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올 메시아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 이런

것이 자유 이상의 방종의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므로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고, 방종한 자의 잘못이다.


아무튼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늘 무서운 분이 라고 혼동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조차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겔 33:11)

웃사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

정확히 서술되지 않은 사건을 두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논쟁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공평과 공의를 전제로 하나씩 풀어 간다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웃사도 그날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선을 이루시고, 이권이 없도록 모든 입을 막으시는 공평한 분이다. 결과적으로 다윗과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기지 않았다. 어쨌든 잘못된 판단을 한 웃사는 죽음으로 공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지만 영혼의 생명을 잃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궤는 흠집 없이 무사했다.

자기 옳음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 베레스웃사의 교훈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져도, 어떤 고난과 위기에도 결국 안전하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 복된 소식이며, 진리다. 그 진리가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대신 속죄'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1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묻기도 애매한 것이 있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데, 그분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데,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잘 안 갔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확실히 알았으니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구원의 방식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좀 더 커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처리하셨고, 그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좀 더 알고 믿었지만 왜 그런 방법을 쓰셨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과 행동에 따라 천국에 보내시면 될 텐데, 굳이 수천 년 만에 메시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전해서 알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였다.

그러다가 알게 된 섬뜩한 사실은, 인류가 이미 가망이 없이 죽은 상태라는

사실이였다. 마귀에 속아 죄에 빠진 인간, 영 죽게 된 인간은 그 상태가 그냥 자신들의 몫이였다. 거기서 어떤 조치나 변화도 없었다면 믿음에 대한 치열한 내적 전쟁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고, 마귀의 소유물로서 그의 처소로 가는 것이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 억울할 것도 슬플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것이다.

기본값이 죽음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작지만 확실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복선을 깔아 두셨는데,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짐승을 희생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동산을 폐쇄하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 3:22~24)

언젠가 희생당해 대신 속죄를 해 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죽을 육신으로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땅에서 영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차단하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없었다. 왜 만들었느냐는 항변은 창조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마치 신나게 잘 살다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악한 일에 빠져 사형수가 된 자가 부모를 향해, 왜 나를 낳아서 이런 일을 초래했느냐고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물으신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 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

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창 3:11)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께 답한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창 3:12)

그는 이렇게 여자 핑계를 대며 ‘남 탓’부터 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거다. 여자 때문에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 아니냐는 거다. 여자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어땠는가.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 2:23)

좀 살아 보지도 않고(?)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그리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여자 때문이란단다. 그러나 남 탓은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뱀을 지목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창 3:13)

하지만 뱀만 그녀를 속인 것은 아니었다. 이브는 뱀이 유혹하며 선악과에 대해 물을 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창 3:3)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창 2:17). 그녀는 뱀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인 것이다. 그때 만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시인하며 엎드렸다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아무튼 인간은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변명과 핑계에 능하다. 아주 반사적으로 순발력 있게 나보다는 남을 본다.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남을 끌어들인다. 무언가 잘못된 아이를 혼내려 하면 먼저 나오는 것이 남의 탓이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형아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잘못을 남에게 돌리고 핑계를 댈다. 아주 천부적 재능이다. 남의 핑계를 못 대면 억지로 끌고 들어가기가라도 한다.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에게 혼날 때도 나만 안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서 같이 벌을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잘못을 남들도 저지르면 조금이나마 상쇄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런 작전이 법정에서 통하면 죄인도 무죄가 된다. 남에게 누명을 씌우려다가 들키면 죄질이 더 나쁘므로 가중 처벌을 받지만, 성공하면 누명을 쓴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범죄 조직도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감방에 들어가기도 한다. 형사가 진범을 안다 해도 본인이 자백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누가 죄를 지었든 해당 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고,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마귀의 소유물이 된 인간의 상황을 도로 무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지만 명분 없이 손가

락 하나로 모든 것을 되돌리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반칙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은, 데려오고 싶어도 이미 죄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역시 단숨에 무효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 인간 사회에서도 죄를 범한 살인강도가 내 친구이거나 자식이라고 해서 그냥 용서하고 풀어 주지 않는다. 짓값을 다 치렀거나 본인이 뉘우치고 완전히 개과천선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풀어 주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진다.

하나님께는 죄를 처리하신 뒤에 인간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야 마귀도 군소리 못하고 인간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인간에게 제일 절차가 간단하고, 쉽고, 효과적이었을 까...,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한 행동에 착안하셨던 것 같다. 너희 인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깊이 생각 안 해도, 학원에 안 다녀도 저절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남 탓’**이다.

어차피 인간은 죄를 없앨 능력이 없으니 그것을 처리할 존재를 보내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죄 없는 존재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자격은 친족 속량의 법칙(레 25:49)에 따라 같은 종류인 ‘인간’이어야 한다. 이 법칙이 모두 맞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분이다.

하지만 그런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의 본체 중 한 분인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주셨다. 그 메시아가 죄를 모두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 덩어리가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면 비로소 인류의 죄는 모두 제거된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메시아 라인으로 줄을 설 수 있는가..., 여기서 인간의 재능(?)이 필요하다. 바로 남 탓... 소유권을 묻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서 없애 주셨다고, 말하자면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마귀는 닭 쫓던 개처럼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물려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도로 사 오는’ 리템션(redemption, 속량, 대속, 무르는 것)의 개념이다.

인간의 짓값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효력을 실제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참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마귀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그것은 영수증도 없이 물건을 바꾸려는 것과 다름없다.

가끔 보면 예수님의 실재성을 믿지 않으면서 구원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한 착각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마귀에게 나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선행? 양심? 그런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만 ‘약속 어음’은 비로소 ‘현금’이 된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예수님이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 놓으셨어도 믿어야 실체가 되고 나를 보장하는 증명서가 되는 것이다.

이보다 쉬운 것은 없다. 하나님이 “네 죄는 어찌고 내게 구원을 바라느냐?” 하고 물으실 때도 우리는 예수님 핑계(?)를 대면 된다.

“저는 죄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3

이것이 바로 전가(轉嫁)의 원리다. 책임 전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짐승을 희생시켜 인간을 보호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임시로 죄를 제거하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이 희생 제사는 메시아가 단 한 번 드릴 영원한 제사의 리허설이었다.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히 9:26)

죄를 남에게 돌리는 구약의 희생 제사는 짐승을 찢러 피를 내고 불에 태운다. 그러면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한다. 내가 그 제사를 안 드리면 이 짐승처럼 찢리고, 피 흘리고, 지옥 불에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안 해주셨으면 내가 찢리고 고통을 당하여 피를 다 흘린 뒤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낙원에 가셨지만) 지옥 불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남 탓도 못하고 안 믿겠다면 양심 불량이다. 그런 사람을 살려 줄 방법은 전혀 없으며,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을 택한다 해도 그의 자유 의지

를 제한할 법이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이여, 당신들에게도 남아 있는 남 탓하는 습성을 돌아보라. 그리고 여전히 못된 버릇과 악한 생각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보라. 누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는가.

세상에 법정이 있는데도 억울한 사람 투성이다. 거대한 절대자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 아닌가. 죽으면 끝인 이 세상에 이토록 복잡한 감정과 의미와 정신적 요소들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더 진화된 짐승의 일종이라면 왜 유일하게 말과 글을 사용하고, 생각을 하며 모두가 종교적 본성을 지녔겠는가.

정 믿음이 안 생긴다면, 아파트를 살 계획이 없어도 혹시나 해서 청약을 붓는 이들처럼이라도 일단 구원은 받기를 바란다. ‘파스칼의 내기’처럼,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손해 볼 일이 없지만, 안 믿었는데 모두 사실이면 영원한 지옥 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테니 말이다. 물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수준의 생각에 머물 수는 없지만, 요지부동인 불신자들이 오죽 답답하면 파스칼이 그들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겠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 내가 지불할 수 없는 빚을 누군가 대신해 주겠다면 체면이고 눈치고 없이 받으면 된다. 빚을 갚아줄 분, 메시아 예수님이 애타게 부르신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구원은 일단 받는 거다. 염치 불고하고 받아야 한다. 나중에 말고, 바로 지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 6:47)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벧전 3:18) 

'구원 취소' 교리에 썩기를 박는 성경 구절은?

구원 취소 교리를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99마리 양의 비유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눅 15:4~6)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7절)

여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들은 이미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repent) 필요가 없다. 집 나간 양만 찾으려면 되듯이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 돌아오면 즉시 기쁨이 된다는 뜻이

라는 것이다.

나머지 99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회개가 필요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이 꾸미는 말은 ‘기쁨이 있으리라’가 된다. 의인들도 물론 하늘의 기쁨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해질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의인이 되면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한다. 이후로 부족하여 죄에도 빠지지만, 그것은 뉘우침과 자복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다시 잃은 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악용해 일상의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 회개는 물론 구원 얻는 회개, 즉 돌이킴을 뜻한다. 구원은 반납하고 싶어도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고후 7:10, 흠정역, KJB)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For godly sorrow worketh repentance to salvation not to be repented of: but the sorrow of the world worketh death.

(고후 7:10, 개역개정, ESV)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For godly grief produces a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without regret, whereas worldly grief produces death.


이처럼 제대로 된 구원관으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모순이 없다. 물론 아무리 성경 구절을 제시해도 인정하기 싫으면 동원할 만한 구원 취소

를 연상시키는 구절도 있다. 하지만 바른 성경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구절이 구원의 영속성을 지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원리와 사랑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복음이 불안의 소식이 아닌, 말 그대로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받는 즉시 영원히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QT집을 보니 99마리의 양이 회개할 필요 없다고 뻔대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 봤다. 이걸 국어 실력의 문제다. 그러면 주인이 그들부터 챙겨야지 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가? 그리고 하늘에서는 왜 그 한 마리가 ‘더’ 기쁨이 되는가? 99마리는 이미 하늘의 기쁨이다. 어떻게든 구원이 확정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다.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면 성도들이 해이해질까 알아서 걱정하느라 성경 해석은 물론 기초 문법까지 뭉개버리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성경을 보면 구원 취소에 췌기를 박을 수 있는 구절이 많다.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다. 아무튼 주님이 들려주신 99마리 양의 비유는 분명하게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행위'와 '행함'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는?

예전에 쓴 구원 관련 글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의문을 제기했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과 '행위구원'을 말할 때의 '행위'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행위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행동이고, 행함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산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는 구원 문제에 신중하려는 시도를 존중하고, 가볍게 얻는 구원론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나태함을 경계하는 모든 목소리는 타당한 경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내가 무언가 보태야 한다면 그것을 선물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이며, 주신 분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겸양은 불필요한 것이다. 감사히 받는 것과 이지 빌리비즘(easy believism)은 구분돼야 한다.

일단 이 문제는 개역성경으로 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데, 번역이 부실한 성경을 가지고 민감한 교리를 세우면 위험하다. 한국에 기독교 이단이 많은 이유는 '귀신', '주의 신' 같은 잘못된 단어로 번역된 성경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으로 교리를 확정한 이단들은 오역이라고 알려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이 개정되면 오히려 당혹해하며 옛날 성경만 고집한다.

1. 행위 vs. 행함

그러면 행위와 행함은 정말 다른 것인가? 구원에는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한국말로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야고보서 단어도 ‘행위’가 맞는 것이다. 흠정역은 ‘행위’, 개역성경은 ‘행함’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흠정역)

Even so faith, if it hath not works, is dead, being alone. (KJB)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개역)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NIV)

흠정역은 영어의 work(그리스어 εργον)를 ‘행위’(간혹 ‘일’)로 비교적 일관되게 번역했다. 성도가 하는 ‘일’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현대 영어 역본의 action을 ‘행함’으로 번역했다. 액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다.

‘행위’, 즉 work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무수하게 등장하는데, 다음 구절에서도 흠정역은 ‘행위’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흠정역)

Ye see then how that by works a man is justified, and not by faith only. (KJB)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개역)

You see that a person is justified by what he does and not by faith alone. (NIV)

여기서 개역성경은 2장 17절과 같이 ‘행함’이라고 했지만, 현대 역본 NIV는 action이 아니고 does(do)이다. 믿음만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do your best(최선을 다해라), do the right thing(똑바로 살아라, 옳은 일을 행하라) 할 때의 행동이니 행함이 맞는다.

이렇게 번역이 다르긴 하지만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개역성경은 일관성 없이 action도 do도 ‘행함’ 또는 ‘행위’로 뒤죽박죽 번역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행위’는 마치 인위적인 행동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개역성경에도 ‘행위’는 그런 구분이 없는 단어로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흠정역)

I know thy works, and charity, and service, and faith, and thy patience, and thy works; and the last to be more than the first. (KJB)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개역)

I know your deeds, your love and faith,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are now doing more than you did at first. (NIV)

개역성경이 여기서는 do를 행위로 번역한 것이 보인다. 또 한 곳은 deeds를 ‘사업’으로 번역했는데, works, 일(事業)의 개념과 같다. 흠정역에도 ‘행함’이 나온다. 흠정역은 do를 일관되게 ‘행함’으로 번역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흠정역)

For it is better, if the will of God be so, that ye suffer for well doing, than for evil doing. (KJB)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개역)

It is better, if it is God's will, to suffer for doing good than for doing evil. (NIV)

이 구절은 흠정역과 개역성경의 ‘행함’과 ‘do’가 모두 일치한다.

2. 행위(work, 일)의 중요성

살펴본 것처럼 행위와 행함은 한국어상 대단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것이다. 일(work)이라는 의미의 ‘행위’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후 자기 구원을 행위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런 척만 하거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다음 구절을 보면 개역성경처럼 구원이 어떤 좋은 행동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여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흠정역)

Wherefore, my beloved, as ye have always obeyed, not as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KJB)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개역)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NIV)

개역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일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뜻이다. 신국제역(NIV)도 이 부분은 같은데 개역성경만 이렇다.

행위(work)가 성도의 본분임은 성경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계 3:8)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계 3:15)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행위, 즉 일에 대해 칭찬하거나 책망하신다. 행함이나 행위라는 말 자체에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뜻이 내포돼 있지 않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하시더라. (계 14:13)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행위가 뒤따랐다. 그 행위는 무엇인가? 바로

앞 절에 나온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12절)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이다.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행실이 있어도 소용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계 20:12~13)

흰 왕좌의 심판에서 영원한 불 호수로 가는 자들도 모두 자기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이다. 7년 대환난 끝부분에, 온 세상을 속이고 마귀의 하수인이 된 음녀도 심판을 받는데, 그녀의 행위에 따라 받는다.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 주라. (계 18:6)

3. 행위(일)의 평가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행위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난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흠정역)

But why dost thou judge thy brother? or why dost thou set at nought thy brother?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KJB)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개역)

You, then,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Or why do you look down on your brother?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NIV)

심판대가 아니라 자리(seat), 심판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것을 바꾼 현대 역본은 꾸준히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시키는 성경이다. 아무래도 심판은 예수님보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 같은 모양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다(고전 3:11~15).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뒤에 한 ‘일’들이 진짜였는지 헛것이었던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난다. ‘일’은 대단한 성과나 혁혁한 공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들이다.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은 것부터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행한 모든 자발적인 일들이다.

NIV도 work로 번역했는데, 개역성경은 ‘공적’으로 번역했다. ‘공적’은 무언가 업적을 세워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죽기 전에 직분도 받고, 뭐라도 해 놓으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개역개정 이전의 개역한글은 ‘공력’이라고 했다. 마치 무술의 내공이나 불교에서 물질을 많이 바쳐서 공덕을 쌓는 이야기 처럼 들린다.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했어도 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사람은 오직 쓰임을 받은 것인데, 쓰임받은 후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보다 큰일을 안 해도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향해 있고, 진심이 있다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행함이 부실해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자리이며, 흰 왕좌의 심판처럼 정죄의 심판 자리가 아니다. 잘못을 책망하거나 등급을 나눈다는 말씀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행위는 일(work)이고, 이것은 보상을 결정할 뿐 **구원에 소용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나 행함이나의 차이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개념을 흔들리는 것과 혼동하거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유한성에 갇혀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두 단어가 풀리지 않는다 해서 그 단어를 기준으로 커다란 원칙을 수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성경 단어가 일관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려면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필수적이다.

관성 때문에 계속 불완전한 성경에 매인다면 깊이 연구할수록 더 이상한 교리에 매몰되고 말 것이다. 크리스천의 모든 문제는 아무리 주변을 뱅뱅 돌아도 당연히, 결국 '성경'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

킹제임스 흥정역의 완료형 표현이 주는 은혜와 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만일 다 이루었다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다 이를 것이다.”

“다 이루느니라.”

이것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여전히 마귀와 싸우시거나 죄를 끝내기 위해 애쓰시는 중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테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모든 죄를 제거하신, 이미 완료된 일이다(요 1:29).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죄 사함이 믿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거나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사람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며, 언제까지나 평안함이 없을 것

이다.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 번역의 가장 기본인 ‘시제’를 마음대로 바꾼 번역본이 있다. 왜 굳이 알아서 바꿨을까.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사람들도 많겠지만, 잘못된 시제가 신학과 교리, 성도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 4: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별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3, 개역)

‘드러나 있다’라는 표현이 개역성경에는 ‘드러난다’로 되어 있다. 마치 드러나고 있거나 장차 드러날 것처럼 들린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분의 권능 아래 있음을 뜻하는 것이 핵심이라 시제가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이미 창조된 상태이니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다.

다음 구절은 문제가 조금 다르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는데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벧전 5:12)

여기 ‘너희가 서 있느니라’는 이미 서 있다는 서술문인데, 개역성경에는 ‘굳게 서라’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벧전 5:12, 개역)

그러니까 아직 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속 무언가 해야 하는 상태라는 말이다.

자, 이제 점점 심각한 사례가 등장한다.

성도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상속자로서는 원래 권리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한 뒤에 친아들이자 장자인 예수님의 형제인 ‘양자’의 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직분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완료된 성도의 상태이다.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도다. (벧전 2:5)

그런데 개역성경은 ‘되셨도다’라는 서술이 ‘될지니라’로, 역시 명령형으로 번역돼 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벧전 2:5, 개역)

아직은 아니니까 앞으로 되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당연히 혼동이 온다. 벌써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한테 되라고 하니 말이다. 이미 다시 태어난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 되거라.” 하면 또 어떤 자격을 얻어야 아들이 되는 것일까.

갖가지 우상 숭배와 민족적 신앙심의 바탕 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초기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아마도 이 완성된 형태의 신앙에 수긍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끝없이 도를 닦아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진리와 득도의 길이고,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사투를 벌여야 겨우 같까 말까 같은데 감히 우리가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니...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도 이걸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구원과 성화를 혼동한 것이다. 사실상 완전한 성화는 살아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완벽한 상태가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은 '영존하는 삶'을, 성화는 '보상과 상급'을 각각 가져다 준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직분이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이런 개역성경의 번역은 왜 개정판이 나와도 매번 굳건히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다 하면 나태해질까 봐 알아서 그러는 건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처소, 즉 성령님의 전으로 세워진 자들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 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엡 2:20~22)

그러나 여기 '세워져 있느니라'를 개역성경은 '지어져 가느니라'로 번역하고 있다.

...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0~22, 개역)

이런 성경을 지니고 읽는 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죽을 때까지 세워져 가는 것, 즉 완성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성도를 집으로 삼으시는 것은 구원 후 즉시이며, 성화의 완전함이 확인된 이후가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골 3:10)

과거형인 ‘새로워진 자니라’ 이 부분도 개역한글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다. 새롭게 하심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즉각적이며 완전한 것인데, 우리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설임 번역이 아닌가 싶다. 다행히 개역개정에는 정확히 과거형으로 고쳐져 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 3:10, 개역개정)

바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지식을 준다. 우리 입맛에 맞아서 바른 성경이라는 게 아니다. 그대로 전달되는 성경이 좋은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두려움이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딤후 1:7)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 비참함을 느끼고 절망하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구원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일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은혜 안에 서 있다.” (벧전 5:12)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벧전 2:5)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있다.” (엡 2:22)

“새로워진 자이다.” (골 3:10)

이런 표현들은 다음의 표현들과 같은 맥락으로 시제가 동일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갈 2:20)

“십자가로 이기셨다.” (골 2:15)

“구원을 받았다.” (엡 2:5)

“다 이루었다.” (요 19:30)

이미 다 이루셨고, 내가 그분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롬 8:1)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며, 그것을 실천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분명히 알려 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쓴다고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어가 그대로 전달된 성경,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은 성경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는다. 킹제임스 흠정역의 완료형 시제로 된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될 것이다. 📖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Part

4

답을 찾다

‘구원의 영속성’이 안 믿어져요

구원의 영속성에 관한 히브리서 3장의 난제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구원받는다? (막 8:35)

율법이 양심이 된다고 하던데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인가? (고전 9:27)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구원을 잃는다는 것인가? (롬 11:21)

포도나무를 떠나면 불에 던져지나? (요 15:1~6)

죄, 돌이킴(회개), 구원의 확신 Q & A

'구원의 영속성'이 안 믿어졌어요

Q.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 안일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지만 구원의 영속성 교리는 나태함을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A. 구원의 영속성 교리,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아직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이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구원이 끝까지 지켜질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 취소'의 개념은 칼빈주의 구원 예정설에 대항하는 알미니안주의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예정론이 불러온 안일함과 나태함을 경계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정설이 완전치 않다 해서 구원 취소의 교리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 구원 취소의 개념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는 있어도 구원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

다. 그러면 죄성의 육신으로 방종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는 안일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이런 자기 편의주의로 구원을 이용하는 종파나 개인들 때문에 '구원의 영속성'이라는 귀중한 교리가 의심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을 믿는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구원은 '답정너'의 문제

구원 문제로 씨름을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대개 자신의 경험과 성경에 대한 오해가 버무려진 것들에 자신의 성향을 더해 판단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 사람을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은 각자의 신앙에 관한 것이지 구원의 교리를 개인마다 다르게 주시거나 여러 모양으로 허락하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구원의 영속성 원리를 확정하시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정너', 즉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대답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을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몇 개의 애매한 구절로 전체를 판단하거나 잘못 이해한 교리로 두려워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성경이 지지하는 '구원의 영속성'

성경에는 많은 단서가 나오고 다양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구원의 일회성과 영속성을 지지하는 구절이나 원리는 그 반대편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100개 중에 98개 이상의 사건과 구절을 통해 이 구원의 영속성과 안전 보장을 말씀합니다.

한두 개 미만의 구절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100가지 중 95개 이상이 지지한다면 대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나머지는 참고 사항이거나 애매한 표현들일 것이므로 95개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풀고, 왜 그런 반대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지 이해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컨대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마음이 절실하다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가 받는 저주로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왜 말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열망이 크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듯한 몇몇 구절들은 가정법과 강조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적 원리를 은혜 시대에 마구 대입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들이 전부인데, 이런 해석상의 문제는 성경을 시대와 수신자에 따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

한 구절만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잃은 양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 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눅 15:7)

자, 여기서 특이한 표현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를 짓죠. 단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장 아무 죄안 지은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으며, 내 행동과 말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위 구절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으로 보아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무리가 그런 의인인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회개가 필요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이 표현에는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정산이 끝난 어떤 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서 이루시려던 왕국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로 무산되었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마지막 날에 **천년 왕국**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이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보여 주는 비유이자 설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매일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왕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으로 죄를 짓지만, 그리고 그 죄를 매일 자복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회개, 즉 돌이킴은 한 번이면 족하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한번 바꾼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었다면 다시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엄중한 문제

인간에게 죽음이 임한 뒤에 그 누가 그것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하지 않으신 일이며, 희생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바꾸신, 어떤 불문율이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어진 생명이 어떠한 조치나 법칙도 없이 사람의 사소한 잘잘못이나 판단 착오, 육적인 넘어짐으로 인해 뻘뻘 뒤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비웃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간의 뜻대로 이것이 뒤바뀐다면,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거추장스러울 때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물 앞에 서성대는 어린 자식을 안전한 곳에 데려온 부모가 다시 그곳을 얼쩡거리게 놔둘까요? 아이는 다시 그곳이 가고 싶어 할 수 있어도 부모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이가, 나 거기서 계속 놀 건데 왜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느냐고 울고불고 떼를 쓰며 졸라도 다시 우물가로 데려다 놓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죄의 피난처로 이용하거나 방탕의 기회로 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넘어지는 비참한 육신을 저주할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늘 점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맺으신 영원한 약속과 구원을 지키시는 안전 보장을 믿어 보십시오.

구원이 '선물'인 이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엡 2:8)

구원이 왜 선물입니까?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호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호의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호의는 바로 그 선물, 구원입니다. 선물은 줬다 뺏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 선물을 애지중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에 대해 더 감사하는 자가 있고, 선물의 의미를 하찮게 여겨 금세 감사를 잊는 자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큰 실례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를 의심하고 거절해서 주는 손을 무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내게 명절 선물로 귀한 한우 세트라도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금괴라도 보냈다고 칩시다. 너무 큰 선물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한 번쯤 의심하며 전화를 걸어 비서에게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도 이걸 내게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래도 의심하고, 반품하고... 다시 온 것을 또 방치하고 의심하고 하다가 썩히고, 또 반품하고... 그런다면 선물을 보낸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귀는 오늘도 끝없이 이간질합니다.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구원을 영원히 주신다고 생각해?”


“어떻게 뻔뻔하게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너는 오늘도 백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나 회개했나?”

구원 이후의 방종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삶을 개선하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입니다. 뿌리를 흔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구원을 점검하되 우리를 향하신 놀랍고 소중한 선물을 의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구원’은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말입니다. 그 말을 매번 붙이지 않는다 해도 그 속성이 달라 지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eternal salvation)의 창시자가 되시고 (히 5:8~9) 

구원의 영속성에 관한 히브리서 3장의 난제

Q. 히브리서 3장의 표현들이 구원의 취소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14절은 마치 구원이 죽을 때에 결정되는 것 같은 구절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구원의 영속성을 믿는데 이 구절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A. 히브리서 3장을 보다가 질문을 보내신 분이 있어서 함께 나눠 봅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의 궁금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구원의 영속성과 안전 보장을 굳게 믿고 전하지만 때때로 드는 의문이 있고,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절망적이라서 그런 것일 텐데요. 그 절망이 지나치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죽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구원 교리에 세뇌되어 다른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점검하며 주님의 약속을 이성과 감성으로 확인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1.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질문하신 분이 제기한 몇몇 구절을 얼핏 보면 마치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역성경으로 3장 14절을 보면 그런 의심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 3:14, 개역)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니 의아할 만도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나 믿음에서 길을 잃는 자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 수 없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의견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율법 아래에서 자라고 공부하여 누구보다 유대인을 잘 아는 유대인이 바울이었습니다(행 22:3).

그러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견고히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잡는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행위를 채우는, 일정 수준의 바른 행실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제시할 수 없고, 구원에 용납되는 수준을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며, 속 중심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죠.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잃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자주 말씀합니다. 믿음 +

행위를 말하는 주재권 구원(Lordship salvation)이나, 믿음과 행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새로운 신학 이론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 지옥 가는 것과 육신이 죽는 것

그러면 3장 전체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2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같이 하셨느니라.

3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 그 이 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자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영웅인 모세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라.

마치 ‘집’처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5 또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6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써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니라.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끝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격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9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며 사십 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11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나니)

성령님은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 옛날 조상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했던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2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13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런 내용이면 지옥에 간다거나 구원을 잃는다는 표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은 자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면 성경은 아주 여러

번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경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애매하게 숨겨 놓지 않았겠지요.

반대로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면 어땠을까요? 막 살아도 된다는 생각에 갖은 방종과 나태함으로 인간은 정말 가관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부류의 교파가 있어서 물의를 일으킵니다.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오는 피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의 영속성을 말하지만 경고의 구절도 많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신학과 그릇된 번역으로 보면 구원을 중도에 잃는 것처럼 혼동하기 쉽습니다.

문제의 13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가 아닌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박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자인 후메나오와 알렉산더(딤후전 1:20), 빌레도(딤후 2:17), 고린도 교회의 음행자(고전 5:1, 5)는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으로 간 데마 같은 자도(딤후 4:10) 구원을 잃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느냐고 생각되지만,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로 치면 성도들 모두가 짓는 죄와 동일합니다. 그들도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죄와 불순종으로 하늘의 보상을 잃고, 하나님의 사역에 누를 끼쳐 육신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땅에서 평안히 사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4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For we are mad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the beginning of our confidence stedfast unto the end: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붙드는 자들이 **이미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made라는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은 구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 3:14, 개역)

‘**되리라**’로 끝나는 이 문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일이 미래에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감추시며 (골 3:3),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15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16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17 그러나 그분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해서가 아니었느냐?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그 옛날 광야에서처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육신이 죽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집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3. 비유와 예표와 교리의 차이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 광야 생활 - 가나안 입성을 교리로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해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이들만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자들만 천국에 간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롬 15:4). 당시의 일들은 교리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상징과 예표는 각각의 일화를 끊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첫 새끼들을 죽음의 사자가 칠 때,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 즉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명령을 지킨 자들은 다 살아서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월절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는다 해서 그들이 구원 취소의 예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리적 예표가 되려면 그들이 다시 이집트 노예로 돌아가게 됐어야 합니다. 그들이 “차라리 남을 걸...” 하고 희망했을지라도 결코 **아무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의 약속과 효력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뱀을 보면 살고, 안 보면 죽었습니다. 이 일화 역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죄의 바이러스를 이겨서 구원받고, 무시한 자는 뱀의 독에 죽는다는 것인데, 이 에피소드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지, 믿고 탈출한 자들이 구원을 취소 당해 지옥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이 천국을 예표한다면 모세와 아론 등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때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만 하라?” 하며(민 20:10) 교만과 혈기를 부렸다 해서 그가 지옥에 간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모세는 그 시신조차 천사와 마귀가 다룰 정도로(유 1:9)

중대한 인물이며, 예수님이 계신 변화산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눅 9:30). 그는 단지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육신적 축복을 제한당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일종의 징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때 믿음으로 다 구출받은 자들이라면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도 **육신이 죽는 징계**를 당한 것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불순종의 대가로 오랜 시간을 뱅뱅 돌다가 결국 꿈에 그리던 땅을 누리지 못한 것일 뿐 이집트로 강제 귀환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며 이집트를 그리워했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혈기를 부렸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간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상의 개념을 넓게 보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교만도 육신을 지닌 한 우리가 떨치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또한 육하는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 취소를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성도가 믿음을 떠나 마음이 강퍽해지면 징계를 받고, 내면의 평안을 잃으며, 받을 축복과 상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4. 시간의 제한된 틀에서 바라보선 안 돼

그런데도 자꾸만 저런 구절들이 조건절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믿기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나중에 쟁취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얽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 시간대를 한 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벧전 1:2). 그러므로 진실하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끝을 아시고 미리 결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

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행실로 판단하겠다면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뒤의 삶을 마치 시험 기간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학교 입학으로 보고 사망 후 천국을 졸업으로 보면,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입학은 했으나 졸업은 못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자도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 관점은 인간에게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을 미리 알려 주면 인간은 방탕하게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을 잃는 두려움을 갖기 전에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것은 맞는지, 혹시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축구 경기라고 칩시다.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경기든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녹화 방송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뛰는 선수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긴 경기다.”라고 알려 줘도 열심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지만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확신을 갖고 달립니다. 이긴 경기라고 해서 그라운드에 누워 있으면 이길 수 없으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기 결과를 알려 줘도 의심하고, 그럴 리가 없다면서 조바심하고, 내 힘으로 이겨 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안전을 믿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로 인간적 시점에서만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오직 믿음만으로 판단하시는 주님

이렇게 결과를 미리 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지 알아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의 유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18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19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늘 자기 생각과 행위구원을 말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을 씻는 일이지 매번 침례로 온몸을 담그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 13:10~11)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자이며 다른 제자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깨끗한 자로 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

두 허물이 많았지만, 배신으로 취소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모든 곳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물론 가룟 유다가 있기에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깨알 같고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회심했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나중에 좌충우돌할 것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대부분 도망친 겁쟁이들이었지만 이미 깨끗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점점 행위구원이라는 배교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마치 취소되는 것과 같은 성경 구절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쪽으로 솔깃해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부도덕하고, 교회들이 실망스러워서 그렇게 기우는 것이니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리의 변개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구원으로 돌아서는 것은 그야말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다시 군림하는 성직자들과 교회 세력의 지배를 받던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애쓰고 고행을 해도 죄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중세에 가톨릭에서 사제 독신주의를 강요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정욕을 피해 산으로 광야로 피했다지만, 교황조차 사생아가 여럿 생기고 수녀원은 마치 집창촌처럼 되었다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작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은 온몸을 가시덤불에 굴리며 상처를 냈고, 키리타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찾아온 마귀를 보고 불붙은 나무로 자기 팔을 빼가 보일 때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고드릭은 살얼음을 깨고 강에 들어가 밤을 지새웠으며, 코스모는 썩기풀로 자기 몸에 도리깨질을 했다고 합니다. 『성직자 독

신주의의 역사』(1884)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 역시 아무리 애써도 죄가 사해지는 것 같지 않아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고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지만, 일생 동안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고행과 선행과 헌금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끗한 자로 선언하신 것입니다(눅 23:43).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신부로 정혼했다가 아내가 된 자들이 흰 아마포(세마포)를 예비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계 19:7~8)

개역성경에는 ‘옳은 행실’로 나옵니다. 그러나 ‘옳은 행실’이 맞는 번역이라 해도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데 소용되는 옳은 행실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 즉 칭의로 얻은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실 서두부터 이미 거룩한 형제들, 이미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9)

만일 죽어 봐야 구원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1. 구원받은 성도의 넘어짐은 지옥과 무관하다.
2. 인간의 유한한 시점으로 구원의 프로세스를 바라보면 안 된다.
3. 행위는 천국이나 지옥과 무관하며, 천국 가는 옳은 행실은 오직 믿음뿐이다.

구원의 영속성과 안전 보장을 무작정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을 때때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고, 확신 속에 감사하며 평안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100%일 수는 없겠지만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우리에게 구원의 '난제'란 없을 것입니다. 📖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구원받는다? (막 8:35)

Q.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변 지인 중 한 분이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구원받으려면 자기 목숨을 내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A. 마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에 대해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막 8:35)
For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but whosoever shall lose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the same shall save it.

개역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막 8:35, 개역)

그러면 어떻게 목숨을 던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특히 오늘날은 복음을 위해 죽기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죽도록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과로사로 죽어야 할까요? 공산 국가에 전도하러 갔다가 순교해야 할까요?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전도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저 말씀을 진짜 죽어야 구원받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단에서 퍼뜨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하긴 애매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마가 복음 8장 35절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몇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이 말씀의 정황과 베드로의 착각

우선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보아야 합니다. 한 구절만 떼어서는 이해가 어렵고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이런 수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존경받는 대권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거만 치르면 당선되는 상황인데 후보 사퇴를 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막 8:31)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자인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으면 꾸짖기까지 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으나 (막 8:32)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우리 민족을 적의 손에서 건져 주실 분이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으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막 8:32~33)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탄과 입장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막 8:34).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길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문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막 8:35)

앞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이제 조금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것’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또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자기 생명(목숨, life)을 구원하려 하는 일은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는 일**’을 말합니다.

2.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일'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육신의 죽음이나 어떤 곤경에서 '구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나 그분께서는 주무시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 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마 8:24~25)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출 15:2 상반)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구출하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리라. (시 37:40)

이런 부분은 환난과 위기에서 건져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도 천국 가는 구원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도들이 흔히 생각하는 '구원'과 그들이 사용한 '구원'을 매번 동일시하면 교리적 오해가 발생합니다.



기도하는 다윗.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단순한 구출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예수님의 육신적 생명을 지키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해 구원 사역을 무효로 만들게 되면 못 박히지 않아도 되고 몸은 살아 있겠지만 결국 죄의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고 결국 (베드로처럼 방해하여) 그 일을 망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루시려는

구원 사역을 믿지 않은 것이니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사는 현 상황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막 8:38)

예수님은, 이 중차대한 거사를 앞둔 시점에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부끄러워하며 꾸짖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 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르치길 바라는 사탄 마귀의 열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3.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죽는다는 것,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무척 비장하고 숭고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의 죽음 같은 것은 매우 값지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도 했습니다(요 15:13).

그러나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육신의 죽음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신 유언, 새 언약) 시대로 전환되기 직전인, 엄밀히 말해 아직 구약 시대인 시점에서 베드로가 이해하기는 무리였던 사건입니다.

이런 혼동은 공관 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혼란입니다. 이와 같은 교리적 문제들을 해설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 11:25~26)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장막 안에 있으나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 2:20)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그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3:3)

신약 성도는 공관 복음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과 같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질문이나 과도기적 사건들에서 구원 교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믿음 이외에 더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은혜 시대(교회 시대)까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을 알 수 없었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베드로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이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게 하려 하신 고귀한 목적을 저버리는 신앙적 영웅주의이자 교만에 지나지 않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롬 14:8~9) 📖

율법이 양심이 된다고 하던데요?

Q. 성경에는 율법이 양심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바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에 의해 판단받고 선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근거 구절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롬 2: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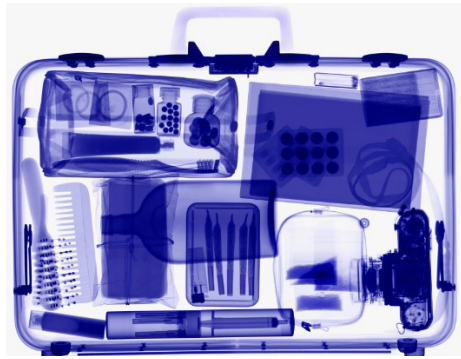
하지만 ‘율법’ 대신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니,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고 비춰 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스캐너처럼 죄를 낱낱이 드러내 줍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도 거기까지입니다. 판사는 법에 의거해 죄를 규정하고 판결하지만 피고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직접 치르거

나 누군가 보석금을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스캐너는 아무리 샅샅이 읽어 낸다 해도 읽는 것까지가 한계이듯이,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양심도 역시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지만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율법과 양심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완벽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구원자가 필요 없는 이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며 앞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 중심(?)까지 읽어 내는 공항 검색대의 스캐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갈 3:17)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죄인이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바로 그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 줄 구원자가 없다면 아무리 양심이 깨끗해도 판사의 판결은 뒤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노력한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흩어진 땅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자기 마음의 법을 세워 하나님을 대체하는 큰 죄를 지으며 정착했습니다. 그들에

계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평함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의 법칙에 따라 죄를 씻으며 영원한 구속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는 마치 불법의 사람들을 명분 없이 사면해서 준법을 위해 애쓴 시민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 것처럼 공의롭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한 법에 의해 죄에서 해방되는데, 그 법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롬 8:2). 📖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인가? (고전 9:27)

Q.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A. 사도 바울은 육신이 자신을 거슬러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을 가리켜 ‘비참한 사람’이라고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백 퍼센트 공감할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라? (롬 7:21~24)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a castaway)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전 9:27)

개역성경에서 ‘내 몸을 쳐’라고 번역된 것인데, 천주교에서처럼 무슨 고행이라도 해야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도 제대로 얻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혹시 구원을 잃는다는 뜻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작은 개념이나 단어로 전체적인 큰 개념과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뒤집으려 해선 안 됩니다. 큰 원칙을 흔들지 않으면 예외로 보이는 말씀들의 해답이 보입니다.

버림받는다’는 흠정역의 번역은 개역성경과 현대인의성경도 똑같습니다. 공동번역은 ‘실격자가 되다’로 번역했고, NIV는 상을 잃는 것(disqualified for the prize)으로 번역했습니다. 일단 늘 실망시키는 NIV 같은 현대 역본조차 지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부정적인 표현이나 책망에 해당하는 구절이 나오면 **일단 구원 문제부터 연결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라는 말씀(계 3:16)을 보면서,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토해 낼 정도니 지옥행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지근한 자가 지옥이면 차갑고 냉랭한 자는 어디란 말인가요? 이런 구절은 온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 특성, 석회수 온천물이 당도할 때쯤에 미지근해져서 역겨운 상태가 되는 것을 들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또한 이 모든 말씀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즉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전달된 것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런 주의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어쨌든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들리는데, ‘버림받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를 신약에서 한국어로 찾아보면 몇 군데가 나옵니다.

reject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눅 17:25)

But first must he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of this generation.

여기에도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reject는 거절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reprobate

한편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딤후 3:8)

Now as Jannes and Jambres withstood Moses, so do these also resist the truth: men of corrupt minds,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이 부분은 미련한 여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꾀에 빠져 포로가 되는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말하자면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reprobate로 표현된 이 부분은 처음부터 구원과 상관없는 버려진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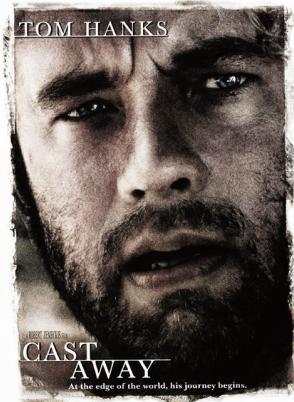
castaway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전 9:27)

그런데 오늘 주제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castaway를 쓰고 있습니다.

But I keep under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lest that by any means, when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a castaway. (KJB)

버림받은 자를 ‘캐스트어웨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잘 알려진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캐스트 어웨이>(2000)가 떠오릅니다. cast away는 버린다는 뜻이며, 명사로는 ‘표류자’, ‘조난자’라는 뜻입니다. 영화에는 버림받는 것과 표류하는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지옥에 보낸다기보다는 내버려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롬 11:1~2)

I say then, Hath God cast away his people? God forbid. For I also am an Israelite, of the seed of Abraham, of the tribe of Benjamin. God hath

not cast away his people which he foreknew. Wot ye not what the scripture saith of Elias? how he maketh intercession to God against Israel saying,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미리 아신 자들을 예비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표류자(a castaway)는 당장은 잃어버린 자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은 먼저 소속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마귀의 소유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팔려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 주신 뒤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때부터 ‘잃은 자’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주인공은 무인도에 오랜 세월 머물렀지만 결국 발견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난된 상태로 있을 때도 그는 실종자였을 뿐 신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치한, 즉 내놓은 자식처럼 포기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shipwreck

신약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지옥으로 보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자에게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이 더는 보호를 받지 않도록 하여 늘 사람의 혼과 육체를 해하려고 노리는 사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육신’을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잘못된 본을 보이지 못

하도록, 더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악한 음행자를 쫓아내지 않자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전 5:5)

이미 그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받을 상이 없는 구원이지만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후메나오와 알렉산더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나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신성모독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딤후 1:19~20)

Holding faith, and a good conscience; which some having put away concerning faith have made shipwreck: Of whom is Hymenaeus and Alexander; whom I have delivered unto Satan, that they may learn not to blaspheme.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양심을 놓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파선이란 배가 부서져 난파되는 것인데, 배가 파선되어 조난을 당해 본 경험을 지닌 바울이 믿음을 여기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고후 11:25). ‘버림받은 자(표류자)’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을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뿐, 구원을 잃는다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양

심을 지키며 살라고 남들에게 실컷 가르친 사람이 스스로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같이 믿음에서 파선해 표류하는 조난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육체의 정욕을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생명을 얻기까지 하늘에서는 엄청난 전쟁과 산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인 신의 본체가 인간이 되시고 그 피의 값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까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피를 주고 사 온 생명인데 사람이 잘못을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을 치르며 자신의 피를 흘리고, 대신 볼모가 되어 죽다 살아날 정도의 고난 속에서 얻어낸 아군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왕이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쉽게 내줬다가 도로 찾아왔다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왕이라면 결코 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9)

우리는 포로가 되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치른 전쟁에서 구출받아 왕의 양아들이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맏형은 왕의 친아들입니다. 그와 똑같이 왕이 우리의 생명을 감추고 절대 적에게 다시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얻을 때처럼 잃을 때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고 우주의 법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고난이었지만 그 후대는 편안히 사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을 이루기는 어려웠지만,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쉽고 달콤하여 이미 먹은 뒤에는 어떤 원수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이 쉽다는 말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보탠다고 생각할 때 구원은 어려워지는데, 웬지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한 노력을 말한다면 당연히 찬성이지만, 구원 여부가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 자기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확신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구원이 맞는 것 같고,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느슨해 보인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남들에게 전한 대로 자신도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옥의 문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난' 자는 엄마의 태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늘 동일한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구원을 잃는다는 것인가? (롬 11:21)

Q.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는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A.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잘려 나갈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롬 11:21, **흠정역**)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롬 11:21, **개역**)

1. 구원에 대한 답은 왜 늘 평쾌하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받았던 사람도 실족해서 지옥에 가는 듯한 대목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기 구원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이 답이 늘 오리무중인가 하

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알려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만일 구원이 천국행 비자를 취득하듯이 명확하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지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은 심각한 오만에 빠지거나 타인을 우습게 보고 정죄할 것입니다. 지금도 타인의 구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이 빠듯할 때마다 취소된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죄성 때문에 전의를 상실해 자포자기하고 어차피 지옥 갈 테니 열심히 살 필요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표본이 되는 기독교 집단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균형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이 확신을 하면서도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하여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의 논리들은 두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 끝없는 논쟁을 유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논리가 모순처럼 서로 반박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맞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이 문제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 ① (바울이)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사실은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뜻) 내 민족을 구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한 강조와 가정법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경우
- ②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을 성도에게 적용하는 경우
- ③ 육신의 사망을 영혼의 멸망으로 혼동하는 경우
- ④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는 경우 등등...

2. 수신자는 이방인? 구원받은 성도?

그런데 질문에 제시된 로마서 11장에는 두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래의 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신 마당에 너희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버려지겠느냐는, 구원을 잃는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런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 11장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유대인]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이방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롬 11:20)

이것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알려 줍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격 조건이 아니라 그저 신분을 말하며, 오직 믿음으로 선 것이며 무언가 잘 나서 된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13절에서,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하게 여기나니 (롬 11:13)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이방인 전체**를 향해 보내진 ‘주님의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25절에서는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의 ‘이방인들인 너희’란 이방인 전체, 또는 이방인으로서의 특성 자체를 논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프로그램

그럼에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 민족인 자신이 이방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내 살붙이인 그들[유대인]을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롬 11:14)

이방인을 구원시켜 아직 돌이키지 않은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여겨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퍼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안 믿어서 버림을 받았으니 너희도 안 믿으면 버림 받는다는 것이죠. 불특정 이방인은 이미 믿음에서 있는 자들 외에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거든 그 가지들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롬 11:17~18)

이 부분은 구원받았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 즉 예수님의 다함없는 생명에 정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뜻입니다. 또 구원은 내가 좌지우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뿌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지탱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비’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롬 11:25)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의 유대인들을 마치 한 묶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그는 역사가 2천 년 더 이어질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유대인들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 (롬 11:26)

역사의 끝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개개인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려 나간 자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갔는데,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라고 부르시듯이 마치 한 사람처럼 전체 역사에서 대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사 43:1; 렘 46:27 등). 그러므로 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적은 무리와 전체 집단적 인격체를 동시에 거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때 불순종하던 (집단적) 유대인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한동안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돌아오듯이, (집단적) 이방인도 유대들의 넘어짐을 통해 기회를 얻었지만 잘못하면 넘어져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큰 물줄기 안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과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들은 이런 흐름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낙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과 관련이 없었지만 역사 속에서 갈렙^A이나 라합, 롯, 읍, 백부장, 수가의 여인 등과 같은 이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4. 이방인이 잘려 나가는 때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서 로마서 11장을 읽어 보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이해 없이 마치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한두 구절만 툭 떼어 다루게 되면 성경의 깊이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야말로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적 흐름 속에서도 개개인 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많은 부분에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안전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은 반드시 그대로 끝나지 않고 안전장치가 따라잡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롬 11:28~31)

A. 갈렙은 유다 지파였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했는데(민 32:12), 그나스는 에서의 자손(창 36:15), 즉 에돔 족속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불렀는데(마 15:26), 갈렙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이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거부 때문에 기회를 찾고 ‘공홀’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공홀이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잘려 나갔듯이 이방인들도 본래의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고 비웃다가 스스로 잘려 나가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경고한 그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배교이며,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딤후 4:1~2)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 하리라. (살후 2:3)

개역성경에 ‘배교(배도)하는 일’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본래의 가지들이 잘린 것처럼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세상인 대환난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결론

그러므로 원가지, 즉 본래의 가지인 유대인들이 잘려 나갔듯이 이방인도 잘릴 수 있다는 말씀은 이방인 전체를 향한 것으로 보아야지, 구원받은 성도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분은 혈통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종족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고전 12:13)

말씀을 쪼개고 정확히 영역을 구분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에 뜻을 돌이킴이 없듯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안전하며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듯이, 내 상태가 아무리 비참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구원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명제하에서 해석해야 오류가 적어진다고 믿습니다. 누구의 견해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믿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포도나무를 떠나면 불에 던져지나? (요 15:1~6)

Q. 포도나무를 떠나는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 취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A. 대개 이런 유명한 말씀은 개역성경 구절로 입에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역성경 요한복음 15장)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떠나면 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때 믿었던 자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수학 공식 같은 구원 교리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일 이 대목을 교리로 받아들이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리라고 해도 번역의 차이일 뿐 구원 취소는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상당 부분 무속적 신앙의 바탕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단번에 받는 구원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곳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영어 현대 역본 계열들에서 그대로 온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개역)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NIV)

분명히 ‘나를 떠나서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경을 읽다가 구원 취소를 떠올리는 것은 읽는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겠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 15:5, 흠정역)

I am the vine, ye are the branches: He that abideth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ringeth forth much fruit: for without me ye can do nothing.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고는 이어 ‘그가’ 내 안에… 라고 나오므로 특정인, 즉 ‘너희’를 지칭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가서야 개역성경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편 NIV는 ‘If a man…’으로 되어 있어서 ‘만일 무언가가 안 되면…’이라는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흠정역은 ‘나 없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롬 8:1~2)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의 개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단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큰 열매이든 작은 열매이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최소한 불에 태워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의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말씀이 구원 취소의 근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의 영속성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지가 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허울뿐인 신앙, 애초에 믿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원리에 그대로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른 성경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척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관된 답과 정확한 결과가 기다리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만큼 성경이 완전한 책이라는 확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시다. 세상 모든 성경들이 다 사실이면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한 폭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 없이는’ 이 ‘나를 떠나서는’이 되었을까요? ‘나를 떠나서는’이면 정말 고민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자주 주님을 떠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주님을 잠시 떠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약관이나 추가 설명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포도나무의 가지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꿀맛 같은지 읽어 보십시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제대로 믿은 사람이 영영 떠날 일이 있을까요? 행실이 부족해 좌절할지라도 바르게 믿은 자가 떠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이제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으로 이 말씀들을 봅니다.

(흥정역 요한복음 15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2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3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

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for without me ye can do nothing).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진리는 일관되어야 하고, 성경은 그 안에서 통일된 완전함이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런 때는 저렇고 하는 말씀, 사람이 원하는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각종 구절이 구비된 성경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 주신 바른 성경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

죄, 돌이킴(회개), 구원의 확신 Q & A

구원의 확신과 현재 상태에 불안을 느끼는 한 청년의 질문입니다. 마음속 갈등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동의를 얻고 공개 답변한 글입니다. 사실 늘 다루는 주제들인데,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고민을 한 가지씩 간략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1.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수준'의 문제

Q.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지만 그간 초심자에 가까웠고, 철이 들어 믿음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는데, 거룩하고 고상한 목적보다도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A.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지옥에는 우리 같은 크리스천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는데요, 저는 그곳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있고, 말도 안 되기 때문이죠. 불교의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두렵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지옥에 보내실 분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며, 구원은 그런 거룩함에 동참하는 매우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차원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철이 들기 전의 아이는 엄마 아빠의 회초리 때문에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언가 제대로 믿어 보려고 성경을 읽는다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2)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궁금하고 읽어 보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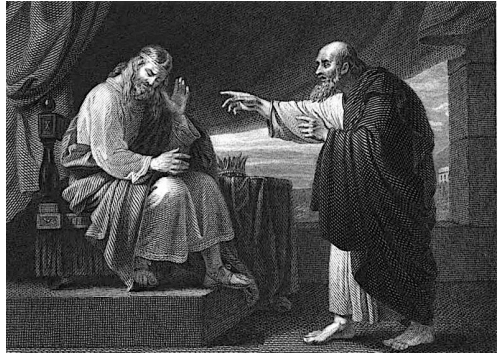
2. 매일 짓는 죄의 범위와 해결책 문제

Q. 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의도적인 죄, 사소하게 미디어와 세상 것에 빠지는 것부터,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품게 되는 음욕이나 본능적인 죄들을 다 어떻게 회개하고 고칠 수 있습니까?

A. 솔직히 죄를 다 피하거나 재발 방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고, 은둔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죄는 공기와 같은데, 숨은 쉬되 공기는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치다가도 돌아볼 수 있고 그

리는 사이에 오물이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완전 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죄 없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완전한 자입니다.



대언자 나단의 책망을 듣는 다윗의 삽화

권한 남용의 음행자이자 치밀

한 살인 교사자 다윗, 나사르 사람(나실인)으로서 음녀에게 자발적으로 속았던 삼손, 심지어 이방인이면서 창녀였던 라합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로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과는 인간의 입장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믿음’입니다. 그들을 의인으로 기술하는 단서가 나오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먼저 살필 일이지, 죄를 떠나는 것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문제만 확인하고 덮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믿음은 의롭다 하심만 얻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듯이 그 행함이란 실수 없는 무결점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속상해도 양보하고, 믿음 때문에 화가 나도 참고, 믿음 때문에 하고 싶어도 돌아서는 등 작은 일이라도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약 2:24~6)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창녀 라합의 행위는 믿음을 드러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직업관을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러낸 행위, 의롭게 된 증거가 바로 정탐꾼들을 도운 행위,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만으로 어떻게 알겠느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지요.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삶을 살아야 불안과 초조함에 매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리가 성경적이면서 합리적이라면,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그 열매는 구원의 안전성이라는 은혜를 이용한 나태함으로 흐르지 않고, 조금은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3. 자신 없는 '구원의 확신' 문제

Q. 부끄럽게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A. 부끄러워 할 일은 아닙니다. 받지도 않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보다는 끝없이 돌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구원 문제는 질문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느긋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느긋한 분들은 죄를 덜 지어서 그럴까요? 불안한 분들은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성향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느긋하거나 불안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세상 모두를 비추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칙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그 밖의 것들은 소용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른 요소들 때문에 느긋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으시는 부분 때문에 각자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과하거나 흔들려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 그 죄가 구원에 소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슬프고 불안한 것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속상한 것이고,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구원을 의심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실망시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실들에 의지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모든 빛이 지블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제거가 끝났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었으면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히 9:25~26)

구원의 확신은 교만도 자만도 아닙니다. 타인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것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고귀한 분에게 선물을 받고도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 의뢰를 하고 다닌다면 준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값싸게 만들지 말고, 무한 감사와 확신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4. 제대로 된 회개, 돌이킴의 기준 문제

Q. 구원이 회개와 믿음이고, 회개는 방향의 전환, 즉 돌이킴이라고 했는데, 그러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것인가요? 돌이킴의 기준은 어떤 것 일까요?

A. 일단 돌이킴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돌이킨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이것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제시한다 해도 어떻게 그대로 믿겠습니까? 자기 양심에서 어떤 이는 좀 더 엄격하게, 어떤 이는 조금 느슨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것은 돌이킴의 정도, 죄의 횡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이키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죄를 등지고 가면서 이따금씩 한눈을 파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한눈을 팔아야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리라 믿고요). 하지만 죄와 세상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가끔씩 찡찡하고 두려워서 뒤돌아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또한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고뇌한다면 그는 돌이킨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다면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겠지요. 물론 구원받고도 끝까지 죄를 따라가다 파선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척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잘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구분이 가지만 아무도 누가 그런 사람이고 누가 이런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요. 악한 자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사필귀정의 멸망을 받을 테고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돌지니라, 하더라. (계 22:11)

4-1.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사람에게 대한 사과

Q.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지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과하거나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다 갚아진 것인가요?

A.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참으로 귀한 양심이라고 봅니다. 안 좋게 본다면 강박이나 염려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끝이 아니고, 개별적인 화해와 용서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도 그때 일을 똑같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의 상처는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는데 다시 건드려야 할까요? 아예 당신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강력 범죄나 스토킹 같은 것을 지금 찾아가 사과하려고 한다면 상대가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또한, 사과를 했다가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사과가 조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말로만 사과하면 입에 발린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요. 갑자기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내놓는 것은 더욱 큰 모욕일 것이며, 돈이나 다른 것으로 환산하려는 자체가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명백한 피해와 손실, 빚 등을 금전으로 보전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으니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원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일일이 사과했다는 말씀은 없고, 그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 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딤후 1:13)

그렇다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은 아니겠죠. 그것이 영화 <밀양>(2007)에서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됐다든 식의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이며, 바른 크리스천의 자세도 아닐 것입니다.

사과가 가능하거나 추가적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일이라면 직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조용히 자기 삶을 개선하면서 빛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할 일이겠지요. 진심이라면 그런 마음을 상대방도 느낄 것입니다. 장차 다른 이에게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 동일한 상처로 아파하는 타인을 자기 경험을 살려 돕는 일 등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영화 <밀양> 포스터

결론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권면하지만 질문하신 청년이나 독자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아니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뻔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질문했던 청년도 다양한 해답을 얻기 위해 많은 자료를 보았지만 절망뿐이었고, 나는 이제 틀렸구나, 했다가 바른 말씀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복음이 희망의 소식이고, 참된 기독교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Your
Salvation
is
Eternally
Secure!

부록

**믿음과 행위의 전쟁...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 열차 구원 방주』 세미나

믿음과 행위의 전쟁...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A

어째서 이런 일이?

저는 교계에서 2010년에 『내가 왜 믿어야 하죠?』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에도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썼고, 다른 책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 말고는 이 책을 내기가 어려웠을까요?

몇 년 새 그만큼 교계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WCC 부산 총회로 종교 다원주의 확산
- 세월호 사고로 이단 구원파와 그들의 구원관이 이슈가 됨(구원관까지는 맞는 건데 이후 교리와 처신이 문제)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착하게 살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 도서 여러 종 출간
- 구원 취소를 말하는 이단과 교사들과 자료와 동영상의 폭발적 증가

A. 이 내용은 2015년에 『구원 열차 구원 방주』 출간 후 사랑침례교회에서 이 책에 대해 세미나로 발표한 것입니다.

- 칭의의 교리에 관한 신학적 이슈가 세계 최고 신학자라는 김세운 교수 등을 통해 제기됨
- 정통 목사, 신학자들의 (취지는 좋으나) 애매한 입장이 주목받음(폴 워셔와 존 맥아더, 박영돈, 옥한흠, 유기성 등)

보시다시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한 것을 심는데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교리가 건전해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종교 다원주의, 이단, 천주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누룩을 심으면 부패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부패한 교리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거나 행위를 보태서 구원에 일조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또 불신자, 무신론자, 기독교 혐오론자, 진화론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교계의 신자들과는 성경 문제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오래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에덴동산을 나가자마자 시작됩니다. 에덴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큰 때였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둘 다 주께 헌물을 가져왔는데, 아벨이 바친 양은 규정을 준수한 바른 것이었고, 가인이 바친 땅의 열매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것이 더 수고한 것일 수 있고, 세상 값어치가 컸을지 모르지만 그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식량이 모자라 다른 나라에 쌀을 주문했더니 보석을 보내면서 “그게 더 비싼 거니까 그걸 받으시오.” 하면 계약이 성사될까요? 보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반품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것이 반품됐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제대로 된 것을 납품하면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분노하여, 바르게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천주교가 늘 개신교를 향해 자기네가 큰집이다, 장자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런데 동생이 바른말을 하니까 죽였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회유책과 온갖 수단을 써서 이젠 구원 교리를 파괴하는 종교다원주의로 유혹해 영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계에 바른 신앙이 남겠습니까? 아벨 같은 의인들이 자꾸 죽으면 그 땅의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전쟁입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원하신 것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일단은 그게 법칙이기 때문이죠. 1 빼기 1은 0, 죄 빼기 죄는 무죄입니다. **죄를 빼려면 피가 있어야 한다는데** 무슨 농작물입니까? 협상 결렬입니다. 하나님은 농작물과 양 자체의 가치에 관심이 없고, 거기 담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너희들 보기에 다른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내가 요구한 것만 주면 협상 타결이다. 그게 너희에게 가장 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아벨의 계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행위는 무언가 바치되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은 헌금과 선행과 종교적 통과 의례, 예식, 직분, 도덕, 교회 생활의 열심 등을 통해 구원을 이루거나 1%라도 보태려 합니다. 헌금과 선행과 도덕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용도상 구원을 얻는 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을 얻고 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성장을 위해서, 구원 얻을 때 받은 성령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함께 대화도 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인이 돌이켜 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을 알라도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을 통해서 올 속죄의 약속을 믿지 않은 자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구원 열차. 이 노래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은 노래가 있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많습니다. 장차 ‘받겠네’가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성가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일반 찬송가에도 이런 법칙이 많이 나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뵈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찬송가 <나 행한 것으로(203)>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올어도 못하네(544)>입니다. 이런 찬송이 참 많습니다.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까? 찬송은 이렇게 부르고 삶에서는 행위를 구원에 보태려 하다니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해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교리들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먼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뒤집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 구원받은 건 지금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하는 건 교만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권이다.
- 때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
- 예수님을 받아들인 믿음과 그 후의 삶을 종합해 죽음 뒤 맨 마지막에 천국이나 지옥을 결정받는다.
- 어떻게 믿었다는 것만으로 그 큰 구원을 염치없이 날름 받아먹나..., 그건 양심이 없는 짓이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전쟁이 오래되었듯이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정통 기독교의 주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천주교의 주장이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소수 의견이었죠. 그런데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왜 갑자기 이런 것들

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감추어진 비밀, 중대한 진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다 속이고 말세가 되니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명맥을 유지 하던 기독교 신앙이 급속도로 흐트러져 누군가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일제히 마지막 때가 위험한 시기이고, 악한 것들과 마귀의 교리가 판을 쳐서 배교가 일어나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감추었던 중대한 구원의 문제에 비로소 해답을 얻게 된다는 말 입니까? 그것도 천주교와 자유주의 신학과 WCC를 통해서요? 그럼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다 헛되이 믿었다는 말입니까?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히려 퇴화합니다. 그 증가하는 지식은 좋은 것 나쁜 것 할 것 없이 온갖 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해도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의 기근이 오는 시대**이고, 엄청난 정보들 사이에서 분별은 더 어려워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를 칠천만 명이나 죽인 천주교는 성경을 자기들끼리만 보다가 모든 사람을 위해 번역을 한다니까 난리를 치며 번역자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영국 왕이 이런 교황의 세력에 맞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자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나오게 되자 300년 넘게 애를 써서 구약과 신약을 다 변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신교에 손을 뻗어 화해하는 척 교리를 통일하고 흡수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이름 ‘루시퍼’를 없애더니 이제는 루시퍼를 드러내 찬양하고, 예수는 신이 아닌 그저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신학교도 성경 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머리도 다 헤집어 어디에도 정답은 없다는 ‘철학적 기독교’를 주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목사로 파견됩니다. 이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머리 깎은 중

이 교회에 파견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은 위험하지 않지요. 다 알아보고 그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신자의 탈을 쓴 불신자 목사는 치명적입니다. 독약을 당의정으로 만들어 삼키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제 표현이 좀 과해도 거기 담긴 뜻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잘 섬기고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실하고 신실해 보이는데 성경을 안 믿는 목사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

그러면 말세에 나타난 이 새로운 주장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없는 감추었던 진리를 이제야 대언(?)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너무나 뻔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아시다시피 복음에는 참 복음과 변질된 복음, 즉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 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뭔가 다른 복음이 있는데, 거기로 옮겨 가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합니다.

8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나 천사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참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여기 저주가 그리스도인도 지옥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성도를 미혹하고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주 껄뽀한 일이고 본인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은 원래의 복음과 변질된 ‘다른 복음’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4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는데, 목적이 무엇이나...,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은 회의에서 아무것도 내게 더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아마도 학식과 배경이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엇이나 되는 것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배경과 외모가 일단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하므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성도가 말하면 듣지 않을 이야기도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면 듣습니다. 내가 보기엔 영아닌데도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나만 반대하면 무식한

사람 될까 봐, 『별거벗은 임금님』에서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고, 안 보여도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하고 믿어 버립니다.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파괴됩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은 범법자로 확정되는데, 그런 자가 받는 죄의 값은 자기가 외모로 판단한 바로 그 일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업자득이죠.

16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뭔가 행실을 개선해 얻는 ‘의’는 어떤 육체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17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거니까 죄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의의 사역자지, 그쪽 관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19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자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 속박을 헐어 버린 것인데, 이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의 다스림 아래 다시 머리를 들이키는 것이 되어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슬람권의 법을 어긴 사람이 탈출을 해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이게 헐어 버린 겁니다. 이제 이슬람법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면 다시 그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인데(롬 8:2), 율법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죄인이 됩니다. (물론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육신이 살아 있는 것은 맞다. 육신이 살아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후의 죄로 다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은 문맥상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냥 이루지 왜 예수님을 통하느냐? 예수님이 죽어 주실 이유가 무엇이나?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꺾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얼마나 답답하면 “오 어리석도다.” 하겠습니까. 당신들 참 바보 같다 이거죠. 누가 너희를 꺾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꺾에 빠지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3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죠? 당신들 진짜 이것밖에 안 되냐? 실망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나? 잘 행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들으면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다음 성도의 삶은 주제가 다른 문제이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6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의(義)’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애매하고 교묘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것들이 숨어 있는 월트 디즈니의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단 판타지 소설 장르 자체가 성경을 담기에는 무리입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반인반수가 의롭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많은 마법적, 주술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원작자인 C. S. 루이스는 좋은 글도 많이 있지만 유신진화론자이기도 하고, 잘 분별해서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리즈의 2편이 <캐스피언 왕자(2008)>라는 것인데, 이 왕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과 주인공 네 남매를 도와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슬란이 그들을 왕으로 승격시키죠.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왕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자 왕자가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슬란이 말합니다.

“그 겸손이 자격이니라.”

멋있죠? 근데 진실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왕이 되는 것이 성도가 되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라면, 아무리 겸손하고 행실이 의로워도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겸손하면 되는구나,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내용처럼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남을 위해 일백 번 고쳐 죽어도 영생을 못 얻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다고 했으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바울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자기 혼만 건지는 거죠. 바울은 불가능한 설정을 통해 자기의 애타는 심정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뭔가 강조할 때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져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종이면 파라도 새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와 내기할 때도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조법과 가정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내 겸손과 남을 위한 희생 등 행위의 합작품이 되면 그 구원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조금 빼고 자기가 더 하면 부실해집니다. 물론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만 자유를 잃고 죽을 때까지 노심초사하겠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생각하거나 행위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오해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10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속박에서 풀어 주셨는데 왜 다시 저주 아래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받고 대신 처리해 주셨는데,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시간대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가서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 그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마셨는데 왜 죽어서 갈증이 해소되나요?

제가 선교 기업에 다닐 때 직원이 80여 명 됐습니다. 그때 저는 디자인 실장이었는데 입사한 지 며칠 안 되어 둘째 아이가 손에 감전 사고를 당했고, 치료하는 동안 직원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 병원비를 너무 써서 100만원이 넘게 환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다!” 그때 테이크아웃 커피가 막 생길 때였는데, 단골 커피숍에 가서 내 이름 적고 일주일간 전 직원 아무거나 한 잔씩 마시라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커피숍 사장님이 적어 놓은 걸 보니까 공짜인데도 안 온 친구들이 30%가 넘더라고요. 몇 명에게 물어보니까, 부서도 다르고 저랑 그리 친하지도 않아서, 그리고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병원비 많이 들어가서 환급받은 것인데 얻어먹기도 민망하고, 커피 한 잔 대수롭지 않아서 안 왔다는 겁니다.

구원이 이런 거죠. 받아 마시면 유효, 안 받아 마시면 무효입니다. 바빠서 못 온 직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마치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이런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커피 아니라 아무리 값진 생명수면 뭐하겠습니까? 그 몸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 생명의 만병통치약이 공짜라는데도 자기네가 알아서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위로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아까 1장 21절처럼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겁니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신 사람 것만 후불로 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선불로 다 치러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괜히 죽게 만든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부당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과 함께 다른 영, 다른 예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일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후 11:4)

다른 예수가 아닌 원래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구원을 주시는지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40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여기서 이 범법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죄가 죽어 마땅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도의 죄는 일반인의 죄와 천국에 부적격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42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자, 벌써 “주여!” 나오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놀랍게도 아직 세상의 죄에 대한 대가도 다 치르지 못한 이 ‘범법자’에게, 너는 오늘 하나님의 본체인 나와 같은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대대적인 사면입니까? 이진 광복절 특사나 대기업 회장들을 집행 유예로 풀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조치입니다.

이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화 <밀양>에서처럼 피해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런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빌고 대가를 치러야죠.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바로 풀려난 것은 아니죠? 세상 형벌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제 됐다고 하십니다. 아주 화끈합니다.

“큰맘 먹고 사면을 단행한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해라.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네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죄를 미워하고 다시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 해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억울한 피해를 입히면 합의금이고 뭐고 필요 없고, 사과 한마디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서 살인도 나는 겁니다. “돈 필요 없다. 나 죽기 전에 사과 한마디만 해라.” 이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사과를 안 받으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죄는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나는 돈도 행위도 필요 없다. 다만 그것을 씻어 줄 수 있는 내가 일부러 인간으로 와서 이 큰 선물을 주었으니, 양심이 있으면 감사히 받고, 믿고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것도 못 하겠다는 양심 없는 자는 받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개 팻팻이 들고,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공짜로는 못 받겠고,

누더기 같은 내 의라도 받아 가시오.” 하면 대신 죽어 준 분의 마음이 어떻겠 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 저 같으면 구원을 줬다가도 무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십니다. 그분의 법칙은 줬다가 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저 감사하고 내 의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만 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강도가 무슨 선 행을 했습니까? 무슨 실천을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생각 자체가 죄인데 숨을 거둘 때까지 완전무결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속성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곳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입니다.

해의 입양아나 이산가족 찾기 할 때도 이름만 맞으면 안 되고요,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턱에 점이 있고, 귀 뒤에 흉터가 있고, 혈액형도 맞아야죠. 이름만 예수이고 행위를 요구한다? 이걸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이 찬송은 아무 손이나 잡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찾으라는 의미도 됩니다. 귀 뒤에 흉터가 있어야 우리 아버지죠. 못 자국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죠.

메신저를 하는데 갑자기 직장 동료 김 대리가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 돈을 보내드립니다. ‘수상하다…’ 하고 있는데, 저기 김 대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디어 해킹당한 겁니다. 돈을 요구한 건 직장 동료 김 대리가 아니고 다른 김 대리입니다. 다른 예수 찾으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고도 잘못해서 다른 예수 만나면 죽을 때까지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죽어 봐야 구원을 안다면 왜 예수님이 숨통도 안 끊어진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스데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나?

스데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설득하고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데 너희가 죽었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이때 스데반이 자기 죽음을 직감합니다.

55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원래 앉아 계시는 건데 스데반을 맞으려고 일어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귀를 막습니다.

57 그때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도시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도시 밖이 창밖입니까? 문만 나서면 도시 밖이 아닙니다. 아마 낙타 타고 한참 가야 했을걸요. 무척 가까워서 십분 만에 간다 해도, 아직 돌로 맞기 전인데, 제아무리 스데반이지만 감히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자신을 마중하신다는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그의 삶을 종합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59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60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니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요? 스테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면서 똑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영속성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멀쩡한 교리를 말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원리

우리가 반성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행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건 하나님 모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대충 믿고 영접기도 외우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이유는 큰 줄기, 말씀의 거대한 지향점, 큰 방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도 구원의 영속성 교리를 전했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큰 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다는 건데 과연 남은 일생에 행위로 상쇄시켜 용서를 받을까요? 그 방식이 맞는다면

말입니다. 또 유명한 목사들도 바르게 살라는 취지에서 논리를 펴다 보니 결국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엄마 잔소리가 왜 공포입니까? 내가 공부가 안돼서 나도 미치겠는데..., 내가 백점을 맞을 애가 아닌데, 자꾸 한 얘기 하고 또 하고, 다른 애랑 비교하고, 오늘 잘못을 야단치면서 십년 전 실수까지 다 들추고, 미래에 잘못할 것까지 미리 예언을 하면서 악담에 가까운 잔소리를 듣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행실이 잘못됐으면 그것만 말하면 되지, 왜 그걸로 성정을 바꾸고 교리를 바꾸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거짓 말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원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 잎새』로 유명한 오 헨리라는 작가 잘 아시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작품 중에 『되찾은 개심(A retrieved reform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미 벨런타인은 은행 강도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인데, 랄프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범죄를 하며 살게 되고, 그를 추적하던 형사는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 주변을 맴도는데, 지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미는 애너벨 애덤즈라는 한 은행가의 딸을 보고 반해서 새롭게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개심을 한 거죠. 그래서 구둣방을 차려 1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해서 애너벨과도 사귀게 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은행털이 도구가 있었지만 아무도 건실한 랄프를 그런 사람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미가 은행털이 도구들을 완전히 처분하기 위해 나갔다가 애너벨의 아버지, 즉 장인 될 사람의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튼튼한 새 은행 금고를 구경시키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하던 중에 애너벨의 조카들이 거기 갇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에서 잠기면 아무도 열 수

없고, 밀폐 구조라 구급대가 오기 전에 산소도 다 떨어질 아찔한 상황입니다. 형사도 와서 지켜보고 있고, 모두들 울고불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망설이던 지미가 조용히 가방을 엽니다. 그리고 은행털이 도구들을 꺼내 능숙하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멍하니 지켜보고 있을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낸 지미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형사에게 자수하며 이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가 그렇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당신은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랄프를 감시하지 않고 떠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면서도,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지미는 진짜 회심을 한 거죠. 형사는 그를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치고, 더 이상 부과할 형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강도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로 회개하면 적어도 이렇게 한 번은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후 5:17)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사 65:17)

다시 태어난 새 사람, 새 창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도왔던 창녀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입니다. 개혁성경에는 기생으로 나오지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창녀 직업 가진 사람이 성도라고 교회 와서 간증하면 여러분은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침이 없습니다. 창녀 라합이 믿음의 선진이래요. 시험 들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라합이 구원을 받고 직업을 바꿨거나 고민 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뒷일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말할 때는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잘했다 못했다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패륜적 음행자도 구원을 받았습시다. 믿음의 파선자도 죽음의 징계를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받았습시다. 이런 것이 우리의 범죄에 위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원리 이외에 자기 합리화에 동원하면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옮겨갈 것을 아시고, 부득이 이런 극단적 사례까지 기록에 남기신 것입니다.**

대개는 잘해 보려고 하고,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분들이 행위에 집착하는 편입니다. 이분들은 의지가 강하고 삶이 건실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구석으로 몰아세웁니다. 어떤 책을 보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겨야 천국도 차지하고 승리한다는 책인데요….

천국은 비겁한 자,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한 자, 자기 배고픔이나 욕심 하나 다 스리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면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기는 자로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삶의 태도가 천국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부러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저 내용이 사실이면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일 있다면 그는 예수님 없이도 완전무결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지닌 죄의 속성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매우 바리새인적인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도 '이길 자'도 아니고, 이미 **주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애통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부도덕한 창녀와 세리와 강도, 두려움으로 자신을 배반한 제자 등등 삶의 패배자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돌아보신 겁니까? 그들의 부도덕과 배반을 칭찬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꾸 행실과 구원을 연결 짓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 취소를 가르치는 분들은 왜 그런 것을 가르치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겁을 내고, 주목하고, 강의를 찾아 듣고, 책을 사고 그러합니다. 영향력과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나요? 아직 약혼도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요새말로 썸 타는 '썸녀' 아닙니까? 자기 신랑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왜 휴거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남의 신랑 보고 난리일까요?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니 성도들이 맨날 헛갈리지요.

어떤 날은 구원의 영속성을 가르치고, 어떤 날은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은 죽어 봐야 안다면서 유아 세례 주고, 등록만 하고 나오지도 않은 사람까지 자기네가 알아서 천국 환송 예배 드려 주고, 어떤 일은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일은 신약식으로 해석하니 종잡을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면서 평

생 쪼먹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지만 정혼하면 신부입니다. 아직 예식도 안 올려서 그냥 없던 일로 할까 고민하던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 1:20 중)

‘네 아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혼자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 잔치를 앞둔 주님의 신부**가 맞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진리입니다.

정속성 없는 구원론은 희망 고문이다

구원에 영속성이 없으면 그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굿 뉴스가 아니고 절망의 소식입니다. 유치원 아이에게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선생님이 약속합니다.

“선생님만 믿어. 꼭 줄 거니까. 근데 네가 한 시간 동안 조용히 말 잘 듣고 말썹 안 피우면 네 것이 되는 거니까 한 시간 후가 돼 보면 알 거야.”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와~ 참 감사하다.” 이럴까요? 불안해서 걱정부터 하겠죠.

한 시간 동안 긴장입니다. 내가 몸을 움찔했는데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취소’에 해당할까, 아닐까? 그러다가 옆 친구가 귀찮게 해서 잠깐 티격태격 다투다가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서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고, “에이, 아무래도 난 틀렸구나…. 어차피 못 먹을 거 맘대로 뒹굴고 놀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생님은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야? 흥, 처음부터 안 줄 생각이었구나…. 되게 치사하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물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무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신실하고 약속을 절대 깨시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영속성의 교리는 성도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부르고, 죽어 봐야 안다는 교리는 성도의 긴장과 삶의 개선을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억제하고 잘 행하는 척한다고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만 두는 것뿐이지요.

처벌이 강력한 싱가포르의 범죄율이 낮은 대신에 행복 지수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직도 야만적인 태형(곤장)이 남아 있고, 사회 규범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물을 안 내리거나 수도물을 안 잠가도 1,000불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밖에서 껌을 빨지 않아도 소지하거나 씹기만 해도 안 됩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분

이 싱가포르 관광을 갔다가 껌 씹는 걸 경찰한테 들켜서 얼른 꿀꺽 삼켰더니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안 씹었다고 발뺌을 하니 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벌금 천 불,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물렸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껌 씹다 벌금 천 불을 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하더군요.

처벌이 이 정도니까 억지로 법을 지키지만 자발적인 준수가 아닙니다. 그런 삶은 불행하지요. 자유가 행복의 큰 요건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으로는 은혜에 감사해서



싱가포르의 황당한 규제에 대해 다루는 방송 장면(JTBC 비정상회담)

가 아닌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므로, 자기가 믿는 건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행위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개역성경에 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욱 이런 교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신학과 사상은 그 정체가 있습니다. 빛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어둠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줬다 뺐는 다른 예수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말이 구원이고(벧전 1:9), 인생의 결말이 구원은 아닙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바로잡아도 앞으로 많은 이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그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것을 사수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타 종교의 구원 방법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종교 다원주의를 퍼뜨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이루는 것, 결국 같은 것이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진짜 복음, 참된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행위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참된 말씀으로 다른 복음에 속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



킹 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나 형제교회는 단
 번에 이루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 중 한 곳이 행위구
 원 교리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리더인 장로(목사)가 갑자기
 행위를 중시하는 교리에 관심을 갖다가 완전히 그것을 주장하고 철저히 가
 르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었지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 + 행위’ 교리인 ‘주재권 구원론’, 즉 로드십 샬베이션
 (Lordship Salvation) 교리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교리는 1980년대에 존 맥
 아더 등 몇몇 장로교 목회자들이 주장한 논리인데, 믿는다는 것은 행위로 드
 러나야 하므로 행위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지 않은 채 근심만 하고 돌아갔기 때문
 에,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이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다뤘듯이 그 순서를 바꾸면 곤란합
 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행위가 나타나 믿은 것이 입증되는 것이지, 행위로 믿
 음을 입증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독립교회 목회자는 그런 교리로 돌아섰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함께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늘 제자
 리이며 죄를 떨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
 습에 큰 회의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된 변화를 이끌 수 있

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교리가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과 의도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멋대로 행하거나, 어떤 이단처럼 이후로는 회개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재권 구원 같은 것을 가르치고 도입한다고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만일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원을 위한 위선과 가식인지도 알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저버린 구원의 방법은 성경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보면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얼마나 몸부림치며 해결할 과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스스로를 괴롭혀도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히려 명쾌하고 쉬우며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명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은 함부로 건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무엇이든 해 보려고 애쓰다가 자포자기하고 물을 먹은 뒤 축 늘어지면 그때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공로를 부정할 때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들이 무너지고 홀륭하다는 신학자들이 온갖 분석으로 교리를 잘게 쪼개 갖가지 신상품 구원관을 내놓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명품이라도 발견한 듯 찾아가 열광하며 자기만 어려운 진리의 좁은 문을 연 것처럼 으스스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도 설명했듯이 **구원의 길은 넓습니다**. 인류 전체가 들어가도 자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한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좁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높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넓은데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길이며 많이 두드리지 않는 문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세상 모두를 비추고, 누구든지 믿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요 12:46).

그 독립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좀 더 잘 행하고 삶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함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시에 흐트러지는 구원관에 동참하지 않도록 건강한 구원 교리를 잘 가르치고 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한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시간에 얽매인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미리 아심에 의한 예정과 우리의 참된 믿음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구원 이후의 행함이 모두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빌 2:12)

연약한 육신을 지닌 채 옛사람과 씨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구원의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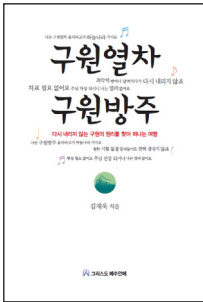
내가 왜 믿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쉽고 명쾌한 대답 10가지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책

개정판



- 김재욱 지음/ 15,000원/ 생명의말씀사



구원열차 구원방주

구원열차 노래 가사와 노아의 방주 사건에 담긴
구원의 교리와 진리와 구원의 안전과 영속성 원리를
성경적으로 설명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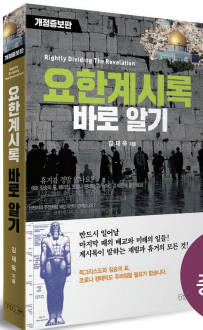
- 김재욱 글·그림/ 5,000원/ 그리스도예수안에

예수님의 천국 초대장

실버 세대에 전하는 친절한 구원 안내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 김재욱 지음/ 12,000원/ 하온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역사와 유대인의 성경적 정체,
제3성전, 휴거 시기와 7년 환난, 짐승의 표에 대한 분별,
신천지의 14만 4천 등 이단 교리까지...

성도가 알아야 할 종말론을 업그레이드한 개정증보판!

개정
증보판

- 김재욱 지음/ 440쪽/ 20,000원/ 하온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운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짐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곁이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문)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잡이 역할, 흥정적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티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짚은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아담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비침 등 중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Your Salvation is Eternally Secure!

이 책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을 과연 우주 공간의 그 어떤 창조물이 빼앗아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이해하면 너무나도 쉽고 명백한 문제를 복잡한 철학으로 바꾸어 버리려는 인간의 시도, 이것을 버리고 단순하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가 주는 확신 속에서 굳건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히 5:9). 우리 주님께서서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perfect peace)으로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사 26:3). 이런 완전한 화평 가운데서 죄와 투쟁하며 전진하는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이 책의 정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발간사 중에서, 정동수 목사(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사랑침례교회 목사)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입니다.

둘째로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이 공짜라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공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전을 영원토록 보장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세 가지 소식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 소식입니다. 둘째와 셋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무언가 지불할 일이 남아 있거나 삶을 종합해 추후에 결론이 난다면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그런 모순을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 저자 머리말 중에서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구원론

비매품